

제1장 문장 성분 표시하기

1. 주어의 표시

[학습 목표]

주어가 되는 말에 주격 조사나 보조사를 붙여 주어를 표시하고, 주어가 되는 말 단독으로 주어를 표시하며,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용어]

- (1) 주어: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상태·속성의 주체가 되는 말.
- (2) 주어가 될 수 있는 말: 명사, 의존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구, 명사절.
- (3) 주격 조사: 가, 이, 께서, 에서.
- (4) 보조사: 는, 은, 도.

[표시하기]

1.1. 주격 조사 ‘가’를 붙여 표시한다.

(주어가 되는 말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수화: 해가 뜨다

국어: 해가 뜬다.



수화: 배+ 도착하다(‘완료’의 뜻 포함)

국어: 배가 도착했다.



수화: 나+ 주인

국어: 내가 주인이다.

1.2. 주격 조사 ‘이’를 붙여 표시한다.

(주어가 되는 말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수화: 산+ 높다

국어: 산이 높다.



수화: 꽃+ 피다

국어: 꽃이 핀다.



수화: 눈+내리다

국어: 눈이 내린다.

1.3. 보조사 '는'을 붙여 표시한다.

(주어가 되는 말이, 끝소리가 모음이며, 그 말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낼 때, 앞에서 언급한 것이나 화제임을 나타낼 때,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수화: 장미+빨강다

국어: 장미는 빨강다.



수화: 나+교사

국어: 나는 교사다.

1.4. 보조사 '은'을 붙여 표시한다.

(주어가 되는 말이, 끝소리가 자음이며, 그 말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낼 때, 앞

에서 언급한 것이나 화제임을 나타낼 때,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수화: 돌+ 단단하다

국어: 돌은 단단하다.



수화: 동생+ 영리하다

국어: 동생은 영리하다.

1.5. 주격 조사 ‘께서’를 붙여 표시한다.

(주어를 높여서 말할 때)



수화: 할아버지+ 오시다+ 끝

국어: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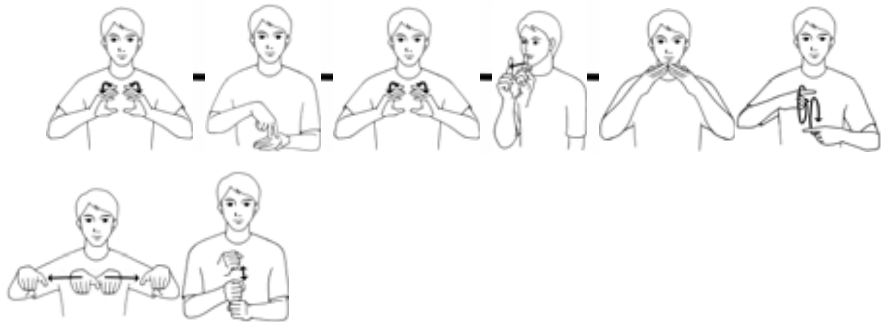


수화: 선생님+ 질문을 받다(나에게 하는 질문을 나타냄)+ 끝

국어: 선생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1.6. 주격 조사 '에서'를 붙여 표시한다.

(주어가 단체를 뜻하는 명사일 때)



수화: 국립국어원+ 수화+ 표준화하다(=표준+ 만들다)

국어: 국립국어원에서 수화를 표준화한다.



수화: 우리나라+ 월드컵+ 개최하다+ 겪다

국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

1.7. 보조사 '도'를 붙여 표시한다.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낼 때)



수화: 나+ 도+ 합격하다+ 끝

국어: 나도 합격했다.



수화: 수미+ 도+ 학생

국어: 수미도 학생이다.



수화: 동생+ 도+ 오다

국어: 동생도 온다.

1.8. 주어가 되는 말 단독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흔히 구어체에서 주어가 분명할 때)



수화: 너+ 집+ 가다/묻는 표정

국어: 너 집에 가니?



수화: 너+ 어디+ 아프다/묻는 표정

국어: 너 어디 아프니?



수화: 누나+ 오다+ 끝

국어: 누나 왔다.

1.9. 주어를 생략한다.

(흔히 구어체에서 문맥으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물음에 대답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거나 앞 문장에서 나왔던 성분이 뒤 문장에서 되풀이 될 때)



수화: 설령탕+ 먹다+ 줘다+ 참+ 맛있다

국어: () 설령탕 먹어 봤는데 (설령탕) 참 맛 있어요.



수화: 남대문+ 시장+ 한번(=하나)+ 가다+ 해보다+ 부탁하다

국어: ()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수화: 공부+ 중/묻는 표정

국어: () 공부하고 있어?

[도움말]

(1) 한국어 문장의 성분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 독립어.

(2) 한국어 문장의 어순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하는 말+ 수식받는 말

명사+ 조사

본동사+ 보조 동사

(3) 한국어의 기본 문형(부사어는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부사어다)

주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 (4)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라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주체어.
- (5) 내: ①주격이나 보격 조사 ‘가’ 앞에 쓰이는 일인칭 대명사.
②‘나의’가 줄어든 말.
- (6) 목적어나 부사어도 주체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는/은’이 붙어 문장의 맨 앞에 놓이면 주체어가 된다.
예: 시간은 영희가 정했다.
버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7) 주어는 문장의 첫 머리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주어는 주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의 첫머리를 벗어날 수 있다.
예: 민수를 내가 사랑한다.
- (8)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데도 그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 있다. 이러한 문장은 주로 관용 표현으로 다루어진다.
예: 불이야.
민수가 안 오면 큰일인데.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다.
- (9) 보조사: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연습]

- (1) () 속에 주격 조사 ‘가’와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아이+ 울다

국어: 아이() 운다.



수화: 노랑+ 좋다

국어: 노랑() 좋다.



수화: 이것+ 책상

국어: 이것() 책상이다.



수화: 비+ 내리다

국어: 비() 내린다.



수화: 저것+ 의자

국어: 저것() 의자다.



수화: 아이+ 똑똑하다

국어: 아이() 똑똑하다.

(2) () 속에 보조사 ‘는’과 ‘은’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지구+ 둥글다

국어: 지구() 둥글다.



수화: 한라산+ 높다

국어: 한라산() 높다.



수화: 누이+ 착하다

국어: 누이() 착하다.



수화: 길+ 멀다

국어: 길() 멀다.

(3) () 속에 주격 조사 ‘께서’와 ‘에서’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우리+ 회사+ 컴퓨터+ 생산하다

국어: 우리 회사() 컴퓨터를 생산한다.



수화: 아버지+ 오시다+ 끝

국어: 아버지() 오셨다.



수화: 학교+ 축제+ 하다

국어: 학교() 축제를 한다.



수화: 춘부장+안녕하세요/묻는 표정

국어: 춘부장()안녕하십니까.

(4) () 속에 알맞은 보조사를 넣어 보자.



수화: 오늘+도+춥다

국어: 오늘()춥다.



수화: 여기+도+좋다

국어: 여기()좋다.



수화: 내일+도+좋다

국어: 내일()좋다.

2. 목적어의 표시

[학습 목표]

목적어가 되는 말에 목적격 조사나 보조사를 붙여 목적어를 표시하고, 목적어가 되는 말 단독으로 목적어를 표시하며,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용어]

- (1) 목적어: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
- (2)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 명사, 의존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구, 명사절.
- (3) 목적격 조사: 를, 을.
- (4) 보조사: 는, 은, 도.

[표시하기]

2.1. 목적격 조사 ‘를’을 붙여 표시한다.

(목적어가 되는 말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수화: 오빠+ 사과+ 좋아하다

국어: 오빠는 사과를 좋아한다.



수화: 할머니+편지+쓰다

국어: 할머니께서 편지를 쓰신다.



수화: 학생+노래+부르다

국어: 학생이 노래를 부른다.

2.2.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 표시한다.

(목적어가 되는 말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수화: 학생+들+선물+사다

국어: 학생들이 선물을 산다.



수화: 사람+들+더럽다+것+싫어하다(=싫다)

국어: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



수화: 그+ 자신+ 잘못+ 알다+ 있다

국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

2.3. 보조사 '는'을 붙여 표시한다.

(목적어가 되는 말이, 끝소리가 모음이며, 그 말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낼 때, 화제임을 나타낼 때,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수화: 나+ 사이다+ 좋아하다+ 그러나+ 커피+ 싫어하다(=싫다)

국어: 나는 사이다는 좋아하지만 커피는 싫어해.

2.4. 보조사 '은'을 붙여 표시한다.

(목적어가 되는 말이, 끝소리가 자음이며,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낼 때, 화제임을 나타낼 때,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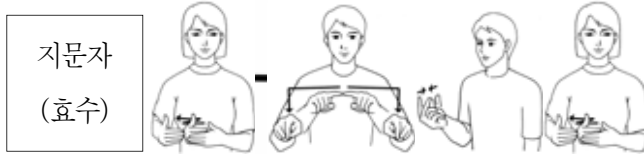


수화: 우리+ 가족+ 과일+ 좋아하다

국어: 우리 가족은 과일은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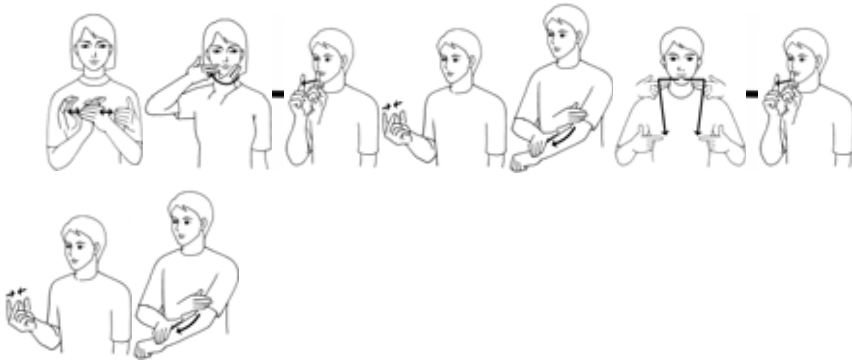
2.5. 보조사 '도'를 붙여 표시한다.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낼 때)



수화: 효수+ 그림+ 도+ 그리다

국어: 효수는 그림도 그린다.



수화: 친구+ 영어+ 도+ 잘하다+ 붙어+ 도+ 잘하다

국어: 친구는 영어도 잘하고 붙어도 잘한다.

2.6. 목적어가 되는 말 단독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흔히 구어체에서 목적어가 분명할 때)



수화: 그+사람+ 줌+ 만나다+ 꼭

국어: 그 사람 줌 만나야겠다.

(줌: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삼입하는 말
-겠-: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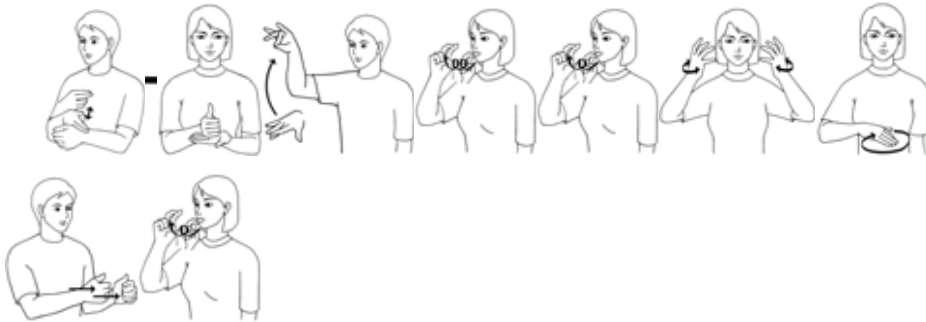


수화: 돈+ 줌+ 빌리다/간절히 원하는 표정

국어: 돈 줌 빌려 줘.

2.7. 목적어를 생략한다.

(흔히 구어체에서 문맥으로 문장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때)



수화: 선생님+ 먼저+ 노래+ 부르다+ 아이+ 들+ 따르다+ 부르다

국어: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이 () 부른다.



수화: 너+ 영화+ 보았다/묻는 표정

예+ ()+ 보았다

국어: 너 그 **영화** 봤니?

응, () 봤어.



수화: 나+ 주다+ 책+ 읽다+ 끝/묻는 표정

맞다(‘그렇다’의 뜻을 나타냄)+ 읽다+ 끝

국어: 내가 준 **책** 읽었니?

네, () 읽었어요.

[도움말]

(1) 목적어는 타동사의 서술어 앞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2)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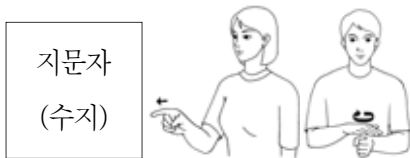
예: 편지를 민수가 쓴다.

(3) -겠-

- 1)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 2)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 3) 가능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 4)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연습]

(1) () 속에 목적격 조사 ‘를’과 ‘을’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수지+ 너+ 사랑하다

국어: 수지는 너() 사랑한다.



수화: 형+ 음악+ 좋아하다

국어: 형은 음악() 좋아한다.



수화: 사람+ 들+ 버스+ 기다리다

국어: 사람들이 버스()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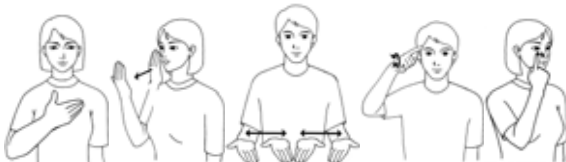
수화: 나+ 친구+ 항상+ 그+ 연필+ 사다

국어: 내 친구는 항상 그 연필() 산다.



수화: 우리+ 형제+ 들+ 돌아오다+ 바라다

국어: 우리는 형제들이 돌아오기() 바라다.



수화: 나+ 할 수 있다+ 일+ 생각+ 해보다+ 끝

국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았다.

(2) () 속에 보조사 ‘는’과 ‘은’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그녀+ 술+ 싫어하다+ 하지만+ 커피+ 좋아하다

국어: 그녀는 술을 싫어하지만 커피() 좋아해.



수화: 나+ 사람+ 좋아하다+ 하지만+ 그+ 사람+ 싫어하다

국어: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 싫어한다.

(3) () 속에 알맞은 보조사를 넣어 보자.



수화: 만화+ 만+ 보다+ 말다+ 공부+ 도+ 하다+ -자

국어: 만화만 보지 말고 공부() 하자.



수화: 관광+ 도+ 하다+ 쇼핑+ 도+ 하다+ 끝

국어: 관광도 하고 쇼핑() 했다.

(4)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단독으로 목적어가 되게 목적격 조사를 ()로 묶어 생략을 표시해 보자.



수화: 나+ 과일+ 좋아하다

국어: 난 과일을 좋아해.



수화: 나+ 주다+ 책+ 읽다+ 끝/묻는 표정

국어: 내가 준 책을 읽었니?

3. 서술어의 표시

[학습 목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서술어로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서술어: 한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
- (2)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동사, 형용사, 명사+ 서술격 조사(이다), 본용언+ 보조 용언, 서술절,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연결 어미),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말이 아닌 말+이다.
- (3) 종결형: 종결 어미로 끝나는 활용형.

[표시하기]

3.1. 동사의 종결형으로 표시한다.

(평서형 종결 어미 '-니다/-는다'를 붙여)



수화: 아이+ 과자+ 먹다

국어: 아이가 과자를 먹는다.



수화: 동생+ 올다

국어: 동생이 온다.



수화: 올챙이+ 개구리+ 되다

국어: 올챙이는 개구리가 된다.

3.2. 형용사의 종결형으로 표시한다.

(종결 어미 '-다'를 붙여/형용사의 기본형으로)



수화: 하늘+ 푸르다

국어: 하늘이 푸르다.



수화: 물+ 차다

국어: 물이 차다.



수화: 고래+ 어류+ 아니다

국어: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

3.3. '명사+ 서술격 조사(이다)'로 표시한다.



수화: 나+ 학생

국어: 나는 학생이다.



수화: 민수+ 말썽

국어: 민수가 말썽이다.

3.4. '본용언+ 보조 용언'으로 표시한다.



수화: 많이+ 먹다+ 말다

국어: 많이 먹지 마라.



수화: 먼동이 트다(터 음을 나타냄)

국어: 먼동이 터 온다.



수화: 일+ 잘+ 되다+ 중

국어: 일이 잘 되어 간다.



수화: 누이+ 점심('먹다' 생략)+ 먹다+ 중

국어: 누이는 점심을 먹고 있다.

3.5. 서술절로 표시한다.



수화: 나+ 키가 크다

국어: 나는 키가 크다.



수화: 서호+ 돈+ 많다

국어: 서호는 돈이 많다.



수화: 너+ 성격+ 좋다

국어: 너는 성격이 좋다.

3.6.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연결 어미)으로 표시한다.



수화: 날씨가 춥다+ 그런데+ 나가다+ 놀다/묻는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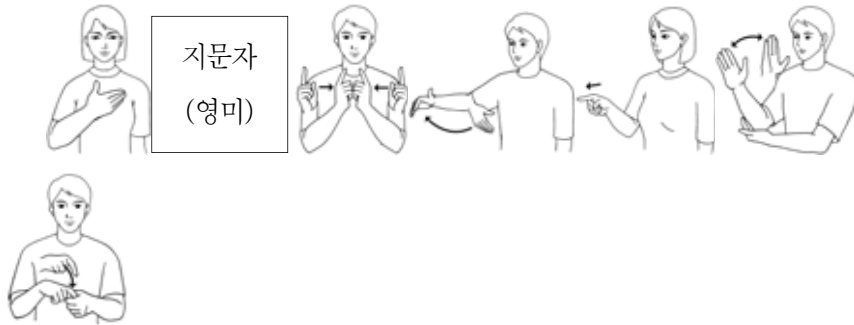
국어: 날씨가 추운데, 나가 놀겠니?

3.7.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말이 아닌 말+이다'로 표시한다.



수화: 경기도+ 여기+ 부터

국어: 경기도는 **여기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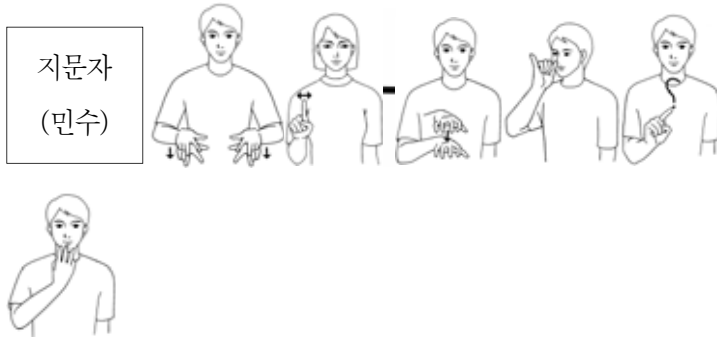
수화: 나+ 영미+ 만나다+ 가다+ 것+ 이야기하다+ 목적

국어: 내가 영미를 만나러 간 것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것: 사물 · 일 ·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3.8. 서술어를 생략한다.

(문맥으로 생략된 서술어를 알 수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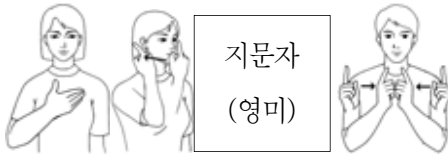


수화: 민수+ 지금+ 어디+ 있다+ 물음표(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냄)

서울

국어: 민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서울(에)()



수화: 나+ 어제+ 영미+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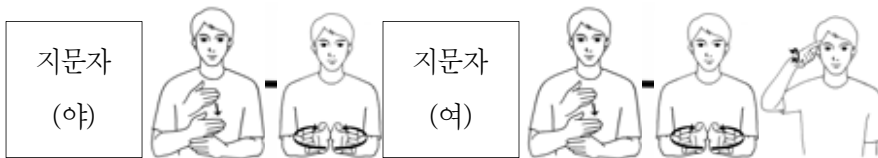
나+ 도

국어: 나는 어제 영미를 만났어.

나도. ()

3.9. '하다'나 '이다'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명사에 '-하다'나 '이다'가 붙어서 된 서술어의 경우. 시, 광고, 신문 기사의 표제 같은 데에서 흔히 쓰인다.)



수화: 야당+ 여당+ 의견+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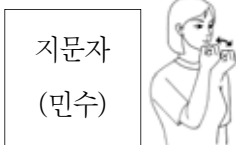
국어: 야당은 여당의 의견에 반대().

[도움말]

- (1) 평서형: 용언 및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의 하나. ‘-다’, ‘-오’ 따위의 예사로운 종결 어미가 붙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문장 형태이다.
- (2) 서술절: 이중 주어문의 뒷부분.
- (3) ‘본용언+ 보조 용언’은 두 개의 서술어가 아니라 하나의 서술어다.
- (4) 보조 용언: 가다, 가지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말다, 못하다, 버리다, 보다, 싶다, 아니하다, 앓다, 오다, 있다, 주다, 하다
- (5) 한국어의 서술어는 문장의 맨 끝에 놓이는 것이 정상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서술어를 문장 앞으로 끌어내기도 하나 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연습]

(1) () 속에 있는 동사를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꾸어 보자.



수화: 민수+ 웃다

국어: 민수가 (웃다→)



수화: 비+ 내리다

국어: 비가 (내리다→)



수화: 얼음+ 녹다+ 물+ 되다

국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다→)

(2) () 속에 있는 형용사를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꾸어 보자.



수화: 영미+ 참+ 예쁘다

국어: 영미는 참 (예쁘다→)



수화: 날씨+ 덥다

국어: 날씨가 (덥다→)



수화: 나+ 학생+ 아니다

국어: 나는 학생이 (아니다→)

(3) () 속에 있는 ‘명사-이다’를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꾸어 보자.



수화: 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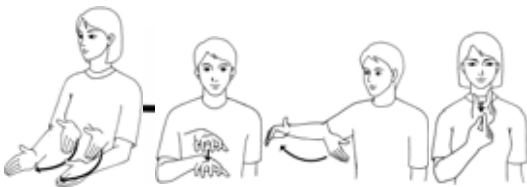
국어: 나는 (의사다→)



수화: 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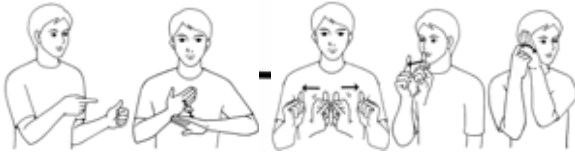
국어: 나는 (학생이다→)

(4) () 속에 있는 ‘본용언+ 보조 용언’을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꾸어 보자.



수화: 고향+ 가다+ 싶다

국어: 고향에 (가다+ 싶다→)



수화: 그+ 남+ 말+ 잘 듣지 않다

국어: 그는 남의 말을 잘 (듣다+ 아니하다→)



수화: 나+ 그+ 사람+ 잘+ 모르다

국어: 나는 그 사람을 잘 (알다+ 못하다→)

(5) () 속에 있는 것을 평서형 종결 어미로 바꾸어 보자.



수화: 민수+ 목소리+ 크다

국어: 민수는 (목소리+ 크다→)



수화: 이+ 구두+ 만+ 싸다

국어: 이 구두는 (만원+싸다→)



수화: 미인+ 입+ 작다

국어: 미인은 (입+작다→)

(6) 생각할 수 있는 서술어를 ()로 묶어 생각을 표시해 보자.



수화: 동생+ 어디+ 가다+ 물음표(?)

서울+가다+ 끝

국어: 동생은 어디 갔을까?

서울에 갔어.

4. 보어의 표시

[학습 목표]

보어가 되는 말에 그것이 보어임을 나타내는 보격 조사나 보조사를 붙여 보어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보어: 서술어 앞에 붙어서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성분.
- (2)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 (3) 보격 조사: 가, 이.
- (4) 보조사: 은.

[표시하기]

4.1. 보격 조사 ‘가’나 ‘이’를 붙여 표시한다.

[보어 동사(되다) 앞에 있는 보어가 되는 말에]



수화: 물+얼음+되다

국어: 물이 얼음이 된다.



수화: 올챙이+ 자라다+ 개구리+ 되다
 국어: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수화: 아들+ 교사+ 되다+ 끝
 국어: 아들이 교사가 되었다.

4.2. 보격 조사 ‘가’나 ‘이’를 붙여 표시한다.

[보어 형용사(아니다) 앞에 있는 보어가 되는 말에]



수화: 거기+ 아니다
 국어: 거기가 아니다.



수화: 그것+ 소설+ 아니다
 국어: 그것은 소설이 아니다.

4.3. 보조사 ‘은’을 붙여 표시한다.

(보조사가 보격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수화: 눈+얼음+아니다

국어: 눈이 얼음은 아니다.

[연습]

(1) ()속에 보격 조사 ‘가’와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어린이+자라다+어른+되다

국어: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된다.



지문자
(수미)

수화: 수미+교사+되다+끝

국어: 수미는 교사()되었다.



수화: 고래+ 물고기+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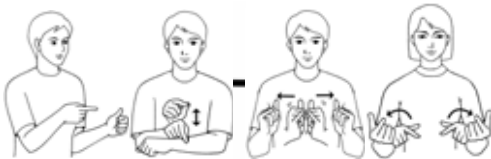
국어: 고래는 물고기() 아니다.



수화: 아저씨+ 목공+ 아니다

국어: 아저씨는 목공() 아니다.

(2) () 속에 보조사를 넣어 보자.



수화: 그+ 회사원+ 아니다

국어: 그는 회사원() 아니다.

5. 관형어의 표시

[학습 목표]

관형사나 체언 단독으로, 관형격 조사나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관형어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관형사: 새, 순, 웬, 이, 저, 첫, 한.
- (2)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 (3) 관형격 조사: 의.
- (4) 관형사형 어미: -ㄴ, -는/-은, -(으)ㄴ, -던.
- (5)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말: 관형사, 체언, 체언+관형격 조사,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 관형절.

[표시하기]

5.1. 관형사 단독으로 표시한다.



수화: 아이+새+옷+입다

국어: 아이가 새 옷을 입는다.



수화: 어제+ 첫+ 눈+ 내리다

국어: 어제 첫 눈이 내렸다.



수화: 친구+ 전화를 받다+ 끝

국어: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5.2.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여 표시한다.



수화: 소녀+ 시골+ 풍경+ 좋아하다

국어: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수화: 서울+ 지하철+ 무척+ 편리하다

국어: 서울의 지하철은 무척 편리하다.

5.3. 체언 단독으로 표시한다.



수화: 소녀+ 시골+ 풍경+ 좋아하다

국어: 소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수화: 어제+ 고향+ 친구+ 만나다

국어: 어제 고향 친구를 만났다.



수화: 우리+ 학교+ 경기도+ 있다

국어: 우리 학교는 경기도에 있다.

5.4.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 -는, 은, -(으)르, -던'을 붙여 표시한다.



수화: 다르다+ 것+ 필요 없다

국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수화: 나+ 늦다+ 적 없다

국어: 나는 **늦은** 적이 없다.



수화: 집+ 먹다+ 것+ 많다

국어: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수화: 옷+ 작년+ 입다+ -던+ 옷

국어: 이 옷은 **작년에** 입던 옷이다.



수화: 아기+ 자다+ 얼굴+ 평화+ -답다

국어: 아기의 **잠든** 얼굴은 평화롭다.



수화: 선생님+ 웃다+ 얼굴+ 학생+ 맞이하하다

국어: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학생을 맞이하신다.



수화: 그+ 학생+ 훌륭하다+ 학자+ 되다+ 끝

국어: 그 학생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수화: 나+ 읽다+ 책+ 소설

국어: **내가** 읽은 책은 소설이다.

[도움말]

- (1) 관형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2)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 (3) 관형절: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절(節).
예: ‘현수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에서 ‘현수가 떠난다는’
- (4) 관형어는 체언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 (5) 관형어는 그 위치를 바꿀 수 없다.
- (6) 의존명사 앞에는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존명사 자체만으로는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 (7) 의존명사: 것, 데, 마리, 바, 외, 원, 적, 체 따위.
예: 먹을 것이 많다. 아픈 데가 없다. 닭 한 마리 주세요. 전술한 바와 같다.
그 외에. 백만 원. 어릴 적에 놀던 곳. 모르는 체를 한다.

[연습]

- (1) () 속에 관형사 ‘새, 원, 이, 저’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보자.



수화: 어제+ 어느+ 여자+ 너+ 찾다+ 오다

국어: 어제 () 여자가 너를 찾아왔더라.



수화: 이모+ 새롭다+ 자동차+ 사다+ 끝

국어: 이모가 () 자동차를 샀다.



수화: 우리+()+ 꽃+ 좋아하다

국어: 우리는 () 꽃을 좋아한다.



수화: ()+ 식당+ 음식+ 값+ 싸다

국어: () 식당이 음식 값이 싸다

(2) 체언이 단독으로 관형어가 되게 관형격 조사를 ()로 둘러싸 보자.



수화: 시골+ 하늘+ 맑다(=깨끗하다)

국어: 시골의 하늘은 맑다.



수화: 저+ 집+ 우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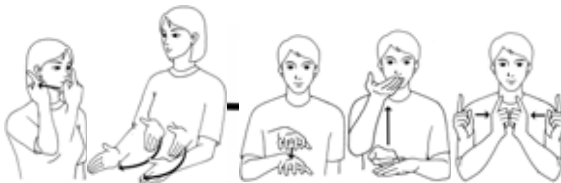
국어: 저 집이 우리의 집이다.

(3) 체언에 관형격 조사를 붙여 관형어가 되게 해보자.



수화: 참새+ 소리+ 듣다+ 아니다

국어: 참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수화: 어제+ 고향+ 선배+ 만나다

국어: 어제 **고향**() 선배를 만났다.



수화: 우리+ 책+ 학교+ 있다

국어: 우리() 책은 학교에 있다.

(4)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관형어가 되게 해보자.



수화: 줌다+ 것+ 아름답다

국어: (줍다→) 것이 아름답다.



수화: 봄+ 입다+ 옷+ 없다

국어: 봄에 (입다→) 옷이 없다.



수화: 어머니+ 딸+ 먹다+ -던+ 사과+ 먹다

국어: 어머니가 딸이 (먹다→) 사과를 드신다.



수화: 나+ 좋아하다+ 운동+ 야구

국어: (내가 좋아하다→) 운동은 야구다.



수화: 어머니+나+ 국수+ 싫어하다+ 것+ 모르다

국어: 어머니는 (내가 국수를 싫어하다→) 것을 모르신다.



수화: 동생+ 분실하다+ 책+ 찾다+ 끝

국어: 동생은 (분실하다→) 책을 찾았다.

6. 부사어의 표시

[학습 목표]

부사 단독으로, ‘부사+ 보조사’로, ‘체언+ 부사격 조사’로, 또는 ‘용언의 어간+ 부사형 어미’로 부사어를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부사어: 서술어(동사, 형용사) · 다른 부사어 · 관형어 앞에 놓여 이들을 수식하는 말.
- (2) 부사어가 될 수 있는 말: 부사, 부사+ 보조사, 체언+ 부사격 조사, 동사 · 형용사의 부사형(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부사형 어미).
- (3)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가장, 겨우, 과연, 그리고, 매우, 몹시, 무척, 빨리, 아주, 천천히, 특히 따위가 있다.
- (4) 보조사: 이나, 도, 는.
- (5) 부사격 조사: 로, 만큼, 보다, 예, 에게, 에서, 에게서, 와/과, 으로, 으로서, 으로써, 처럼, 하고, 한테, 한테서.
- (6) 부사형 어미: 한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 부사어로 쓰이게 하는 어미.

[표시하기]

6.1. 부사 단독으로 표시한다.



수화: 한수+ 빨리+ 뛰다

국어: 한수가 **빨리** 된다.



수화: 날씨+ 무척+ 덥다

국어: 날씨가 **무척** 덥다.



수화: 나+ 달리다+ 매우 빠르게

국어: 나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수화: 나+ 책+ 몹시+ 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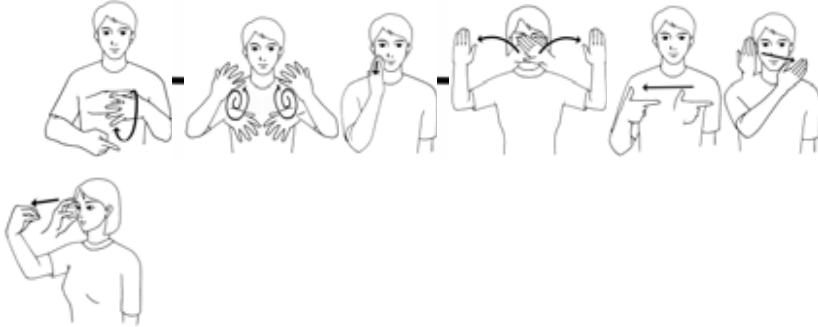
국어: 내 책은 **몹시** 험책이다.



수화: 코웃음+ 보잘 것 없다/눈을 쳐다보면서

국어: **겨우** 이것뿐이냐.

6.2. '부사+ 보조사'로 표시한다.



수화: 가을+ 하늘+ 무척+ 맑다(=깨끗하다)+ 보이다

국어: 가을 하늘이 무척이나 맑아 보인다.



수화: 빨리+ 가다/감탄하는 표정

국어: **빨리**도 간다.

(도: 감탄의 뜻을 나타냄)



수화: 영수+ 성적+ 좋다+ 되다+ 다행히

국어: **다행스럽게도** 영수의 성적이 좋아졌다.



수화: 너+ 좋다+ 재주+ 있다

국어: 너에게는 좋은 재주가 있다.

6.3.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부사어 ‘체언+부사격 조사’로 표시한다.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변하거나 틀린 문장이 되는 부사어)



수화: 이것+ 실물+ 같다

국어: 이것은 실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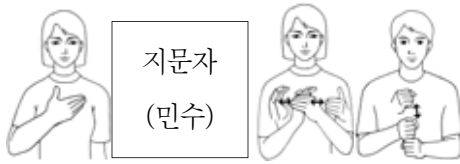
수화: 동생+ 아버지+ 닮다

국어: 동생은 **아빠와** 닮았다.



수화: 친구+ 주다(‘너에게’를 포함함)+ 무엇/묻는 표정

국어: 친구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수화: 나+ 민수+ 친구+ 만들다

국어: 나는 민수를 친구로 삼았다.



수화: 물+ 얼음+ 되다

국어: 물이 얼음으로 된다.



수화: 그+ 학생+ 대전+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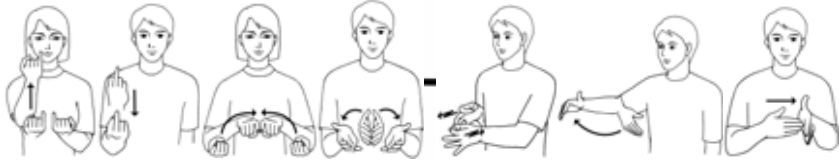
국어: 그 학생은 대전에서 산다.



수화: 언니+ 집+ 있다

국어: 언니는 집에 있다.

6.4. 필수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부사어인 ‘체언+부사격 조사’로 표시한다.



수화: 언니+ 동생+ 서점+ 함께+ 가다+ 끝

국어: 언니는 동생과 함께 서점에 갔다.



지문자
(영미)

수화: 영미+ 백화점+ 옷+ 하나+ 사다+ 끝

국어: 영미는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샀다.



수화: 너+ 합격+ 진심+ 바라다

국어: 너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란다.

6.5. 용언의 부사형인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부사형 어미’로 표시한다.



수화: 꽃+ 아름답게+ 피다+ 끝

국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수화: 바깥+ 잘+ 보다+ 할 수 있다+ 활짝 열다/시키는 표정

국어: 바깥이 잘 보이도록 문을 활짝 열어라.

[도움말]

(1) 부사의 종류

성상 부사: '어떻게'의 의미를 갖고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한다.

예: 날씨가 매우 춥다.

지시 부사: 장소, 시간, 앞에 나온 말을 지시한다.

예: 이리 오라. 내일 만나자.

부정 부사: 용언의 의미를 부정한다.

예: 안 일어났다.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예: 과연 숨씨가 훌륭하구나.

접속 부사: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준다.

예: 정치, 경제, 및 문화.

(2) 부사어는 부사어가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표현 효과를 위해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

(3) 부사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예: 이곳에 자주 오세요. 가끔 오세요?

응, 가끔.

(4)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부사어의 형식:

명사+ 와/과, 명사+ 에게, 명사+(으)로, 명사+ 에서, 명사+ 에.

(5) 부사격 조사 ‘에’를 붙이는 경우: 가꾸다, 갈다, 감다, 걸다, 걸치다, 꽃다, 꿰다, 끼었다, 넣다, 담다, 덮다, 두르다, 바르다, 박다, 뿌리다, 붓다, 붙이다, 신다, 칠하다 등의 동사가 쓰일 때.

(6) 부사격 조사 ‘에게’를 붙이는 경우: 가르치다, 권하다, 드리다, 선물하다, 선사하다, 주다 등의 동사가 쓰일 때.

[연습]

(1) () 속에 ‘매우, 무척, 빨리, 아주, 천천히, 특히’ 중에서 알맞은 부사를 넣어 보자.



수화: 음식+ 값+ ()+ 비싸다

국어: 음식 값이 () 비싸다.



수화: 준호+ ()+ 걷다

국어: 준호는 () 걷는다.



수화: ()+가다+-자

국어: ()가자.



수화: 철수+밥+()+빨리+먹다+끝

국어: 철수는 밥을 () 빨리 먹었다.



수화: 순이+()+예쁘다+아이

국어: 순이는 () 예쁜 아이다.



수화: ()+너+주의+해/눈을 크게 뜨며

국어: () 너 주의해.

지문자
(민수)



수화: 민수+()+ 영화+ 좋아하다

국어: 민수는 () 영화를 좋아한다.

(2) () 속에 ‘이나, 도, 는’ 중에서 알맞은 보조사를 넣어 ‘부사+ 보조사’ 형식의 부사어를 표시해 보자.



수화: 그+ 일+ 무척+ 힘들다+ 끝

국어: 그 일은 무척() 힘들었다.



수화: 정말+ 슬프게+ 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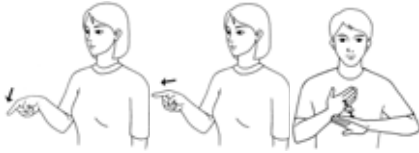
국어: 슬프게() 운다.



수화: 나+ 특기+ 없다

국어: 나에게() 특기가 없다.

(3) () 속에 알맞은 부사격 조사를 넣어 부사어를 표시해 보자.



수화: 이것+ 저것+ 다르다

국어: 이것은 저것() 다르다.



수화: 너+나+ 같다

국어: 너는 나() 같다.



수화: 민수+ 선물+ 그녀+ 주다+ 끝

국어: 민수는 선물을 그녀() 주었다.



수화: 집+ 오시다/청하는 표정

국어: 집() 오세요.

지문자
(영미)



수화: 영미+ 편지+ 우체통+ 넣다+ 끝

국어: 영미는 편지를 우체통() 넣었다.



수화: 그+ 나()+ 잘+ 생겼다

국어: 그는 나() 잘 생겼다.



수화: 나+ 서점+ 책+ 하나+ 사다+ 끝

국어: 나는 서점() 책 한 권을 샀다.

(4) () 속에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를 붙여 부사어를 표시해 보자.



수화: 내일+ 입다+ 만들다+ 주세요

국어: 내일 (입다→) 해 주세요.



수화: 민수+ 이상하다+ 걷다

국어: 민수는 (이상하다→) 걷는다.



수화: 어제+ 늦다+ 까지+ 공부하다

국어: 어제는 (늦다→) 공부했다.

7. 독립어의 표시

[학습 목표]

감탄사로, ‘명사+ 호격 조사’로, 또는 ‘호격 조사가 붙지 않은 말’로 독립어를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감탄사: 거봐, 글썄, 뭐, 싸구려, 아니, 아니야, 아멘, 아이고, 아차, 안녕, 어머, 어머니, 열중쉬어, 예, 차려, 천만에, 후유 등.
- (2) 호격 조사: 아/야

[표시하기]

7.1. 감탄사로 표시한다.



수화: 어머니+ 지갑+ 두다+ 있다+ 오다+ -구나

국어: 어머니, 지갑을 잊고 두고 왔네.



수화: 열시+ 아직+ 충분하다+ 뭐

국어: 열시, 아직 충분하다, 뭐.



수화: 만+ 아니+ 천만+ 받다+ 팔다+ 아니다

국어: 만 원, 아니, 천만 원을 주어도 안 팔아.

7.2. 명사에 호격 조사(아/야)를 붙여 표시한다.



수화: 아+ 떡+ 먹다+ -해

국어: 미숙아, 떡 먹어라.



수화: 야+ 저기+ 오다+ 미나+ 맞다/묻는 표정

국어: 기태야, 저기 오는 사람이 미나니?

7.3. 호격 조사가 붙지 않은 말로 표시한다.

(사람이 아닌 제시어, 높임말(할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등), '-님'이 붙은 말(선생님, 형님), 고유명사 등으로)



수화: 청춘+ 듣다+ 만+ 해도(=그러나)+ 설레다+ 말/설레는 표정
 국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다.



수화: 형+ 그만+ 가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형님**, 그만 가세요.



수화: 선생님+ 저+ 잘못하다+ 습니다
 국어: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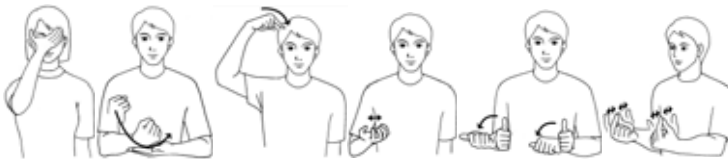
수화: 아+ 지금+ 집+ 가다/묻는 표정
 국어: **현수 씨**, 지금 집에 가세요?

[도움말]

- (1) 독립어: 다른 말들과 어울려 문장을 이루지만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 (2) 독립어가 되는 말: 감탄사, 명사+ 호격 조사, 호격 조사가 붙지 않은 말(제시어 등)
- (3) 부르는 말이 독립어로 나타날 때 이것은 뒤에 오는 문장의 한 성분과 보통 일치하는데 이 때 독립어와 일치하는 말은 대명사로 바뀌거나 흔히 생략된다.

[연습]

(1) () 속에 ‘짜구려!, 아이고, 어머’ 중에서 알맞은 감탄사를 넣어 보자.



수화: ()+ 머리+ 아프다+ 죽다+ 같다

국어: (), 머리가 아파 죽겠네.



수화: ()+ 언제+ 오시다+ 끝/묻는 표정

국어: (), 언제 오셨어요?



수화: ()+ 공짜+ 주다

국어: () 거저 줍니다.

(2) () 속에 호격 조사 ‘아’ 나 ‘야’를 넣어 독립어를 표시해 보자



수화: ()+ 일어나다+ 아니다/묻는 표정

국어: 상국(), 안 일어나니?



수화: ()+ 학교+ 가다+ 아니다/묻는 표정

국어: 나미(), 너는 학교에 안 가니?

(3) () 속에 호격 조사가 붙지 않은 말을 넣어 독립어를 표시해 보자.





수화: ()+ 세상+ 이것+ 보다+ 더욱+ 아름답다+ 것+ 있다+ 물음표(?)

국어: (),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수화: 어머니+ 그만+ 가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 그만 가세요.



수화: 할머니+ 오시다+ 끝+ -습니까

국어: (), 오셨어요?

제2장 문장 만들기

1. 평서문 만들기

[학습 목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의 어간 뒤에 평서형 종결 어미를 붙여 평서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평서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 (2)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습니다, -오, -소, -네, -ㄴ다/-는다/-다, -아요/-어요, -지요, -아/-어, -지, -마, -음세.

[만들기]

1.1.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습니다’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합쇼체)



수화: 저+ 학생+ -ㅂ니다

국어: 저는 학생입니다.



수화: 선생님+ 오시다+ 끝+ -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1.2. 평서형 종결 어미 '-오, -소'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하오체)



수화: 이것+ 나+ 것

국어: 이것은 내 것이요.



수화: 나+ 주인

국어: 내가 주인이요.



수화: 날씨+ 춥다

국어: 날씨가 춥소.

1.3. 평서형 종결 어미 '-네'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 주는 뜻을 나타낼 때/하계체)



수화: 우리+ 잘+ 지내다

국어: 우리는 잘 지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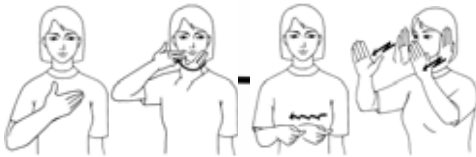


수화: 비+ 내리다

국어: 비가 오네.

1.4. 평서형 종결 어미 '-니다/-는다/-다'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에게 아주 낮추는 뜻을 나타낼 때/해라체)



수화: 나+ 영어+ 공부하다

국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수화: 하다+ -면+ 되다

국어: 하면 된다.



수화: 개+ 돼지+ 몰다

국어: 개가 돼지를 몬다.



수화: 어린이+ 웃다

국어: 어린이가 웃는다.



수화: 돈+ 없다

국어: 돈이 없다.

1.5. 평서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 -지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높이되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요체)



수화: 친구+ 아프다

국어: 친구가 아파요.



수화: 집+ 가다

국어: 집에 가겠어요.



수화: 들어오다

국어: 들어오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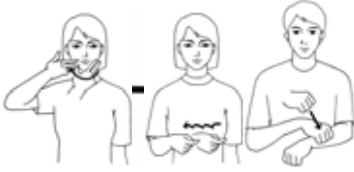
1.6. 평서형 종결어미 '-아/-어, -지'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낮추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체)



수화: 영화+ 아주+ 재미있다

국어: 영화가 아주 재미있어.



수화: 영어+ 아주 잘하다

국어: 영어를 아주 잘 하지.

1.7. 평서형 종결어미 '-마, -음세'를 붙여 만든다.

(기꺼이 하겠다는 뜻을 나타낼 때)



수화: 돕다+ 주다

국어: 도와주마.



수화: 곧+ 값다

국어: 곧 값음세.

[도움말]

(1) 문장의 종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2) 격식체

해라체: 아랫사람에게 아주 낮추는 뜻을 나타냄. 글에서 많이 사용됨.

하계체: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 주는 뜻을 나타냄.

하오체: 상대방을 예사로 높이는 뜻을 나타냄.

합쇼체(하십시오체):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뜻을 나타냄.

(3) 비격식체

해체(반말): 상대방을 예사로 낮추는 부드러운 말씨.

해요체: 상대방을 높이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말씨.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높이는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습니다’를 붙여 보자.



수화: 아주+ 좋다+ -습니다

국어: 아주 (좋다→)



수화: 나+ 회사+ 가다+ -ㅂ니다

국어: 나는 회사에 (가다→)

(2) () 속에 있는 단어에 예사로 높이는 평서형 종결 어미 ‘소’나 ‘오’를 붙여 보자.



수화: 이것+ 나+ 것/예사로 높이는 표정

국어: 이것은 내 (것이다→)



수화: 나+ 가다/예사로 높이는 표정

국어: 내가 (가다→)

(3) () 속에 있는 단어에 조금 대접해 주는 평서형 종결 어미 ‘-네’를 붙여 보자.



수화: 너+ 만+ 믿다/조금 대접해 주는 표정

국어: 자네만 (믿다→)



수화: 꽃+ 참+ 곱다/조금 대접해 주는 표정

국어: 꽃이 참 (곱다→)

(4)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낮추는 평서형 종결 어미 '-니다/-는다/-다'를 붙여 보자.



수화: 눈+ 내리다

국어: 눈이 (내리다→)



수화: 길+ 걷다

국어: 길을 (걷다→)



수화: 꽃+ 아름답다

국어: 꽃이 (아름답다→)

(5)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높이는 평서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를 붙여 보자.



수화: 비+ 내리다/부드러운 표정
 국어: 비가 (내리다→)



수화: 물+ 깊다/부드러운 표정
 국어: 물이 (깊다→)

(6)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낮추는 평서형 종결 어미 ‘-아/-어’를 붙여 보자.



수화: 산+ 높다/부드러운 표정
 국어: 산이 (높다→)



수화: 밥+ 잘+ 먹다/부드러운 표정

국어: 밥을 잘 (먹다→)



수화: 공부하다+ 싫다/부드러운 표정

국어: 공부하기가 (싫다→)



수화: 수화+ 잘하다/부드러운 표정

국어: 수화를 잘 (하다→)

(7) () 속에 있는 단어에 기꺼이 하겠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 ‘-마, -음세’를 붙여 보자



수화: 밥+ 먹다/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국어: 밥을 (먹다→)



수화: 나+ 도+ 따라가다/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국어: 나도 (따라가다→)

2. 의문문 만들기

[학습 목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의 어간 뒤에 의문형 종결 어미를 붙여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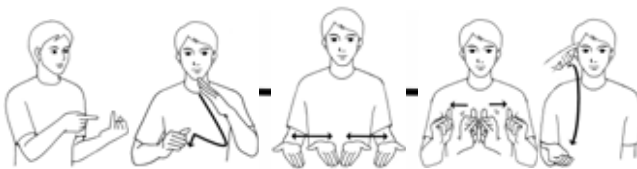
[용어]

- (1) 의문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2) 의문형 종결어미: -ㅂ니까/-습니까, -오, -소, -냐, -는가, -느냐, -니, -지, -아요/-어요, -아/-어 등.

[만들기]

2.1. 의문형 종결 어미 ‘-ㅂ니까/-습니까’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합쇼체)



수화: 그녀+ 공무원+ -ㅂ니까

국어: 그녀는 공무원입니까?



수화: 선생님+ 오시디다+ 끝+ 습니까

국어: 선생님이 오셨습니까?



수화: 누구+ 기다리디다+ 버니까

국어: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2.2. 의문형 종결 어미 '-오, -소'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하오체)



수화: 이것+ 나+ 것/묻는 표정

국어: 이것은 내 것이오?



수화: 당신+ 주인/묻는 표정

국어: 당신이 주인이오?



수화: 서울+ 오다+ 언제/묻는 표정

국어: 서울에 언제 왔소?

2.3. 의문형 종결 어미 ‘-냐, -는가’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 주는 뜻을 나타낼 때/하계체)



수화: 배고프다/묻는 표정

국어: 배가 고프냐?



수화: 언제+ 가다/묻는 표정

국어: 언제 가는가?

2.4.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 -니, -지’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에게 아주 낮추는 뜻을 나타낼 때/해라체)



수화: 너+ 일본어+ 공부하다/묻는 표정

국어: 너는 일본어를 공부하느냐?



수화: 꽃+ 피다/묻는 표정

국어: 꽃이 피었니?



수화: 그 사람+ 누구/묻는 표정

국어: 그 사람은 누구지?

2.5. 의문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높이되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요체)



수화: 친구+ 아프다/묻는 표정

국어: 친구가 아파요?



수화: 집+가다/묻는 표정

국어: 집에 가겠어요?



수화: 시청+어떻게+가다/묻는 표정

국어: 시청에 어떻게 가요?



수화: 춘천+에서(=곳)+오다/묻는 표정

국어: 춘천에서 왔어요?

2.6. 의문형 종결 어미 ‘-아/-어’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낮추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체)



수화: 너+놀다+보다+공부하다+좋다/묻는 표정

국어: 너는 놀기보다 공부하기가 좋아?



수화: 영화+ 재미있다/묻는 표정

국어: 영화가 재미있어?

[도움말]

(1) 의문문의 종류

1)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문장(수사 의문문).

예: 내가 그것을 모를까?

2) 의문사가 들어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설명 의문문).

예: 어디 가니?

3) 의문사 없이 긍정, 부정의 어느 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예: 네가 형이니?

(2) 의문사: 누구, 무슨, 무엇, 어느, 어디, 어떤, 어떻게, 언제, 얼마, 왜 따위.

(3) 의문문의 억양

1) '예/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문장의 끝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

2) 물음말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문장의 끝이 약간 내려가거나 올라간다.

3)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답할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 앞의 문장은 끝 부분의 억양을 올리고, 뒤의 문장은 끝 부분을 내린다.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높이는 의문형 종결 어미 ‘-ㅂ니까/-습니까’를 붙여 보자.



수화: 아주+ 좋다+ -습니까

국어: 아주 (좋다→ ?)



수화: 부장+ 회사+ 가다+ -ㅂ니까

국어: 부장님은 회사에 (가다→ ?)



수화: 무엇+ 찾다+ -습니까

국어: 무엇을 (찾다→ ?)

(2) () 속에 있는 단어에 예사로 높이는 의문형 종결 어미 ‘-소, -오’를 붙여 보자.



수화: 이것+ 누구+ 것/묻는 표정

국어: 이것은 누구 (것이다→ ?)



수화: 저것+ 나+ 동생+ 것+ 아니다/묻는 표정

국어: 저것은 내 동생 것이 (아니다→ ?)



수화: 밖+ 누구+ 오다/묻는 표정

국어: 밖에 누구 (오다→ ?)

(3) () 속에 있는 단어에 조금 대접해 주는 의문형 종결 어미 '-냐, -는가'를 붙여 보자.



수화: 오늘+ 무슨+ 요일/묻는 표정

국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다→ ?)



수화: 비+ 내리다/묻는 표정

국어: 비가 (내리다→ ?)

(4)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낮추는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 -니, -지’를 붙여 보자.



수화: 거기+ 무엇+ 하다/묻는 표정

국어: 거기서 무엇을 (하다→ ?)



수화: 개+ 소+ 몰다/묻는 표정

국어: 개가 소를 (몰다→ ?)



수화: 돈+ 없다/묻는 표정

국어: 돈이 (없다→ ?)

(5)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높이는 의문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를 붙여 보자.



수화: 비+ 내리다/묻는 표정

국어: 비가 (내리다→ ?)



수화: 물+ 깊다/묻는 표정

국어: 물이 (깊다→ ?)

(6)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낮추는 의문형 종결 어미 ‘-아/-어’를 붙여 보자.



수화: 산+ 아주+ 높다/묻는 표정

국어: 산이 아주 (높다→ ?)



수화: 아이+ 밥+ 잘+ 먹다/묻는 표정

국어: 아이가 밥을 잘 (먹다→ ?)

3. 명령문 만들기

[학습 목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명령형 종결 어미를 붙여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명령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 (2) 명령형 종결 어미: -(으)십시오, -(으)세요, -오, -구려, -게, -아라/-어라, -(으)라, -(아)요/-(어)요, -지요, -아/-어, -지.

[만들기]

3.1. 명령형 종결 어미 ‘-(으)십시오, -(으)세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합쇼체)



수화: 여기+ 앉다+ 부탁하다

국어: 여기에 앉으십시오.



수화: 들어오다+ 부탁하다

국어: 들어오세요.

3.2. 명령형 종결 어미 ‘-오, -구려’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하오체)



수화: 들어오다+ 부탁하다

국어: 들어오시오.



수화: 어서+ 들어오다+ 부탁하다

국어: 어서 들어오시구려.

3.3. 명령형 종결 어미 ‘-게’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 주는 뜻을 나타낼 때/하게체)



수화: 멀리+ 보다/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

국어: 멀리 보게.



수화: 많이+ 먹다/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

국어: 많이 먹게.

3.4.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어라, -(으)라'를 붙여 만든다.

('-아라/-어라: 아랫사람에게 아주 낮추는 뜻을 나타낼 때. -으라: 막연하게 시키는 뜻을 나타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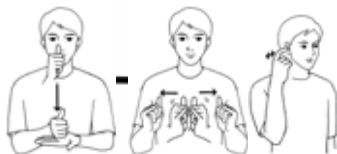
수화: 공+ 받다/명령하는 표정

국어: 공을 받아라.



수화: 많이+ 먹다/명령하는 표정

국어: 많이 먹어라.



수화: 죄인+ 듣다/시키는 표정

국어: 죄인은 들으라.

3.5. 명령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 -지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높이되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요체)



수화: 나+ 손+ 잡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내 손을 잡아요.



수화: 조금+ 먹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조금 먹어요.



수화: 같이+ 저녁+ 먹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같이 저녁을 먹지요.

3.6. 명령형 종결 어미 ‘-아/-어, -지’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낮추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체)



수화: 여기+ 앉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여기에 앉아.



수화: 빨리+ 집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빨리 집어.



수화: 먹다+ 그만/부탁하는 표정

국어: 그만 먹지.

[도움말]

- (1) 명령문의 주어: 듣는 사람(이인칭).
- (2) 동사만이 명령문의 서술어가 된다.
- (3) 의문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 선배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 (4) 평서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5) 부탁할 때도 명령문을 사용한다.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높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 ‘-세요, -십시오’를 붙여 보자.



수화: 회의+ 늦다+ 아니다+ 오다+ 부탁하다

국어: 회의에 늦지 않게 (오다→)



수화: 다시+ 한번+ 설명하다+ 받다(“나에게”를 포함)+ 부탁하다

국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다→)

(2) () 속에 있는 단어에 예사로 높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 ‘-구려, -오’를 붙여 보자.



수화: 저리+ 가다+ 부탁하다

국어: 저리 (가시다→)



수화: 잠깐+ 기다리다+ 부탁하다

국어: 잠깐만 (가다리다→)

(3) () 속에 있는 단어에 조금 대접해 주는 명령형 종결 어미 '-게'를 붙여 보자.



수화: 너+하다/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

국어: 자네가 (하다→)



수화: 저리+가다/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

국어: 저리로 (가다→)

(4)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낮추는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어라, -(으)라'를 붙여 보자.



수화: 저+ 달+ 보다/명령하는 표정
 국어: 저 달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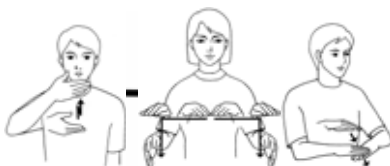


수화: 잘+ 가다/명령하는 표정
 국어: 잘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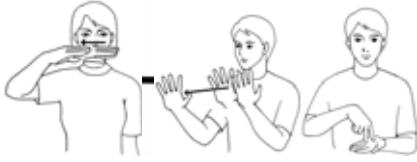


수화: 조심하다+ 다녀오다/명령하는 표정
 국어: 조심해서 (다녀오다→)

(5)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높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 -지요’
 를 붙여 보자.



수화: 식탁+ 놓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식탁에 (놓다→)



수화: 나란히+서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나란히 (서다→)



수화: 함께+가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함께 (가다→)

(6)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낮추는 명령형 종결 어미 ‘-아/-어, -지’를 붙여 보자.



수화: 나중에+갔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나중에 (갔다→)



수화: 함께+보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함께 (보다→)



수화: 같이+ 읽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같이 (읽다→)



수화: 시간+ 있다+ -면+ 나+ 조금+ 도움을 받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시간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다→)



수화: 그만+ 하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그만 (하다→)

4. 청유문 만들기

[학습 목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의 어간 뒤에 청유형 종결 어미를 붙여 청유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청유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 (2) 청유형 종결 어미: -시지요, -하십시오, -세, -자, -아요/-어요, -아/-어.

[만들기]

4.1. 청유형 종결 어미 ‘-시지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합쇼체)



수화: 저쪽+ 가다+ 부탁하다

국어: 저쪽으로 가지지요.

4.2. 청유형 종결 어미 ‘-하십시오’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하오체)



수화: 내일+ 회사+ 만나다+ -ㅂ시다(=-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내일 회사에서 만납시다.

4.3. 청유형 종결 어미 '-세'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 주는 뜻을 나타낼 때/하게체)



수화: 자장면+ 먹다+ 가다+ -자/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하자는 표정
 국어: 자장면 먹으러 가세.

4.4.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에게 아주 낮추는 뜻을 나타낼 때/해라체)



수화: 수영+ 가다+ -자
 국어: 수영하러 가자.

4.5. 청유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높이되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요체)



수화: 같이+수영+가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같이 수영하러 가요.



수화: 같이+저녁+먹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같이 저녁을 먹어요.

4.6. 청유형 종결 어미 ‘-아/-어’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낮추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체)



수화: 나+랑+놀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나랑 놀아.



수화: (우리)둘이+책+같이+읽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우리 책을 같이 읽어.

[도움말]

- (1) 청유문의 주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포함된 '우리'가 된다.
- (2) 동사만이 청유문의 서술어가 된다.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높이는 청유형 종결 어미 '-시지요'를 붙여 보자.



수화: 어서+ 먹다+ 부탁하다

국어: 어서 (들다→)

(2) () 속에 있는 단어에 예사로 높이는 청유형 종결 어미 '-하시다'를 붙여 보자.



수화: 여기+ 내리다+ -하시다/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여기서 (내리다→)

(3) () 속에 있는 단어에 조금 대접해 주는 청유형 종결 어미 '-세'를 붙여 보자.



수화: 집+가다+자/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하자는 표정

국어: 집으로 (가다→)

(4)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낮추는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붙여 보자.



수화: 형+나가다+놀다+자

국어: 형 나가서 (놀다→)

(5)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높이는 청유형 종결 어미 '-아요/-어요'를 붙여 보자.



수화: 우리+같이+놀다+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우리 같이 (놀다→)



수화: 잠시+ 같이+ 쉬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잠시 같이 (쉬다→)

(6)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낮추는 청유형 종결 어미 ‘-아/-어’를 붙여 보자.



수화: 함께+ 보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함께 (보다→)



수화: 이것+ 빵+ 같이+ 먹다+ -자/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국어: 이 빵 같이 (먹다→)

5. 감탄문 만들기

[학습 목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감탄형 종결 어미를 붙여 감탄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감탄문: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감탄하며 표현하는 문장.
- (2) 감탄형 종결 어미: -구려, -구먼, -구나, -아라/-어라, -군요, -네요, -군, -네, -어.

[만들기]

5.1. 감탄형 종결 어미 ‘-구려’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높이는 뜻을 나타낼 때/하오체)



수화: 숨씨+ 참+ 좋다+ -구려(-구나+ 맞다)

국어: 숨씨도 참 좋구려.

(도: 감탄의 뜻을 나타냄)

5.2. 감탄형 종결 어미 ‘-구먼’을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을 보통으로 낮추면서 조금 대접해 주는 뜻을 나타낼 때/하계체)



수화: 빨리+ 오다+ -구나

국어: 빨리 왔구먼!

5.3.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아라/-어라’를 붙여 만든다.

(아랫사람에게 아주 낮추는 뜻을 나타낼 때/해라체)



수화: 얼굴+ 참+ 예쁘다+ -구나

국어: 얼굴이 참 예쁘구나!



수화: 아이 좋다+ -구나

국어: 아이 좋아라!



수화: 영광+ 받아라+ -구나

국어: 영광이 있어라!

5.4. 감탄형 종결 어미 ‘-군요, -네요’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높이되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요체)



수화: 오늘+ 춥다+ -구나+ 같다

국어: 오늘은 춥군요!



수화: 영어+ 아주 잘하다+ -구나+ 같다

국어: 영어를 아주 잘 하네요!

5.5. 감탄형 종결 어미 ‘-군, -네, -어’를 붙여 만든다.

(상대방을 예사로 낮추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해체)



수화: 날씨+ 덥다+ 굉장히+ -구나

국어: 날씨가 굉장히 덥군!



수화: 산+ 높다+ 굉장히+ -구나

국어: 산이 무척 높네!



수화: 참+ 재미있다+ -구나

국어: 참 재미있어!

[도움말]

- (1)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어미로 끝낸다.
- (2) 감탄문에는 문장 뒤에 느낌표를 붙인다.
감탄의 의미가 약할 때는 온점을 붙여도 된다.
- (3) 감탄의 의미는 평서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감탄사나 정도를 나타내는 말(굉장히, 꽤, 매우, 무척, 아주, 정말 등)과 함께 쓰인다.
예: 이 사과 **정말** 맛있다!
와,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 (4) 모든 평서형 어미는 발화될 때 억양, 몸짓 등으로 감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연습]

- (1) () 속에 있는 단어에 예사로 높이는 감탄형 종결 어미 ‘-구려’를 붙여 보자.



수화: 벌써+ 가다+ -구나+ 맞다

국어: 벌써 (갔다→ !)

(2) () 속에 있는 단어에 조금 대접해 주는 감탄형 종결 어미 ‘-구먼’을 붙여 보자.



수화: 좋다+ 생각+ -구나

국어: 좋은 (생각이다→ !)

(3) () 속에 있는 단어에 아주 낮추는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아라/-어라’를 붙여 보자.



수화: 참+ 잘+ 되다+ 끝+ -구나

국어: 참 잘 (되었다→ !)



수화: 달+도+ 밝다+ -구나

국어: 달도 (밝다→ !)



수화: 나이+도+ 어리다+ -구나

국어: 나이도 (어리다→ !)

(4)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높이는 감탄형 종결 어미 ‘-군요, -네요’를 붙여 보자.



수화: 이것+ 사과+ 정말+ 맛있다+ -구나+ 같다

국어: 이 사과는 정말 맛이 (있다→ !)



수화: 수영+ 아주 잘하다+ -구나+ 같다

국어: 수영을 아주 잘 (하다→ !)

(5) () 속에 있는 단어에 부드럽게 낮추는 감탄형 종결 어미 ‘-군, -네, -어’를 붙여 보자.



수화: 그것+ 참+ 좋다+ -구나

국어: 거 참 (좋다→ !)



수화: 꽃+ 참+ 곱다+ -구나

국어: 꽃이 참 (곱다→ !)



수화: 아이+ 춥다+ -구나

국어: 아이 (춥다→ !)

제3장 접문장 만들기

1. 이어진 문장 만들기

[학습 목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하여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접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 (2) 이어진 문장: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전체 문장.

[만들기]

1.1. 나열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고, -(으)며’를 이용하여 만든다.



수화: 나+ 노래+ 부르다+ 동생+ 춤추다+ 끝

국어: 나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수화: 너+ 공부+ 도+ 아니하다+ 놀다+ 도+ 아니하다+ 뭐+ 하다/묻는 표정
 국어: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뭐하는 거니?



수화: 나+ TV+ 보다+ 친구+ 라디오+ 듣다+ 끝
 국어: 나는 TV를 **보았으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수화: 내년+ -면+ 나+ 스무 살+ 되다+ 형+ 서른 살+ 되다
 국어: 내년이면 나는 스무 살이 **되고**, 형은 서른 살이 된다.



수화: 강+ 맑다+ 하늘+ 푸르다

국어: 강은 **맑으며**, 하늘은 푸르다.



수화: 비+ 내리다+ 바람+ 불다

국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1.2. ‘동시’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를 이용하여 만든다.

‘-(으)면서’는 ‘-(으)며’로 바꿔 쓸 수 있다. (‘-자’는 ‘이다’와 어울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도 갖는다; ‘-(으)면서, -(으)며’는 부정의 표현과 어울릴 경우 ‘동시’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갖는다.)



수화: 우리+ 차+ 마시다+ -면서(=계속)+ 대화하다+ 끝

국어: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



수화: 그+ 물건+ 값+ 도+ 싸다+ 품질+ 도+ 좋다

국어: 그 물건은 값도 싸면서 품질도 좋다.



수화: 눈+ 그치다+ 곧+ 날씨가 춥다+ 시작하다+ 끝

국어: 눈이 그치자마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수화: 나+ 집+ 나가다+ 동시+ 눈+ 내리다+ 시작하다+ 끝

국어: 내가 집을 나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화: 그+ 의사+ 또+ 시인

국어: 그는 **의사이자**(동시에) 시인이다.

1.3. (시간의) '순서'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고, -아서/-어서'를 이용하여 만든다.

(‘-아서/-어서’는 ‘-아/-어’로 바꿔 쓸 수 있다; 두 문장 사이에 상관성이 높으면 ‘-아서/-어서’를 사용하고, 상관성이 약하면 ‘-고’를 사용한다; ‘-아서/-어서’는 앞 문장에 나타난 말을 뒤 문장에 되풀이해서 쓸 수 있을 때 사용하고 ‘-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고’는 앞의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하고, ‘-아서/- 어서’는 앞의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한다.)



수화: 우리+ 아침+ 먹다+ 학교+ 가다+ 끝

국어: 우리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수화: 편지+ 쓰다+ 텔레비전+ 보다+ 끝

국어: 편지를 **쓰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수화: 그+ 옷+ 입다+ 밖+ 나가다+ 끝
 국어: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수화: 아침+ 일어나다+ 학교+ 가다+ 끝
 국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갔다.



수화: 옷+ 벗다+ 걸다+ 아파
 국어: 옷을 **벗어서** 거실 것이다.



수화: 옷+ 벗다+ 걸다+ 끝
 국어: 옷을 **벗어서** 걸었다.



수화: 편지+쓰다+부치다+끝

국어: 편지를 써서 부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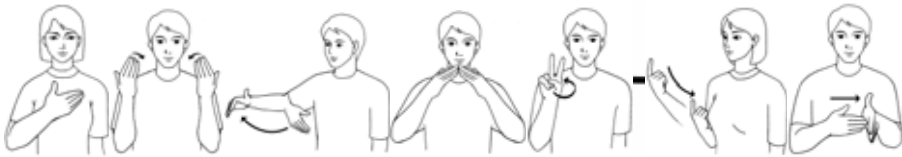
1.4. '전환'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다가'를 이용하여 만든다.

'-다가' 대신 '-다'를 쓸 수도 있다. (앞 문장의 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그 행위가 끝난 후 다른 행위로 바뀔 때 쓴다.)



수화: 그+저녁+먹다+ -다가+밖+나가다+끝

국어: 그는 저녁을 먹다가 밖으로 나갔다.



수화: 나+학교+가다+집+돌아오다+끝

국어: 나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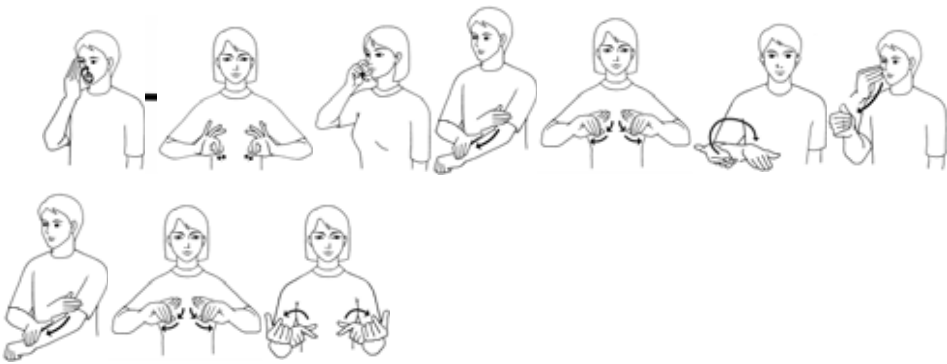


수화: 그+ 저녁+ 먹다+ -다가+ 갑자기+ 밖+ 나가다+ 끝

국어: 그는 저녁을 **먹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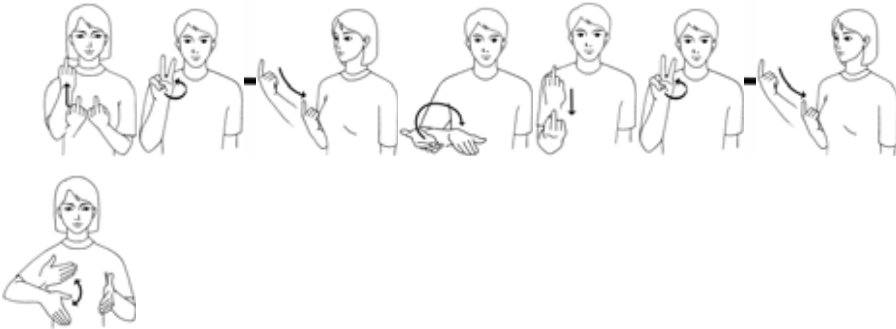
1.5. ‘대립·대조’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나, -지만, -는데/-(으)는데, -아도/-어도’를 이용하여 만든다.

[‘-(으)나’와 ‘-지만’ 은 대개의 경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수화: 설탕+ 물+ 잘+ 녹다+ 그러나+ 기름+ 잘+ 녹다+ 아니다

국어: 설탕은 물에 잘 **녹으나** 기름은 잘 녹지 않는다.



수화: 형+ 돌아오다+ 그러나+ 동생+ 돌아오다+ 아직

국어: 형은 돌아왔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문자
(해연)

수화: 해연+ 춤+ 잘+ 못하다+ 그런데+ 노래+ 잘하다

국어: 해연이는 춤은 잘 못하는데 노래는 잘한다.



수화: 그+ 떠나다+ 끝+ 그러나+ 나+ 마음+ 남다+ 있다

국어: 그는 떠났어도 내 마음엔 남아 있다.



수화: 당신+ 떠나다+ 그러나+ 나+ 마음+ 남다+ 아마

국어: 당신은 떠나도 내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1.6. '이유, 원인'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에'를 이용하여 만든다.

'-아서/-어서' 대신 '-아/-어'를, '-느라고' 대신 '-느라'를 쓸 수 있다.

‘-기 때문에’도 이유·원인의 의미로 연결되는 문장에 사용된다.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에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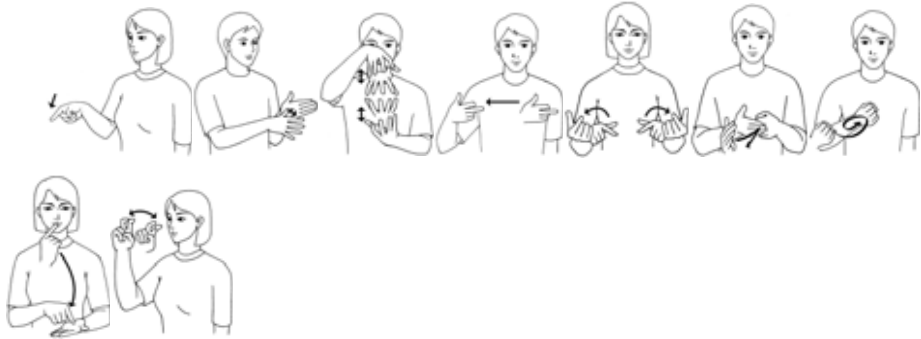
수화: 너무+ 힘들다+ 때문+ 더+ 걷다+ 할 수 없다
 국어: 너무 힘들어서 더 걸을 수가 없어.



수화: 아이+ 들+ 훌륭하다+ 축구+ 선수+ 키우다+ 때문+ 걱정하다+ 말다
 국어: 아이들을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화: 우리+ 열심히+ 하다+ 때문+ 선생님+ 상+ 받다(‘나’나 ‘우리’에게 줌을 나타냄)+ 끝
 국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상을 주셨다.



수화: 이+물건+ 부피+ 크다+ 아니다+ 때문+ 휴대하다+ 쉽다+ 아마
 국어: 이 물건은 부피가 크지 **않으므로** 휴대하기 쉬울 겁니다.



수화: 숙제+ 하다+ 때문+ 잠자다+ 못하다+ 끝
 국어: 숙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잤다.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거나 원인이 됨을 나타냄)



수화: 형+ 만두+ 맛있었다+ 보이다+ 때문+ 사다+ 오다+ 끝+ 말하다
 국어: 형이 만두가 맛있어 **보이기에** 사 왔대



수화: 그+ 일+ 잘하다+ 때문+ 말기다+ 끝

국어: 그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에게 말했다.

1.7. '조건'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를 이용하여 만든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성립 조건이 될 때 쓴다.)



수화: 너+ 반+ 10등+ 안+ -면+ 휴대 전화+ 사다+ 주다+ 약속하다

국어: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휴대 전화를 사 주마.



수화: 너+ 가다+ 싫다+ -면+ 나+ 가다

국어: 네가 가기 싫으면 내가 가지.



수화: 약속+ 지키다+ 못하다+ -면+ 미리+ 말해라

국어: 약속을 못 지키**겠으면** 미리 말해라.



수화: 사건+ 일어나다+ 배경+ 알다+ 싶다+ -면+ 먼저+ 범인+ 잡다+ 되다

국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알려면** 먼저 범인을 잡아야 한다.



수화: 물건+ 손을 대다+ 말다+ 오해+ 없다

국어: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오해가 안 생겼지.





수화: 밥+ 먹다+ 아니다+ 살+ 빼다+ 할 수 있다+ 생각+ 버리다/지시하는 표정
 국어: 밥을 **안** 먹어야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1.8. ‘목적’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러, -(으)려고, -도록, -게, -고자, -기 위하여/위해(서)’를 이용하여 만든다.

(앞 문장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고 뒤 문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될 때 쓴다.)



수화: 숙제+ 하다+ 위하다+ 친구+ 집+ 가다
 국어: 숙제를 하러 친구 집에 가요.



수화: 검진+ 받다+ 위하다+ 병원+ 가다
 국어: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다.



수화: 학생+ 들+ 시험+ 집중+ 할 수 있도록(=위하다)+ 조용하다+ 부탁하다

국어: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 주세요.



수화: 꽃+ 잘+ 자라다+ 위하다+ 물+ 제때(시간+ 같다+ 같다)+ 주다+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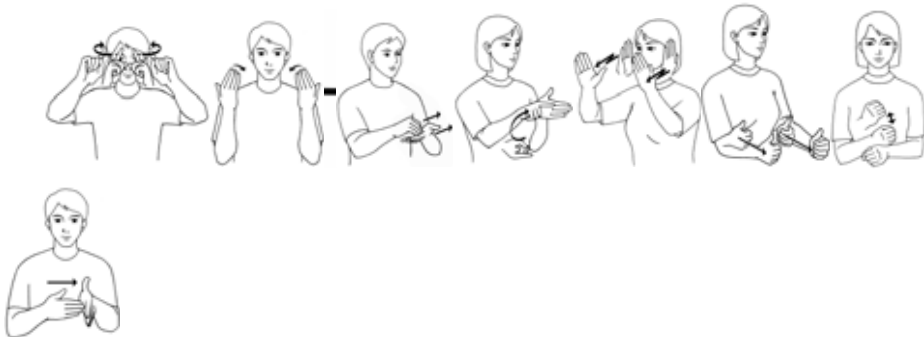
국어: 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제때에 주어야 한다.



수화: 노래+ 듣다+ 싶다+ 이곳+ 오다+ 끝

국어: 노래를 듣고자 이곳에 왔어요.

(-고자: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수화: 대학+ 진학하다+ 위하다+ 공부하다+ 열심히+ 하다+ 끝

국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9. '인정'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으)르망정, -(으)르지만'을 이용하여 만든다.

'-아도/-어도'는 '이(다)'나 '아니다'가 올 경우에는 '-라도'로 바뀌기도 한다.

(앞 문장에서는 지금 또는 미래의 상황이나 조건을 인정하고 뒤 문장에서는 의미상 그에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쓴다.)



수화: 그+키가 작다+그러나+체력+좋다

국어: 그는 키가 **작아도** 체력은 좋다.



수화: 결혼+아직+그러나+대접+주다+되다

국어: 결혼을 **안 했을지라도** 대접을 해 줘야지.



수화: 비+ 내리다+ 그러나+ 꼭+ 오시다+ 부탁드립니다

국어: 비가 **내리더라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라도: 그렇다고 가정하여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관없음을 나타냄)



수화: 너+ 아니다+ 그러나+ 그+ 돕다+ 사람+ 있다

국어: 네가 **아니라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있다.



수화: 우리+ 학교+ 작다+ 그러나+ 역사+ 길다

국어: 우리 학교는 작을**망정** 역사는 길다.

(-ㄹ 망정: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의 뜻을 나타냄)



수화: 굶다+ 불구하고+ 구걸+ 아니하다

국어: 배를 **주릴지언정** 구걸은 않겠소.

(-ㄹ 지언정: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냄)



수화: 남편+ 떠나다+ 그러나+ 아내+ 울다+ 아니다

국어: 남편이 떠났건만, 아내는 울지 않았다.

1.10. '선택'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거나, -든지'를 이용하여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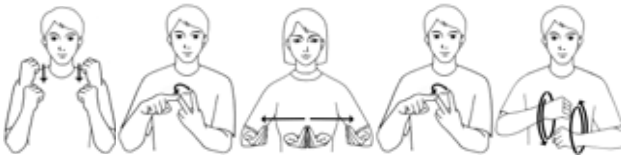
'-든지' 대신 '-든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될 수 있을 때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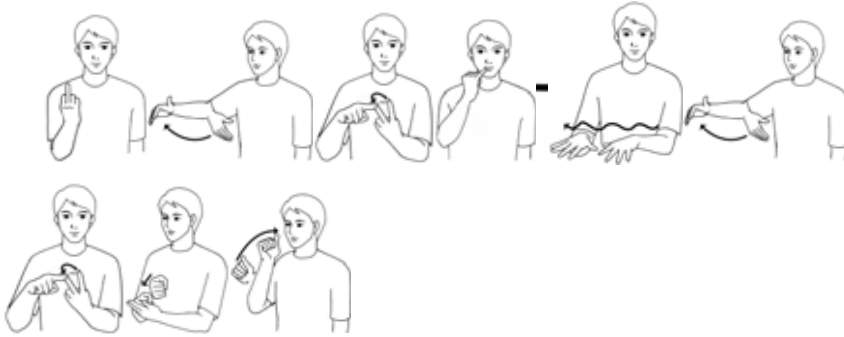
수화: 저+ 혼자+ 음악+ 듣다+ 듣지+ 영화+ 보다+ -ㅂ니다

국어: 저는 혼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봅니다.



수화: 머무르다+ 듣지+ 떠나다+ 듣지+ 마음대로/명령하는 표정

국어: 머무르든지 떠나든지 해라.



수화: 산+ 가다+ 든가(=든지)+ 바다+ 가다+ 든가+ 결정하다+ -자
 국어: 산으로 **가든가** 바다로 **가든가** 결정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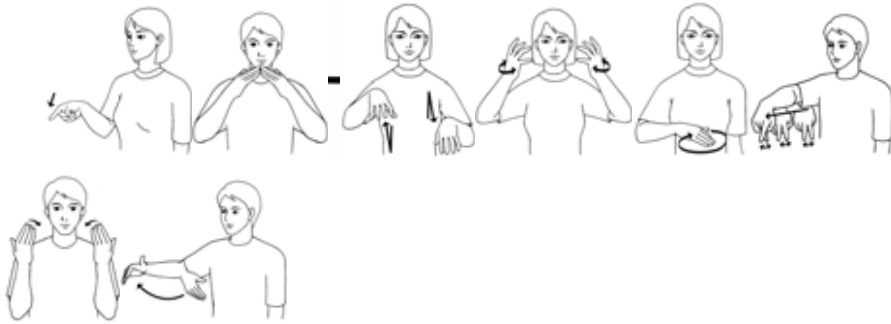
1.11. ‘방법·수단’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 -고’를 이용하여 만든다.



수화: 우리+ 비행기+ 타다+ 제주다+ 가다+ 끝
 국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수화: 계란+ 삶다+ 먹다+ 좋다
 국어: 계란을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수화: 이+ 동네+ 아이+ 들+ 걷다+ 학교+ 가다
 국어: 이 동네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간다.

1.12. '배경'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는데/-(으)는데, -(으)니, -아서/-어서'를 이용하여 만든다.

(뒤 문장의 내용과 연관되는 상황이나 배경을 앞 문장에서 미리 말할 때 쓴다: 연결 어미는 아니지만 '-는/-(으)는 동안, -(으)는 때'와 같은 표현들도 배경의 의미를 갖는다.)



수화: 손님+ 오시다+ 그런데+ 준비하다+ 무엇/물은 표정
 국어: 손님이 오시는데 뭘 준비하죠.



수화: 배고프다+ 미치다+ 그런데+ 먹다+ 것+ 없다
 국어: 배고파 **미치겠는데** 먹을 것이 없다.



수화: 집+ 오다+ 보다+ 아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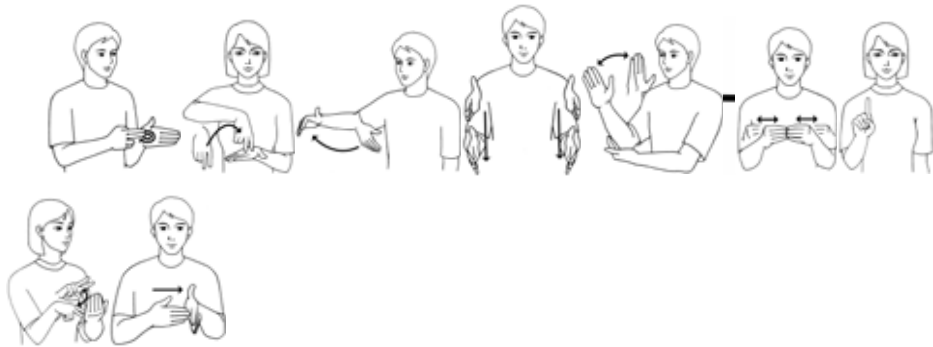
국어: 집에 와 보니 아무도 없더라.



수화: 그+ 자매+ 어리다+ 때+ 영국+ 살다

국어: 그 자매는 어려서 영국에서 살았다.

(-어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냄)



수화: 기차+ 타다+ 가다+ 동안+ 소설+ 하나+ 읽다+ 끝

국어: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설을 한 권 읽었다.





수화: 그+ 집+ 돌아오다+ 때+ 아이+ 들+ 울다+ 있다

국어: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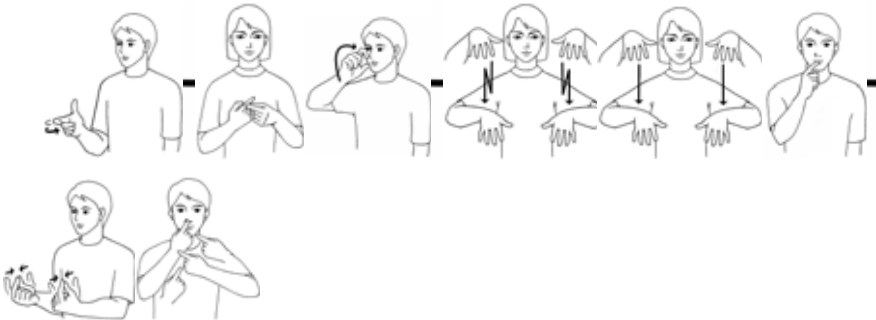
1.13. 첨가나 점진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 어미 ‘-르수록’을 이용하여 만든다.



수화: 여물다(‘이삭’을 포함)+ 더욱+ 머리+ 숙이다

국어: 여문 이삭일수록 머리를 숙인다.

1.14. 비유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 어미 ‘-듯(이)’를 이용하여 만든다.



수화: 총알+ 비+ 내리다+ 듯이(=처럼)+ 날아오다

국어: 총알이 비 오듯이 날아온다.

[도움말]

- (1) 홑문장: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
- (2)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안은문장: 홑문장을 포함한 문장.
 안긴문장: 다른 문장 속의 한 문장이 된 홑문장.
- (3) 문장의 확대: 홑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과정.
- (4) 겹문장에서 주어가 같거나 서술어가 같으면 동일한 주어나 서술어가 생략될 수 있다.

[연습]

- (1)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나열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고, -(으)며’를 붙여 보자.



수화: 나+ 노래+ 부르다+ 동생+ 춤추다+ 끝

국어: 나는 노래를 (부르다→)동생은 춤을 추었다.



수화: 사과+ 도+ 먹다+ 배+ 도+ 먹다/권하는 표정

국어: 사과도 (먹다→) 배도 먹어라.



수화: 그녀+ 눈+ 크다+ 아름답다

국어: 그녀는 눈이 (크다→) 아름답다.



수화: 그+ 선생+ 아내('그의'를 포함)+ 주부

국어: 그는 (선생이다→) 그의 아내는 주부다.



수화: 꽃+ 도+ 피다+ 아니다+ 나비+ 도+ 오다+ 아니다

국어: 꽃도 안 (피다→) 나비도 안 온다.

(2)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동시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우리+ 차+ 마시다+ 면서(=계속)+ 대화하다+ 끝

국어: 우리는 차를 (마시다→) 대화를 했다.



수화: 그+ 의사+ 또+ 시인

국어: 그는 (의사이다→) 시인이다.



수화: 까마귀+ 날다+ 동시+ 배+ 떨어지다(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짐을 나타냄)

국어: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



수화: 나+ 집+ 나가다+ 곧+ 비+ 내리다+ 시작하다+ 끝

국어: 내가 집을 (나서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화: 학교+ 오다+ 곧+ 교무실+ 오라

국어: 학교에 (오다→) 곧장 교무실로 오너라.

(곧장: 쉬지 않고 줄곧)

(3)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순서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고, -아서/-어서’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나+ 세수하다+ 아침+ 먹다

국어: 나는 세수를 (하다→) 아침을 먹는다.



수화: 옷+ 벗다+ 눅다

국어: 옷을 (벗다→) 눅는다.



수화: 지갑+ 넣다+ 옷+ 입다+ 끝

국어: 지갑을 (넣다→) 옷을 입었다.



수화: 아버지+ 옷+ 벗다+ 걸다+ 끝

국어: 아버지는 옷을 (벗다→) 걸었다.



수화: 돈+ 줍다+ 지갑+ 넣다+ 끝

국어: 돈을 (줍다→) 지갑에 넣었다.



수화: 아침+ 일어나다+ 학교+ 가다+ 끝

국어: 아침에 (일어나다→) 학교에 갔다.



수화: 밖+ 나가다+ 놀다+ -자

국어: 밖에 (나가다→) 놀자.

(4)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전환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다가’를 붙여 보자.



수화: 나+ 학교+ 가다+ -다가+ 집+ 돌아오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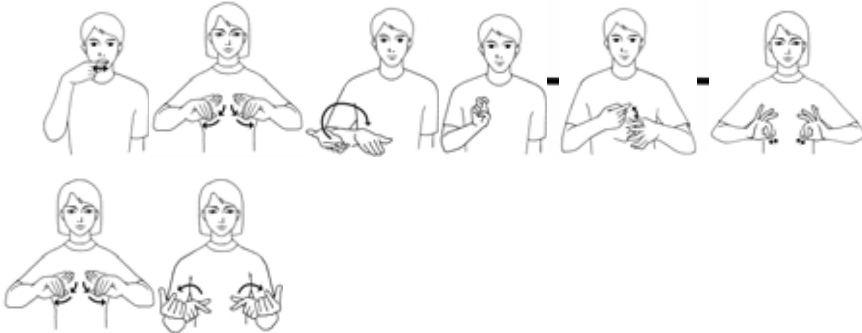
국어: 나는 학교에 (가다→) 집으로 돌아왔다.



수화: 동생+ 밥+ 먹다+ -다가+ 집+ 돌아오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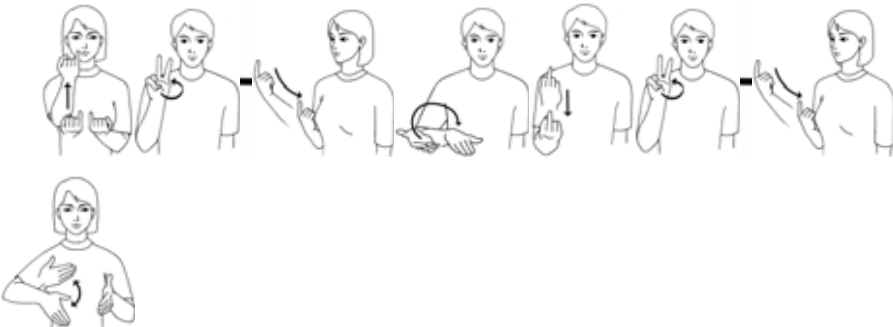
국어: 동생은 밥을 (먹다→) 집으로 돌아왔다.

(5)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대립·대조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나, -지만, -는데/-(으)는데, -아도/-어도’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소금+ 녹다+ 그러나+ 밀가루+ 녹다+ 아니다

국어: 소금은 (녹다→) 밀가루는 녹지 않는다.



수화: 언니+ 돌아오다+ 그러나+ 동생+ 돌아오다+ 아직

국어: 언니는 (돌아왔다→)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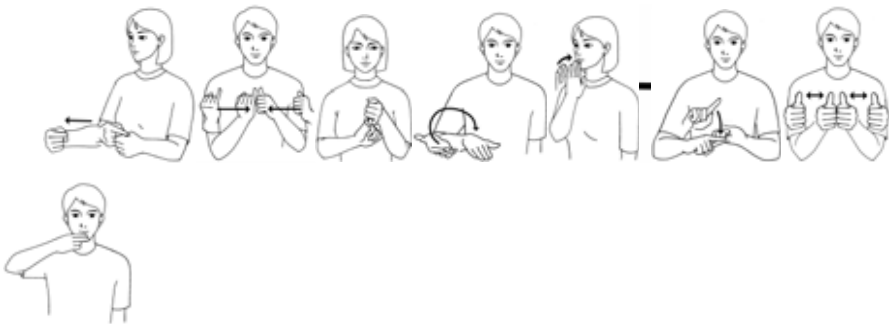
수화: 동수+ 공부+ 잘하다+ 그러나+ 운동+ 못하다

국어: 동수는 공부는 (잘하다→) 운동은 못한다.



수화: 서울+ 눈+ 내리다+ 그러나+ 부산+ 비+ 내리다

국어: 서울에는 눈이 (내리다→) 부산에는 비가 내린다.



수화: 내년+ 결혼하다+ 꼭+ 그러나+ 마땅하다+ 남자+ 없다

국어: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 마땅한 남자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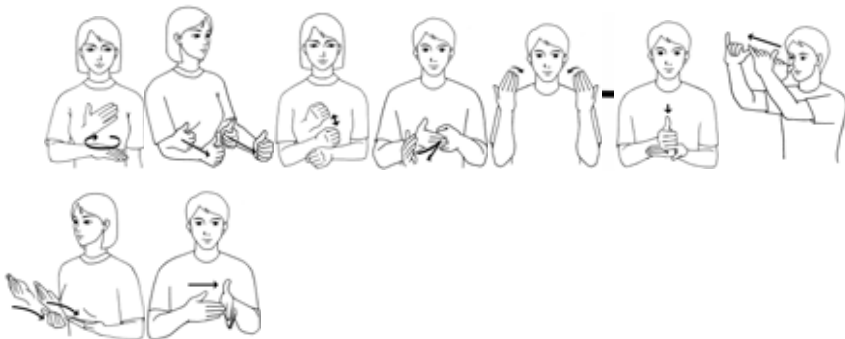
(6)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이유·원인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기에’, ‘-기 때문에’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너+ 알다+ 것+ 많다+ 때문+ 걱정+ 아니다+ 되다
 국어: 너는 아는 것이 (많다→) 걱정을 아니 해도 되겠다.



수화: 이+ 옷+ 작다+ 때문+ 크다+ 것+ 바꾸다+ 주세요
 국어: 이 옷은 (작다→) 큰 것으로 바꿔 주세요.



수화: 우리+ 열심히+ 하다+ 때문+ 교장+ 크다+ 상+ 받다('나'나 '우리'에게 줌)+ 끝
 국어: 우리가 열심히 (하다→)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셨다.



수화: 잠+ 만+ 자다+ 때문+ 살찌다

국어: 잠만 (자다→) 살이 찌지.



수화: 늦잠+ 자다+ 때문+ 지각하다+ 끝

국어: 늦잠을 (자다→) 지각했다.



수화: 옷+ 크다+ 같다+ 때문+ 줄이다+ 끝

국어: 옷이 클 것 (같다→) 줄였다.



수화: 언니+ 만두+ 맛있다+ 보이다+ 때문+ 사다+ 오다+ 말하다

국어: 언니가 만두가 맛있어 (보이다→) 사 왔다.

(7)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조건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치료하다+ 아니하다+ -면+ 크다+ 일+ 뻔하다

국어: 치료하지 (않았다→) 큰 일 날 뻔 했다.



수화: 모르다+ -면+ 언제나+ 질문을 받다/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을 지으며

국어: (모르겠다→)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수화: 꽃+ 피다+ -면+ 구경+ 가다/‘어때’ 또는 ‘그러자’고 할 때 짓는 표정

국어: 꽃이 (피다→) 꽃구경을 가지.



수화: 너+ 나+ 죽다+ 보다+ 정신 차리다/묻는 표정

국어: 너는 내가 (죽다→) 정신 차리겠니?



수화: 꽃+ 죽다+ 아니다+ 위하다+ 물+ 제때(시간+ 같다+ 같다)+ 주다+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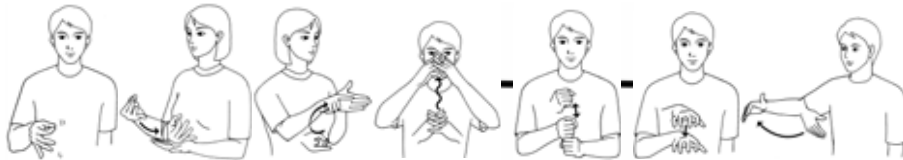
국어: 꽃을 죽이지 (않다→) 물을 제 때에 주어야 한다.

(8)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목적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으)러, -(으)려고, -도록, -게, 고자’ 또는 ‘-기 위하여/위해(서)’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아버지+ 밤+ 늦다+ 열심히+ 일하다+ 끝

국어: 아버지는 (밤늦다→) 열심히 일하셨다.



수화: 돈+ 벌다+ 위하다+ 공사장+ 가다

국어: 돈 (벌다→) 공사장에 간다.



수화: 살+ 빠다+ 위하다+ 굶다+ 중(中)

국어: 살을 (빠다→) 굶는 중이에요.



수화: 방학+ 여행+ 가다+ 위하다+ 지축하다+ 중(中)

국어: 방학에 여행을 (가다→) 지축하는 중이에요.



수화: 유럽+ 가다+ 위하다+ 비행기+ 타다+ 끝

국어: 유럽에 (가다→) 비행기를 탔어요.

(9)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인정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아도/-어도, -(으)르지라도, -더라도, -(으)르망정, -(으)르지언정, -건만’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너+ 옳다+ 그러나+ 참다+ 필요하다

국어: 네가 (옳았다→) 참았어야지.



수화: 많이+ 힘들다+ 그러나+ 절대로+ 쓰러지다+ 아니다+ 꼭

국어: 아무리 (힘들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수화: 그+ 일+ 누가+ 하다+ 마찬가지로

국어: 그 일은 누가 (했다→) 마찬가지야.



수화: 아무리+ 친구+ 사이+ 그러나+ 돈+ 거래(=관계)+ 조심하다+ 되다

국어: 아무리 친구 (사이다→)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수화: 나이+ 어리다+ 그러나+ 철들다

국어: 나이는 (어리다→) 철은 다 들었다.

(다: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



수화: 나+ 죽다+ -리지언정+ 그+ 일+ 못하다

국어: 내가 (죽다→) 그 일만은 못 하겠다.



수화: 학자+ 그러나+ 알다+ 것+ 없다

국어: (학자이다→) 아는 게 없다.

(10)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선택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거나, -든지/-든가’ 를 붙여 보자.



수화: 산+ 가다+ 든지+ 바다+ 가다+ 든지+ 결정하다+ -자

국어: 산으로 (가다→) 바다로 가든지 결정을 하자.



수화: 밥+ 먹다+ 든가+ 빵+ 먹다+ 든가+ 너+ 마음대로+ 해라

국어: 밥을 (먹다→) 빵을 (먹다→) 네 마음대로 해라.



수화: 그+ 들+ 남다+ 시간+ 신문+ 보다+ 거나+ 영화+ 보다

국어: 그들은 남는 시간에 신문을 (보다→) 영화를 (보다→).

(11)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방법·수단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 -고’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그+ 부부+ 비행기+ 타다+ 여행+ 가다

국어: 그 부부는 비행기를 (타다→) 여행을 간다.



수화: 군인+ 뛰다+ 산+ 오르다+ 끝

국어: 군인이 (뛰다→) 산에 올라갔다.



수화: 사기꾼+ 속다+ 때문+ 손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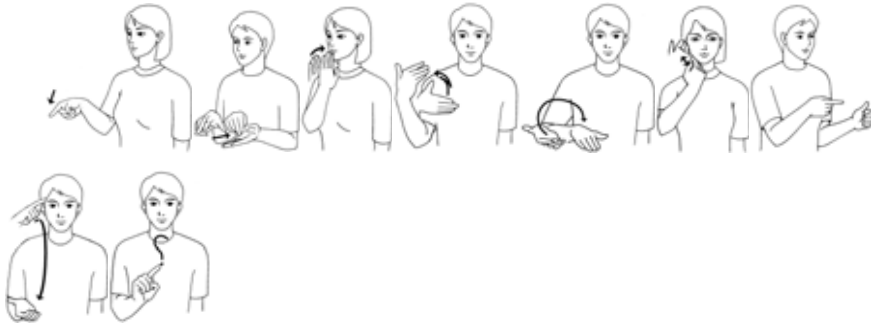
국어: 사기꾼에게 (속다→) 손해를 크게 보았다.

(12)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배경의 의미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는데/-(으)는데, -(으)니, -아서/-어서’를 붙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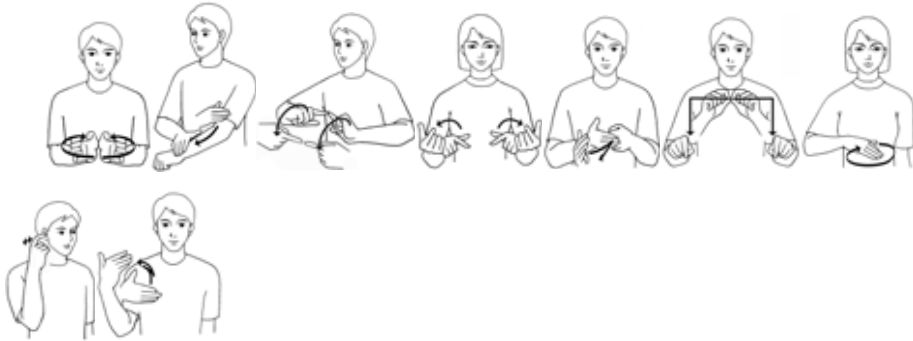
수화: 지난주+ 학회+ 열다+ 그런데+ 참석하다+ 사람+ 적다+ 끝

국어: 지난주에 학회가 (열렸다→) 참석한 사람은 적었다.



수화: 이+ 문제+ 정말+ 모르다+ 그런데+ 누구+ 한테+ 묻다+ 물음표(?)

국어: 이 문제는 정말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수화: 모임+ 잘+ 참석하다+ 아니다+ 때문+ 동창+ 들+ 소식+ 모르다

국어: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다→) 동창들의 소식을 모른다.



수화: 그들+ 둘러앉다+ 대화하다+ 끝

국어: 그들은 (둘러앉다→) 대화를 하였다.

(13)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연결 어미 ‘-르수록, -듯(이)’를 붙여 보자.



수화: 보다+ -면+ 보다+ 더욱+ 예쁘다

국어: 보면 (보다→) 예쁘다.



수화: 구름+ 달+ 가다+ -듯이(=처럼)+ 가다+ 나그네

국어: 구름에 달 (가다→) 가는 나그네.

2. 안긴문장 만들기

2.1. 명사절 만들기

[학습 목표]

명사형 전성 어미를 붙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안긴문장: 안은문장 안에 들어간 홀문장.
- (2) 안은문장: 홀문장을 포함한 문장.
- (3) 홀문장: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
- (4) 명사절: 문장에서 명사 구실을 하는 절.
- (5) 절: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합쳐질 때 사용하는 말.

[만들기]

- (1)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 -기’를 붙여 만든다.



수화: 그+ 한국+ 떠났다+ 분명하다

국어: 그가 한국을 떠났음이 분명하다.



수화: 그+ 떠나다+ 바라보다+ 우리+ 마음+ 착잡하다+ 끝

국어: 그의 떠나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했다.



수화: 그+ 일등+ 확실하다

국어: 그가 일등을 하였음이 확실하다.



수화: 그녀+ 나+ 사랑하다+ 분명하다

국어: 그녀는 나를 사랑했음이 분명하다.



수화: 어머니+ 오빠+ 건강하다+ 돌아오다+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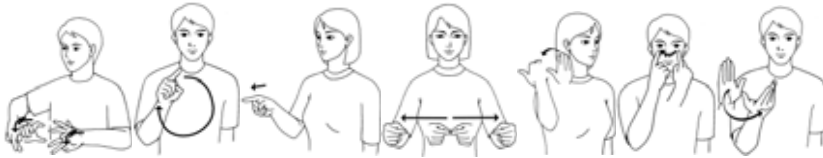
국어: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수화: 영어+ 배우다+ 어렵다

국어: 영어는 배우기가 어렵다.

(2)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을)+ 것'을 붙여 만든다.



수화: 지구+ 둥글다+ 것+ 오래+ 과거+ 증명+ 되다

국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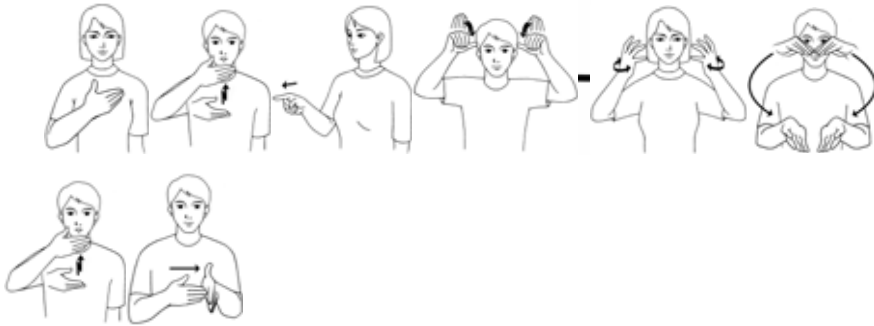
수화: 나+ 자주+ 먹다+ 것+ 냉면

국어: 내가 자주 먹는 것은 냉면이다.



수화: 나+ 어리석다+ -던+ 것+ 깨닫다+ 못하다

국어: 내가 어리석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수화: 나+ 먹다+ 것+ 강아지+ 다+ 먹다+ 끝
 국어: 내가 먹을 것을 강아지가 다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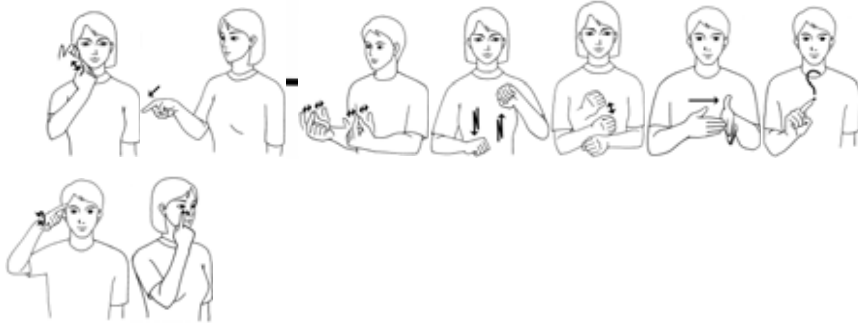
(3) 어미 ‘-느냐/-(으)냐, -는지/-(으)는지, -는가/-(으)는가’ 로 끝나는 문장은 그대로 둔다.



수화: 어떻게+ 하다+ 인가+ 문제
 국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수화: 무엇+ 먹다+ 물음표(?)+ 모르다
 국어: 무엇을 먹는지(를) 모른다.



수화: 누가+ 이런+ 행동+ 하다+ 끝+ 물음표(?)+ 생각+ 해보다/같이 하자는 표정

국어: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4) ‘-기’는 ‘-기 마련이다, -기를, -기(가) 이를 데 없다, -기 위하여, -기 전에’ 등처럼 관형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화: 사람+ 고생하다+ 마련

국어: 사람은 고생하기 마련이다.



수화: 성경+ 이르다(=말씀)+ 원수+ 사랑하다+ 말하다+ 끝

국어: 성경에 이르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지문자
(수미)



수화: 수미+마음+곱다+이르다(‘곳’의 뜻을 포함)+없다

국어: 수미는 마음씨가 곱기(가) 이를 데 없다.



수화: 나+성공하다+위하다+최선+다+하다+끝

국어: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다.



수화: 식사+전(前)+손+씻다+되다

국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도움말]

- (1) 안긴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 (2) 대부분의 ‘-(으)ㄴ’ 명사절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것’ 명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3) ‘-(으)ㄴ’ 명사절과 ‘-기’ 명사절은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두 어미가 갖는 의미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은문장의 서술어의 차이에 의한 경우가 많다.

(4) ‘-(으)ㄴ’ 과 잘 어울리는 서술어

형용사: 마땅하다, 바람직하다, 분명하다, 어리석다, 옳다, 이상하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확실하다

자동사: 드러나다, 밝혀지다, 알려지다

타동사: 기억하다, 깨닫다, 듣다, 모르다, 발견하다, 발표하다, 밝히다, 보고하다, 보다, 알다, 알리다, 주장하다, 지적하다, 짐작하다

기타: 사실이다, 잘못이다

(5) ‘-기’와 잘 어울리는 서술어

형용사: 괴롭다, 쉽다, 싫다, 알맞다, 어렵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좋다, 지루하다, 힘들다

타동사: 결심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그치다, 두려워하다, 바라다, 빌다, 시작하다, 싫어하다, 약속하다, 제안하다, 좋아하다, 희망하다

기타: 십상이다, 예사이다, 일쑤이다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나 ‘-기’를 붙여 보자.



수화: 그+나+ 어리석다+ 깨닫다+ 만들다

국어: 그는 내가 (어리석다→)을 깨닫게 했다.



수화: 나+ 실수하다+ 깨닫다

국어: 내가 (실수했다→)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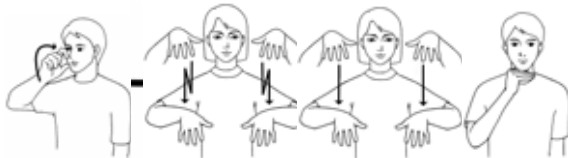
수화: 선생님+ 갑자기+ 오시다+ 우리+ 놀라다+ 만들다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다→)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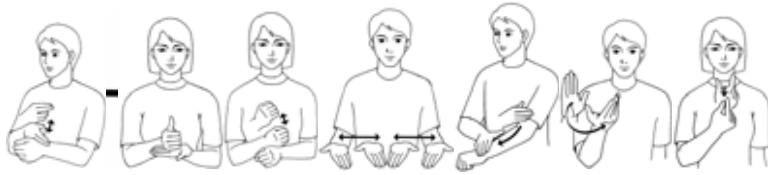
수화: 초등학생+ 이+ 문제+ 풀다+ 어렵다

국어: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다→)는 어렵다.



수화: 비+ 내리다+ 기다리다

국어: 비가 (내리다→)를 기다린다.



수화: 선생님+ 하다+ 일+ 잘+ 되다+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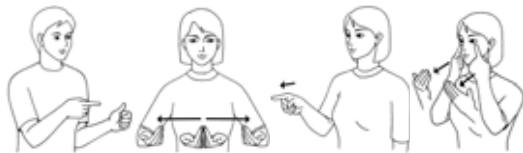
국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다→)를 바랍니다.

(2)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으)ㄴ, -는, -던, -을)+ 것’을 붙여 보자.



수화: 이것+ 연필+ 나+ 좋아하다+ 것

국어: 이 연필은 내가 (좋아하다→)이다.



수화: 그+ 떠나다+ 것+ 분명하다

국어: 그가 (떠나다→)이 분명하다.



수화: 우리+ 아이+ 입다+ 것+ 사다+ 끝

국어: 우리는 아이가 (입다→)을 샀다.



수화: 우리+ 먹다+ 것+ 밥

국어: 우리가 (먹다→)은 밥이다.

(3)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어미 ‘-느냐, -는지, -는가’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보자.



수화: 무엇+ 부터+ 하다+ 물음표(?)+ 문제

국어: 무엇부터 (하다→)가 문제다.



수화: 왜+ 오다+ 물음표(?)+ 묻다+ 해보다

국어: 왜 (오다→)를 물어보라.



수화: 누가+ 이기다+ 물음표(?)+ 알다+ 보다+ -자

국어: 누가 (이겼다→)를 알아보자.

2.2. 관형절 만들기

[학습 목표]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이용하여 관형절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관형절: 문장에서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절.
- (2)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 -(으)ㄴ, -던, -(으)르.

[만들기]

- (1)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경우, 동사에는 ‘-는’을, 형용사와 ‘이(다)’에는 ‘-(으)ㄴ’을 붙여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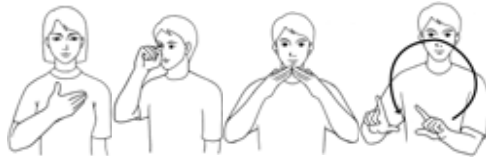
수화: 저기+ 책+ 보다+ 사람+ 나+ 친구

국어: 저기서 책을 보는 사람은 내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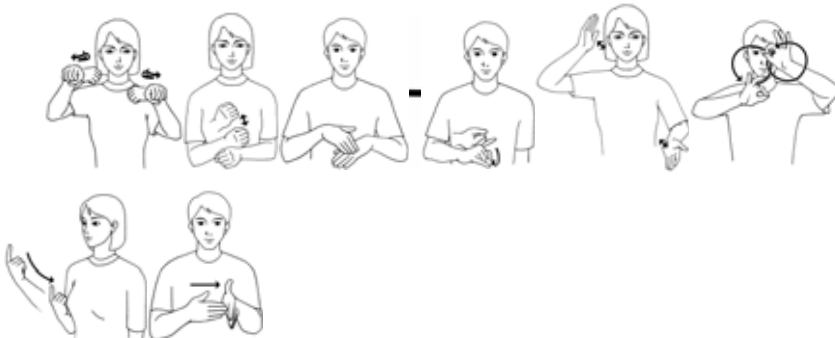
수화: 집+ 가다+ 도중+ 친구+ 만나다+ 끝

국어: 집에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났어요.



수화: 나+ 좋다+ 집+ 살다

국어: 나는 좋은 집에 산다.



수화: 무용+ 하다+ 손녀+ 학생+ 찾다+ 오다+ 끝

국어: 무용을 하는 손녀인 학생이 찾아왔다.

(2)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경우, 동사에는 ‘-(으)ㄴ, -던’을,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을 붙여 만든다.



수화: 이것+ 나+ 읽다+ 끝+ 책

국어: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수화: 김치+ 먹다+ 적 없다

국어: 김치는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수화: 이+ 책+ 나+ 읽다+ -던+ 책

국어: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수화: 따뜻하다+ -던+ 날씨+ 갑자기+ 춥다+ 되다

국어: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수화: 경찰+ -던+ 사람+ 왜+ 군복+ 입다+ 있다/묻는 표정

국어: 경찰이던 사람이 왜 군복을 입고 있지?



수화: 인천+ 우리+ 살다+ -던+ 곳

국어: 인천은 우리가 살던 곳이에요.

(3)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ㄹ’을 붙여 만든다.



수화: 아버지+ 너+ 돌아오다+ 날+ 만+ 기다리다+ 계시다

국어: 아버지는 **네가 돌아 올**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



수화: 그+ 유명하다+ 디자이너+ 되다+ 아마

국어: 그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수화: 그 사람+ 도+ 나+ 믿다+ 아마

국어: 그 사람도 **나를 믿을** 거야.

[도움말]

- (1) 명사가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의’는 생략될 수 있다.
- (2) 과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의미.
 - ‘-(으)ㄴ’: 완료된 행위나 상태.
 - ‘-던-’: 회상. 미완료된 행위나 상태. 지속·반복되던 행위나 상태. 완료된 행위나 상태.
 - ‘-았던-/었던-’: 회상. 지속·반복되던 행위나 상태. 일화적이고 순간적인 행위나 상태.
- (3) ‘-(으)ㄴ은 형용사나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추측이나 추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추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았-/-었-’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예: 그때 나는 아마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 (4) ‘때, 뿐, 뻔, 기회, 자신, 정도, 가능성’과 같은 명사 앞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을 쓴다.

예: 어릴 때는 대전에서 살았어요.

큰일 날 뻔 했다.

서울에 올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 (5) 형용사와 ‘이(다)’는 뒤에 ‘것, 줄’과 같은 의존명사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으)ㄴ’과는 잘 어울려 쓰지 않는다.

예: 내일은 추울 거야.

그렇게 큰 것이 개구리일 줄이야.

[연습]

- (1)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나 ‘-(으)ㄴ’를 붙여 보자.



수화: 저+가구+만들다+일+겪다

국어: 저는 가구를 (만들다→) 일을 했어요.



수화: 저기+가다+아이+나+친구

국어: 저기 (가다→) 아이는 내 친구야.



수화: 나+ 그+ 합격하다+ 소식+ 듣다+ 끝

국어: 나는 그가 (합격했다→) 소식을 들었다.



수화: 차를 타고 가다+ 동안+ 많이+ 생각+ 해보다+ 끝

국어: 차를 (타고 가다→) 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다.



수화: 빨강+ 옷+ 입다+ 사람+ 누구

국어: 빨간 옷을 (입다→) 사람은 누구지?



수화: 어제+ 의사+ 친구+ 만나다

국어: 어제 (의사이다→) 친구를 만났지.

(2)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나 ‘-던’을 붙여 보자.



수화: 저기+ 나+ 살다+ -던+ 곳

국어: 저기는 내가 (살다→) 곳이에요.



수화: 어제+ 너+ 보다+ -던+ 책+ 빌리다/부탁하는 표정

국어: 어제 네가 (보다→) 책을 좀 빌려 줘.



수화: 그+ 연필+ 과거+ 어머니+ 사다+ 받다+ 것

국어: 그 연필은 전에 엄마가 사 (주다→) 것이다.



수화: 즐겁다+ 시간+ 다+ 지나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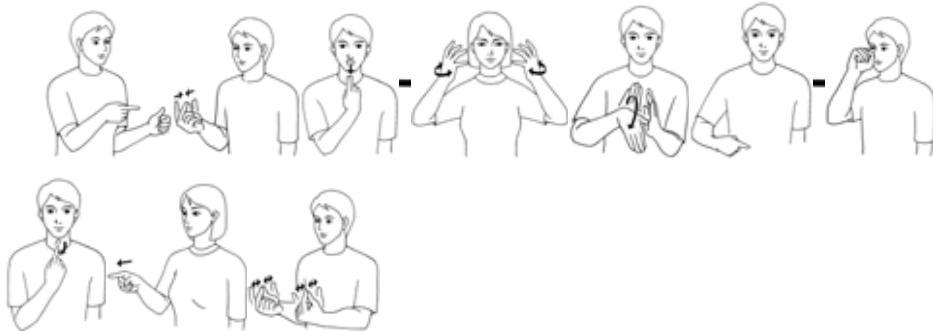
국어: (즐겁다→) 시간이 다 지나갔다.

(3)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을 붙여 보자.



수화: 이것+ 너+ 읽다+ 책/묻는 표정

국어: 이게 네가 (읽다→) 책이냐?



수화: 그+ 도+ 어리다+ 때+ 착하다+ -던+ 것+ 같다

국어: 그도 어릴 때에는 (착했다→) 것 같다.

2.3. 부사절 만들기

[학습 목표]

부사형 어미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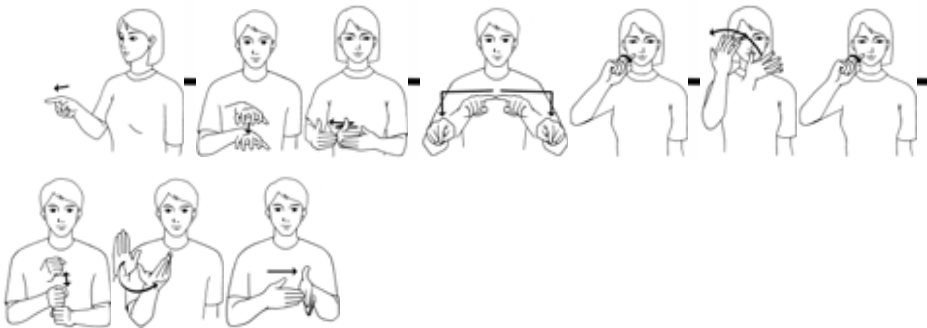
(1) 부사절: 문장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절.

‘너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서 ‘너의 도움 없이’ 따위이다.

(2) 부사형 어미: -게, -이

[만들기]

(1) 부사형 어미 ‘-게’를 붙여 만든다.



수화: 그곳+그림+아름답다+장식+되다+끝

국어: 그곳은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2) 부사형 어미 ‘-이’를 붙여 만든다.



수화: 그+알다+것+없다+잘난 척하다

국어: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연습]

(1) () 속에 부사형 어미 ‘-게’나 ‘-이’를 넣어 부사절이 되게 해보자.



수화: 그+ 말+ 없다+ 나타나다

국어: 그가 말 없() 나타났다.



수화: 예식장+ 꽃+ 화려하다+ 꾸미다+ 되다

국어: 예식장은 꽃으로 화려하() 꾸며졌다.

2.4. 서술절 만들기

[학습 목표]

이중주어문의 뒷부분이 서술절임을 알고 서술절을 안은문장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용어]

(1) 서술절: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절.

(2) 서술절의 특징: 서술어 한 개에 주어가 두 개 이상 있다.

[만들기]

(1) 하나의 서술어에 주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나게 한다.



수화: 동생+ 키가 크다

국어: 동생은 키가 크다.



수화: 미인+ 입+ 작다

국어: 미인은 입이 작다.

[연습]

(1) () 속에 ‘가, 는, 은,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서술절이 되게 하자.



수화: 그녀+ 돈+ 많다

국어: 그녀() 돈() 많다.



수화: 부장+ 성격+ 좋다

국어: 부장() 성격() 좋다.



수화: 코끼리+ 코+ 길다

국어: 코끼리는 코() 길다.

2.5. 인용절 만들기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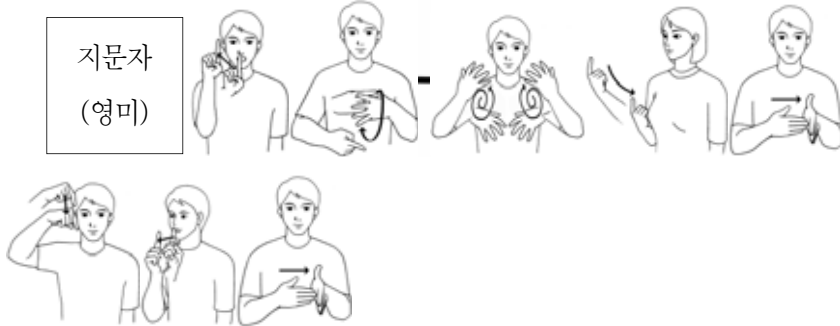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인용절: 자신이나 남의 생각, 판단, 말 또는 글을 인용한 문장.
- (2) 직접인용절: 남의 말이나 글, 또는 생각을 표현한 문장 그대로 따오는 것을 말한다.
- (3) 간접인용절: 남의 말이나 글, 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등을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옮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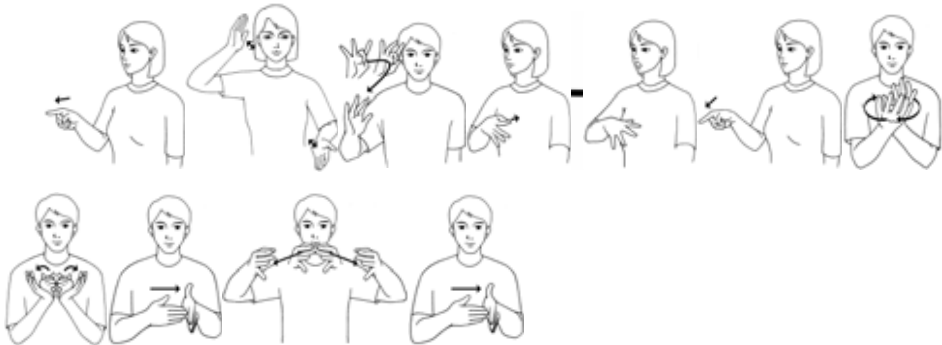
[만들기]

- (1) 직접 인용절을 만들(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사 ‘(이)라고’나 ‘하고’를 넣어 뒤에 오는 서술어에 연결한다.



수화: 영미+ 아+ 가을+ 오다+ 끝+ -구나+ 말하다+ 끝

국어: 영미가 “아! 가을이 왔구나.”라고 말했다.



수화: 그+ 학생+ 갑자기(=돌연)+ 어머+ 여기+ 꽃+ 피다+ 끝+ 외치다+ 끝

국어: 그 학생이 갑자기 “어머, 여기 꽃이 피었네.”하고 외쳤다.

- (2) 간접 인용절을 만들(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하는 부분 다음에 ‘고’를 붙여 뒤 따르는 서술어에 연결한다. 인용절이 명사로 끝나거나 ‘이다’의 형태로 끝나면 ‘(이)라고’를 쓴다.

지문자
(수미)



수화: 수미+ 가을+ 오다+ 되다+ 말하다+ 끝

국어: 수미가 가을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화: 그+ 나+ 나쁘다+ 사람+ 말하다

국어: 그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3) 생각이나 판단, 느낌을 인용절로 나타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접 인용절로 나타낸다.



수화: 나+ 동생+ 곧+ 들어오다+ 아마+ 생각하다

국어: 나는 동생이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



수화: 나+ 그+ 노래+ 슬프다+ 느끼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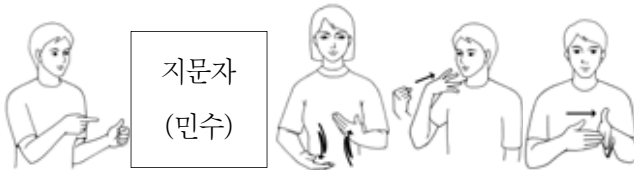
국어: 나는 그 노래가 슬프다고 느꼈다.



수화: 나+ 그+ 나+ 사랑하다+ 확신하다

국어: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4) 간접 인용절의 시제는 말할 때의 시제 그대로 나타낸다.



수화: 그+ 민수+ 바쁘다+ 말하다+ 끝

국어: 그는 민수가 바쁘다고 말했다.



수화: 그+ 수미+ 바쁘다+ 말하다+ 끝

국어: 그는 수미가 바빴다고 말했다.



수화: 그+ 수미+ 바쁘다+ 아미+ 말하다+ 끝

국어: 그는 수미가 바쁠 거라고 말했다.

- (5) 평서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 동사는 어미 ‘-니다/-는다’로, 형용사는 ‘-다’로, 인용절의 서술어가 명사이거나 ‘명사-이다’의 형태일 때는 어미 ‘-(이)’라 나타난다.



수화: 그녀+ 나+ 좋아하다+ 말하다

국어: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고 한다.



수화: 누나+ 장미+ 예쁘다+ 말하다

국어: 누나는 장미가 예쁘다고 한다.



수화: 지수+ 좋다+ 사람+ 말하다+ 끝

국어: 지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 (6) 의문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 동사는 ‘-느냐’로, 형용사나 ‘명사-이다’는 ‘-(으)냐’로 나타난다.

‘-는지/-(으)는지’가 종결 어미로 사용될 경우 인용을 나타내는 ‘고’ 대신 목적격 조사 ‘를’을 사용한다.



수화: 나+ 그(‘에게’를 포함함)+ 공부+ 열심히+ 물음표(?) + 묻다+ 끝

국어: 나는 그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다.



수화: 영수+ 선생님+ 께+ 그+ 가방+ 선생님+ 것+ 물음표(?) + 여쭙다+ 끝

국어: 영수는 선생님께 그 가방이 선생님 것이냐고 여쭙었다.



수화: 나+ 그+ 공부+ 열심히+ 하다+ 물음표(?) + 묻다+ 끝

국어: 나는 그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를) 물었다.

(7) 명령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 종결 어미가 ‘-(으)라’로 나타난다.

부정문일 경우에는 ‘-지 말라’가 쓰인다.

‘주다’라는 동사가 간접 인용절에 사용될 경우에는 ‘달라고’의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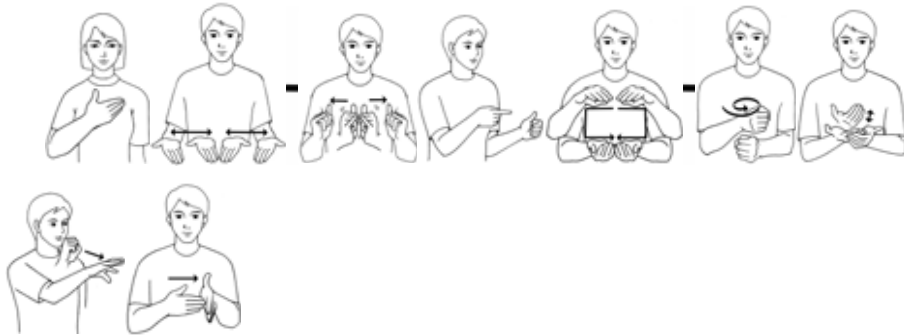
수화: 과장+ 사무실+ 남다+ 머무르다+ 말하다(‘나에게’를 포함)+ 끝

국어: 과장은 사무실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다.



수화: 감독+ 만지다+ 말다+ 말하다+ 끝

국어: 감독은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수화: 나+ 종업원+ 에게+ 포장하다+ 달라(=주세요)+ 말하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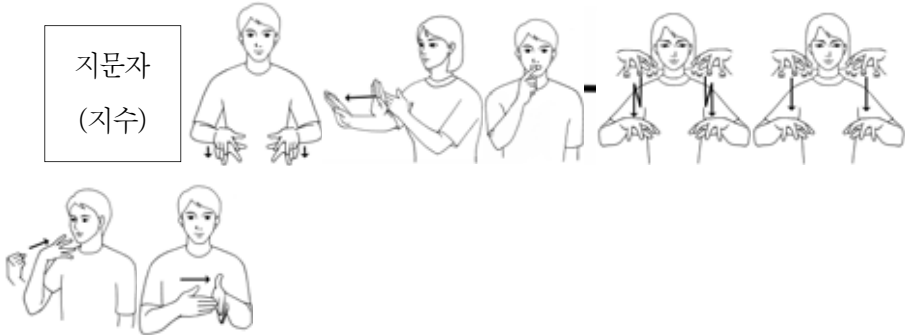
국어: 나는 종업원에게 포장해 달라고 말했다.

(8) 청유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 종결 어미가 ‘-자’로 나타난다.



수화: 친구+ 같이+ 식사하다+ -자+ 말하다(‘나에게’를 포함)+ 끝
 국어: 친구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다.

(9) 감탄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 종결 어미가 ‘-니다/-는다’나 ‘-다’로 나타난다.



수화: 지수+ 지금+ 밖+ 눈+ 내리다+ 말하다+ 끝
 국어: 지수가 지금 밖에 눈이 내린다고 말했다.



수화: 민수+ 가을+ 오다+ 되다+ 말하다+ 끝
 국어: 민수는 가을이 왔다고 말했다.

[도움말]

(1) 인용절의 형식: 주어진 문장과 인용의 부사격 조사인 ‘-고, -라고’ 등의 결합.

(2) 의성어를 인용하거나 하나의 단어만을 인용할 때는 ‘하고’만을 사용한다.

예: 바로 그때 “탕!”하고 총소리가 났다.

동생은 개를 보자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3) 생각이나 판단, 느낌을 나타내는 인용절을 안을 수 있는 동사: 결심하다, 느끼다, 믿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판단하다, 확신하다 등

(4) 인용절을 안을 수 있는 동사: 기록하다, 꾸짖다, 대답하다, 떠들다, 말하다, 명령하다, 묻다, 보고하다, 설명하다, 신고하다, 쓰다, 예언하다, 외치다, 이르다, 적다, 제안하다 등과 같은 것들이며, 이들을 대신한 ‘하다’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사들 앞에는 항상 ‘(이)라고, 고, 하고’ 등과 같은 인용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된다.

(5) 안은문장의 ‘말하다, 묻다, 명령하다’ 등은 ‘하다’를 쓰기도 하고, ‘-단다, -난다, -란다’ 등의 형태로 쓰기도 하며, ‘-대(요), -래(요), -재(요)’로 줄여 쓰기도 한다.

예: 팀장은 몸이 아프다고 말한다.

팀장은 몸이 아프다고 한다.

팀장은 몸이 아프단다.

팀장은 몸이 아프다고 해(요).

팀장은 몸이 아프대(요).

예: 감독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한다.

감독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한다.

감독이 물건에 손대지 말란다.

감독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해(요).

감독이 물건에 손대지 말래(요)

예: 선배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말한다.

선배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한다.

선배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잔다.

선배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해(요).

선배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재(요).

(6) 인용절의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

- 인용하는 사람과 인용절의 주어가 같은 인물일 때.

예: 나는 친구에게 “나는 수미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수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예: 수미는 나에게 “나는 영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수미는 나에게 (그/자기가) 영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듣는 사람과 인용절의 주어가 같은 인물이고, 인용절이 의문문이거나 명령문일 때

예: 나는 수진에게 “너 영화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

나는 수진에게 (너) 영화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예: 나는 수진에게 “너 집에 가 봐.”라고 말했다.

나는 수진에게 (너) 집에 가 보라고 말했다.

- 인용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명사-이다’일 때

예: 나는 수진에게 “너는 착해.”라고 말했다.

나는 수진에게 (그가) 착하다고 말했다.

예: 나는 태진에게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했다.

나는 태진에게 (그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7) 인용절의 주어는 물론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다.

- 인용절의 주어가 인용하는 사람과 동일함이 확실할 때.

예: 나는 수진에게 “네가 나를 도와줘 고맙다.”라고 말했다.

나는 수진에게 (네가 나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 듣는 사람과 인용절의 목적어도 같은 사람일 때.

예: 나는 수진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나는 수진에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8) 인용절의 주어가 바뀔 수 있다.

예: 나는 수진에게 “너는 영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나는 수진에게 그가 영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예: 수미는 나에게 “나는 영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수미는 나에게 자기가 영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12) 인용절의 목적어가 바뀔 수 있다.

예: 수미는 나에게 “영수가 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수미는 나에게 영수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예: 수미는 영수에게 “영주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수미는 영수에게 영주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13) 인용절의 주어는 물론 목적어도 바뀔 수 있다.

예: 나는 수미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나는 수미에게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예: 수미는 나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수미는 나에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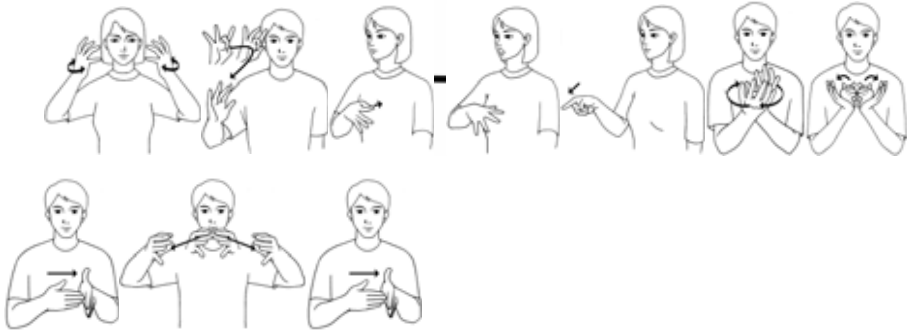
(1) () 속에 있는 문장을 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나 ‘하고’를 이용하여 직접 인용절을 만들어 보자.





수화: 수미+ 민주+ 군대+ 가다+ 끝+ 말하다(‘나에게’를 포함)+ 끝

국어: 수미가 나에게 (민주가 군대 갔다→) 말했다.



수화: 아이+ 감자기(=돌연)+ 어머+ 여기+ 꽃+ 피다+ 끝+ 외치다+ 끝

국어: 아이가 감자기 (어머, 여기 꽃이 피었다→) 외쳤다.

(2) () 속에 있는 문장을 조사 ‘(이)라고’, ‘고’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 간접 인용절을 만들어 보자.



수화: 나+ 그+ 들+ 괜찮다+ 아마+ 믿다

국어: 나는 (그들이 괜찮을 거다→) 믿는다.



수화: 동생+ 의사(‘선생’을 포함)+ 에게+ 목+ 아프다+ 말하다+ 끝

국어: 동생은 의사 선생님에게 (목이 아프다→) 말했다.

제4장 시제 표시하기

1. 현재 시제의 표시

[학습 목표]

종결형의 현재 시제와 관형사형의 현재 시제를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시제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
- (2) 현재 시제: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

[표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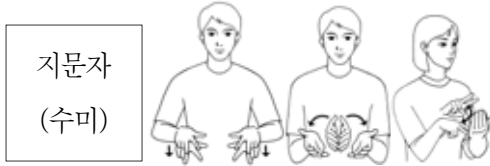
1.1. 종결형의 현재 시제 표시

- (1) 평서형 동사문은 동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 어간에 '-는다'를,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그 어간에 '-니다'를 붙여 표시한다.



수화: 동생+ 밥+ 먹다

국어: 동생이 밥을 **먹는다**.



수화: 수미+ 지금+ 책+ 읽다

국어: 수미는 지금 책을 **읽는다**.



수화: 나+ 지금+ 텔레비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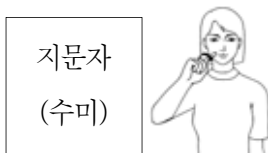
국어: 나는 지금 텔레비전을 **본다**.



수화: 나+ 서울+ 살다

국어: 나는 서울에 **산다**.

(2) 평서형 형용사문이나 명사문(명사-이다)은 기본형으로 표시한다.



수화: 수미+ 예쁘다

국어: 수미는 예쁘다.



수화: 요즘+ 나+ 매우+ 바쁘다

국어: 요즘 나는 매우 바쁘다.



수화: 나+ 동생+ 중학생

국어: 내 동생은 중학생이다.

(3)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 어간이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습니다’를, 어간이 모음이나 ㄹ로 끝날 때 ‘-ㅂ니다’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수화: 수미+ 지금+ 책+ 읽다+ 습니다

국어: 수미는 지금 책을 읽습니다.



수화: 나+ 서울+ 살다+ -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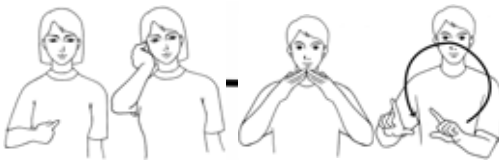
국어: 나는 서울에 **살**니다.



수화: 감기+ 들다+ -버니다

국어: 감기가 **들**니다.

(4)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간의 끝모음 ‘ㅏ, ㅑ’(‘하-’ 제외) 뒤에 ‘-아요’를, ‘ㅓ, ㅕ’ 이외의 끝 모음 뒤에 ‘-어요’를 붙여, 어간 끝음절 ‘하’ 뒤에 ‘어요’를 붙여 ‘하여요’로, 이를 다시 줄여서 ‘해요’로 표시한다.



수화: 저+ 기숙사+ 살다

국어: 저는 기숙사에 **살**아요.



수화: 저+ 책+ 읽다

국어: 저는 책을 **읽어**요.



수화: 우리+ 매일+ 아침+ 운동하다

국어: 우리는 매일 아침 **운동**해요.

1.2. 관형사형의 현재시제 표시

(1) 동사의 어간 뒤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표시한다.



수화: 도서관+ 책+ 읽다+ 사람+ 들+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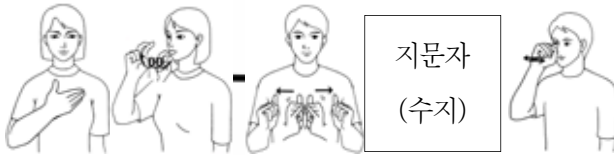
국어: 도서관은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붙인다.

(2)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형용사와 ‘명사-이다’ 뒤에는 ‘-ㄴ’을 붙여 표시한다.



수화: 저기+ 많다+ 사람+ 들+ 모이다+ 있다

국어: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수화: 나+ 가수+ 수지+ 좋아하다

국어: 나는 가수인 수지를 좋아한다.

(3) 보편적인 진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실, 미래에 일어날 것임이 분명한 일도 현재 시제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수화: 지구+ 둥글다

국어: 지구는 둥글다.



수화: 나+ 다음 주+ 부산+ 가다

국어: 나는 다음 주에 부산에 간다.

[연습]

(1) () 속에 있는 서술어의 어간에 ‘는다’나 ‘-니다’를 붙여 종결형 현재 시제를 표시해보자.



수화: 우리+ 아침+ 빵+ 먹다

국어: 우리는 아침에 빵을 (먹다→)



수화: 친구+ 인천+ 살다

국어: 친구가 인천에 (살다→)

(2) () 속에 있는 서술어의 어간에 ‘습니다’나 ‘-ㅂ니다’를 붙여 종결형 현재 시제를 표시 해보자.



수화: 산+ 아주+ 높다+ 습니다

국어: 산이 아주 (높다→)



수화: 나+ 지금+ 텔레비전+ 보다+ 습니다

국어: 나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다→)



수화: 칼+ 잘 들다+ -습니다

국어: 칼이 잘 (들다→)

(3) () 속에 있는 서술어의 어간에 ‘아요, 어요, 해요’를 붙여 종결형 현재 시제를 표시 해보자.



수화: 그녀+ 광주+ 살다

국어: 그녀는 광주에서 (살다→)



수화: 나+ 지금+ 아침+ 먹다

국어: 나는 지금 아침을 (먹다→)



수화: 아이+ 들+ 강아지+ 좋아하다

국어: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다→)

2. 과거 시제의 표시

[학습 목표]

종결형의 과거 시제, 연결형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의 과거 시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용어]

- (1) 과거 시제: 말할 때 이미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 (2) 과거 시제에는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이 있다.

[표시하기]

2.1. 종결형의 과거 시제 표시

- (1) 시제 선어말 ‘-았-/-었-’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어간 끝모음 ‘ㅏ, ㅑ’ (‘하-’ 제외) 뒤에 ‘-았다’를, 어간 끝모음 ‘ㅓ, ㅕ’ 이외의 모음 뒤와 ‘명사-이-’ 뒤에 ‘-었다’를 붙여 표시한다.



수화: 나+ 어제+ 친구+ 만나다

국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수화: 나+ 전(前)+ 회사원+ 적

국어: 나는 전에 회사원이었다.

(2) 어간 끝음절 ‘하’ 뒤에 ‘-였다’를 붙여 ‘하였다’로, 이를 다시 줄여 ‘했다’로 표시한다. ‘-왔-/~였-/~였습니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화: 지난주+ 일+ 많다+ 때문+ 피곤하다

국어: 지난주에는 일이 많아서 피곤했다.

(3) ‘-였-’과 함께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끝음절의 모음이 ‘가, 고’인 경우)



수화: 서점+ 가다+ 책+ 하나+ 사다+ 끝

국어: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다.

(4) 말할 때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일어났음을 표현할 때 주로 ‘-였-’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수화: 우리+ 가족+ 과거+ 부산+ 살다+ -었다(=적)

국어: 우리 가족은 전에 부산에 살았었다.



수화: 나+ 도+ 젊다+ 때+ 건강하다+ -었다(=적)

국어: 나도 젊은 때는 건강했었다.

(5) 앞 문장의 동작이 완료된 이후에 뒤 문장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을 넣어 '-었을 때, -었다가'의 형태로 표시한다.



수화: 밥+ 먹다+ 끝+ 때+ 전화+ 오다

국어: 밥을 다 먹었을 때 전화가 왔다.



수화: 학교+ 가다+ 친구+ 만나다+ 끝

국어: 학교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다.

(6) ‘-던데(요), -더라, -더군(요), -데(요)의 형태로 표시한다.

‘-더라’는 주어가 이인칭이거나 삼인칭인 경우에 사용된다.



수화: 수미+ 벌써+ 오다+ 맞다

국어: 수미는 벌써 **왔던데요**.



수화: 수지+ 어제+ 도서관+ 책+ 읽다

국어: 수지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더라.



수화: 어제+ 아주+ 답다+ -구나

국어: 어제는 아주 **답더군**.



수화: 시장+ 지금+ 도+ 참외+ 있다

국어: 시장엔 지금도 참외가 있네.

(-네: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알려주거나 스스로 느낌을 나타냄)

(7) 과거 시제는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수화: 너+ 이제+ 형+ 죽다

국어: 넌 이제 형에게 죽었다.



수화: 나+ 지금+ 버스+ 타다+ 끝

국어: 나 지금 버스에 탔어.

(8)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형용사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 을 붙이기도 한다.



수화: 손자+ 잘+ 생기다

국어: 손자는 잘 생겼다.



수화: 형+ 동생+ 닮다

국어: 형과 동생이 닮았다.



수화: 할아버지+ 늙다+ 끝

국어: 할아버지는 늙으셨다.

2.2. 연결형의 과거 시제 표시

(1) 앞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연결 어미 ‘-지만, -(으)나’나 ‘-기 때문에’를 붙여 표시 한다.



수화: 키가 크다+ 그러나+ 힘+ 없다

국어: 키는 크지만 힘은 없다.



수화: 산+ 낮다+ 그러나+ 골짜기+ 깊다

국어: 산은 낮으나 골(골짜기)은 깊다.



수화: 오랜만+ 친구+ 만나다+ 때문+ 기분+ 좋다

국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2) 앞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연결 어미 ‘-고’를 붙여 표시한다.



수화: 나+ 책+ 읽다+ 친구+ 만나다+ 끝

국어: 나는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났다.



수화: 나+ 책+ 읽다+ 어머니+ 음식+ 만들다+ 끝

국어: 나는 책을 읽었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셨다.

(3) ‘-아서/-어서, -다가, -(으)러, -(으)려고, -(으)면서, -(으)르 때’ 등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수화: 너+ 돈+ 많다+ 때문+ 좋다+ 아마

국어: 너는 돈이 많아서 좋겠다.



수화: 나+ 공부하다+ 위하다+ 도서관+ 가다

국어: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



수화: 눈+ 내리다+ 아마

국어: 눈이 내리려고 한다.



수화: 나쁘다+ 줄+ 알다+ 모르는 척하다

국어: 나쁜 줄 알면서 모르는 척한다.

(줄: 어떤 방법, 속셈 따위를 나타냄)



수화: 나+ 음식+ 먹다+ 때+ 입+ 크다+ 벌리다+ 아니다
 국어: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수화: 학교+ 가다+ 중(中)+ 친구+ 만나다+ 끝
 국어: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4)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표현할 때는 서술어에 ‘-더-’를 붙여, 연결형에서는 주로 ‘-더니, -던데’의 형태로 표시한다.

‘-더니’는 주어가 이인칭, 삼인칭인 문장에서만, ‘-있더니’는 주어가 일인칭인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수화: 수미+ 열심히+ 공부하다+ 때문+ 시험+ 합격하다+ 끝
 국어: 수미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다.

지문자
(철수)



수화: 철수+ 요즘+ 안보이다+ 어디+ 가다+ 끝/묻는 표정

국어: 철수가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수화: 많이+ 먹다+ 때문+ 배부르다

국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더니: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원인이 됨을 나타냄)

2.3. 관형사형의 과거 시제 표시

(1) 동사의 어간이 모음이나 르로 끝날 때는 어간 뒤에 ‘-ㄴ’을 붙이고, 어간이 르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는 어간 뒤에 ‘-은’을 붙여 표시한다.



수화: 어제+ 만나다+ 친구+ 초등학교+ 동창

국어: 어제 만난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수화: 어제+ 읽다+ 책+ 무척+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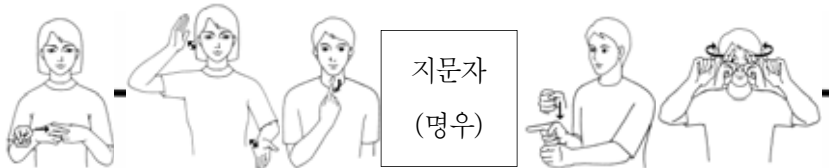
국어: 어제 **읽은** 책이 무척 재미있다.

(2) 형용사, ‘명사-이다’의 관형절에는 회상 선어말 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던’이 쓰인다.



수화: 조금+ 전(前)+ 많다+ -던+ 사람+ 다+ 사라지다+ 끝

국어: 조금 전까지 **많던** 사람이 다 사라졌다.



수화: 초등학생+ -던+ 명우+ 대학생+ 되다

국어: **초등학생이던** 명우가 대학생이 된다.

[연습]

(1) ‘-았-, -었-, -더라’ 등을 이용하여 종결형의 과거 시제를 표시해보자.



수화: 어제+ 날씨+ 흐리다

국어: 어제는 날씨가 (흐리다→).



수화: 나+ 어제+ 서울+ 가다

국어: 나는 어제 서울에 (가다→).



수화: 벌써+ 회의+ 준비+ 다+ 끝내다

국어: 벌써 회의 준비를 다 (끝내다→).



수화: 어제+ 날씨+ 참+ 좋다

국어: 어제는 날씨가 참 (좋다→).



수화: 술+ 깨다+ 보다+ 나+ 길+ 높다

국어: 술에서 깨어나 보니, 내가 길에 (누워있다→).



수화: 성적+ 보다+ 그+ 대학+ 합격하다+ 뻔하다

국어: 성적을 보니 그는 대학에는 (합격하다→).



수화: 가방+ 낡다

국어: 가방이 (낡다→).



수화: 일+ 다+ 끝내다+ -면+ 아직+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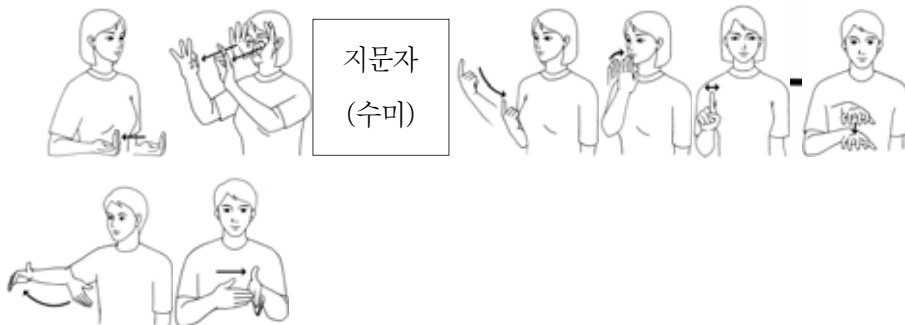
국어: 일을 다 끝내려면 아직 (멀다→).



수화: 그동안+ 몸+ 많이+ 마르다

국어: 그동안 몸이 많이 (마르다→).

(2) () 속에 있는 서술어의 어간에 ‘-고, -더니, -던데, -지만, -(으)나, -기 때문에’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연결형의 과거 시제를 표시해 보자.



수화: 아까+ 보다+ 수미+ 오다+ 맞다+ 어디+ 가다+ 끝/묻는 표정

국어: 아까 보니 수미가 (왔다→) 어디 갔나?



수화: 공부+ 열심히+ 때문+ 시험+ 합격하다+ 끝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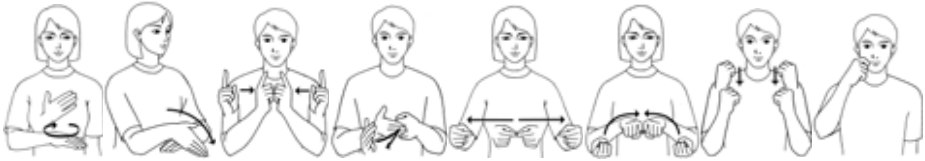
수화: 친구+ 만나다+ 그러나+ 이야기+ 오래+ 못하다+ 끝

국어: 친구를 (만났다→) 이야기를 오래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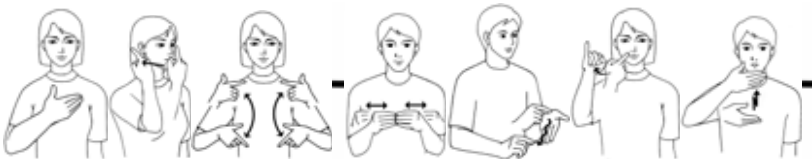
수화: 마음+ 착하다+ 그런데+ 용기+ 없다

국어: 마음은 (착하다→) 용기는 없다.



수화: 우리+ 늦다+ 만나다+ 때문+ 오래+ 같이+ 머무르다+ 못하다+ 끝

국어: 우리는 늦게 (만났다→) 오래 같이 머무르지 못했다.





수화: 나+ 어제+ 일기+ 쓰다+ 어머니+ 음식+ 준비하다+ 끝

국어: 나는 어제 일기 (쓰다→),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셨다.

(3) () 속에 있는 단어의 어간에 ‘-ㄴ, -은, -던’ 중에서 알맞은 어미를 넣어 관형사형의 과거 시제를 표시해 보자.



수화: 아침+ 떠나다+ 학생+ 미국+ 살다

국어: 아침에 (떠나다→) 학생은 미국에 산다.



수화: 이것+ 어리다+ 때+ 읽다+ 책

국어: 이것은 어릴 때 (읽다→) 책이다.



수화: 저것+ 나+ 쓰다+ -던+ 책상

국어: 저것이 내가 (쓰다→) 책상이다.



수화: 예쁘다+ -던+ 어린이+ 이렇게+ 변하다/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국어: (예쁘다→) 어린이가 이렇게 변했다니.

3. 미래 시제의 표시

[학습 목표]

종결형의 미래 시제와 관형사형의 미래 시제를 표시할 수 있다.

[용어]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표시하기]

3.1. 종결형의 미래 시제 표시

(1) 선어말 어미 ‘-겠-, -(으)리-’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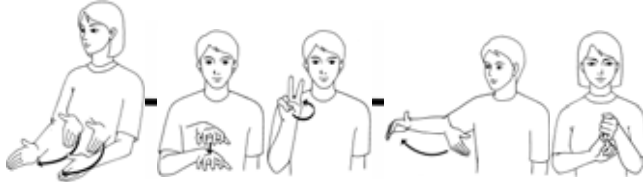
수화: 잠시+ 후(後)+ 1시+ 되다+ -ㅂ니다

국어: 잠시 후에 1시가 되겠습니다.



수화: 이+ 일+ 누구+ 하다+ -ㅂ니까?

국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수화: 고향+ 돌아가다+ 꼭

국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리라: 추측이나 미래의 의지를 나타냄)

(2) ‘-(으)ㄹ 것’+ ‘이다’로 표시한다.



수화: 다음 주+ 여행+ 가다+ -ㄹ 것이다(=아마)

국어: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이다.

(-ㄹ: 추측·예정·의지·가능성 등의 속뜻을 지니면서 미래 시제를 나타냄)

(3) ‘-(으)ㄹ게’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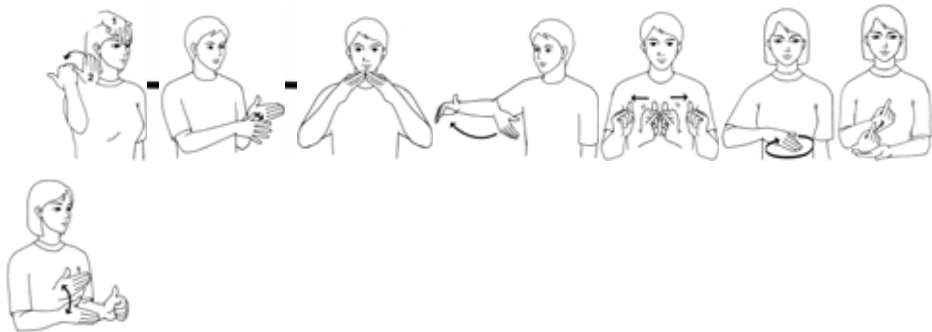
수화: 이+ 일+ 나+ 하다+ 약속하다

국어: 이 일은 내가 할게.

(-ㄹ게: 상대방에게 약속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뜻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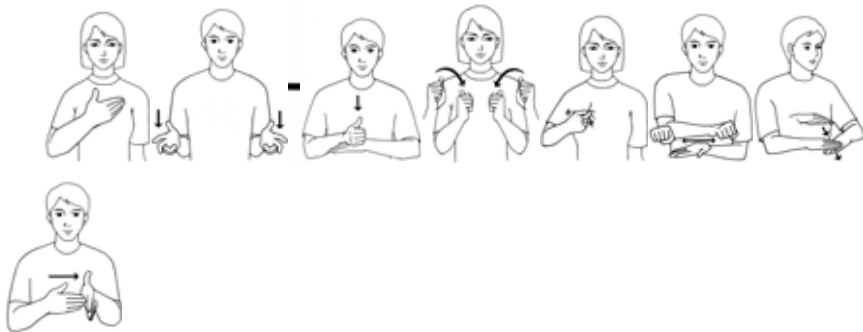
3.2. 관형사형의 미래 시제 표시

(1)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ㄹ’을 붙이고,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을’을 붙여 표시한다.



수화: 박물관+ 가다+ 사람+ 들+ 나오다(앞으로의 뜻을 포함)+ 부탁하다

국어: 박물관에 **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화: 나+ 주말+ 입다+ 옷+ 다리다+ 놓다+ 끝

국어: 나는 주말에 **입을** 옷을 다려 놓았다.

(2) ‘-(으)ㄹ’은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뒤에 오는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수화: 시내+ 가다+ 때+ 무엇+ 타다+ 가다/묻는 표정

국어: 시내에 갈 때 뭘 타고 가요?

[도움말]

(1) ‘-겠-’은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내일 연극 보러 가겠다. 의지
 구름 한 점 없으니 내일은 맑겠다. 추측

(2) 진행상: 사건이나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 수미와 지수가 산책하고 있다.

(3) 완료상: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끝나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예: 창문이 활짝 열려 있다.

(4) 예정상: 어떤 동작이 예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예: 지수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이제 진달래가 피려고 한다.

[연습]

(1) () 속에 있는 서술어에 ‘-(으)리-, -겠-, -(으)르 것+이다, -(으)르게’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종결형 미래 시제를 표시해 보자.



수화: 사흘+ 후(後)+ -면+ 오다

국어: 사흘 후면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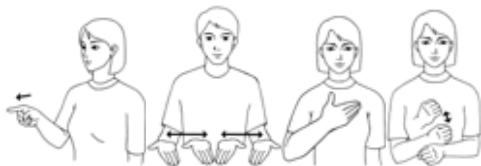
수화: 숙제+ 다음 주+ 하다

국어: 숙제는 다음 주에 (하다→).



수화: 나+ 한번+ 해보다

국어: 내가 한번 (해보다→).



수화: 그+ 일+ 나+ 하다

국어: 그 일은 내가 (하다→).

(2) () 속에 있는 서술어의 어간에 ‘-ㄹ’이나 ‘-을’을 붙여 관형사형의 미래 시제를 표시해 보자.



수화: 전화+ 하다+ 곳+ 많다

국어: 전화를 (하다→) 곳이 많아요.



수화: 먹다+ 것+ 하나+ 도+ 없다

국어: (먹다→) 것이 하나도 없다.

제5장 높임 표현하기

1. 주체 높임

[학습 목표]

말하는 사람이 주체(주어)에 대해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높임법: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체계.
- (2)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 (3)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주어)를 높이는 양식.

[표현하기]

- 1.1.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의 어간 뒤에 높임의 어미 '-(으)시-'를 붙여 표시해 보자. 주격조사 '이/가'나 '은/는' 대신 '께서'를 붙이기도 한다.



수화: 어제+ 할아버지+ 서울+ 오시다+ 습니다

국어: 어제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오셨습니다(오+ 시+ 었+ 습니다).



수화: 어머니+ 책+ 많이+ 읽다+ -ㅂ니다

국어: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으십니다(읽-+--(으)시-+-ㅂ니다).



수화: 저분+ 우리+ 선생님+ -ㅂ니다

국어: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십니다(선생님이-+--(으)시-+-ㅂ니다).



수화: 선생님+ 우리+ 칭찬하다+ -ㅂ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수화: 아버지+ 회사+ 다니다+ -ㅂ니다

국어: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십니다.

1.2.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성함, 치아, 부인, 선생님, 생신, 과장님, 따님’ 등으로 표현한다.



수화: 성함+ 무엇+ ~니까

국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화: 할아버지+ 치아+ 약하다+ 때문+ 딱딱하다+ 음식+ 잘+ 먹다+ 못하다

국어: 할아버지께서는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다.



수화: 부인+ 무슨+ 일+ 하다+ ~니까

국어: **부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수화: 선생님+ 생신+ 언제+ -버니까

국어: 선생님, 생신이 언제입니까?



수화: 과장+ 딸+ 아주+ 예쁘다+ -구니(=느끼다)+ 같다

국어: 과장님, 따님이 아주 예쁘네요.

1.3. 자신을 낮추는 말 ‘저희, 제, 말씀’ 등으로 표현한다.



수화: 연락+ 저희(=우리)+ 하다+ -버니다

국어: 연락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화: 그+ 일+ 저+ 하다+ -버니다

국어: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수화: 부모+ 께+ 드리다+ 말씀+ 있다+ 습니다

국어: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4. 주체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동사 ‘계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말씀하시다’ 등으로 표현한다.



수화: 선생님+ 교실+ 계시다+ 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계십니다.



수화: 아버지+ 많이+ 먹다+ 드리다

국어: 아버지, 많이 드세요.



수화: 어머니+ 차+ 마시다+ 드리다

국어: 어머니, 차 드세요.



수화: 선생님+ 편찮다(=아프다)

국어: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다.



수화: 잘+ 자다+ -ㅂ니까

국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화: 원장+ 돌아가다+ -습니다

국어: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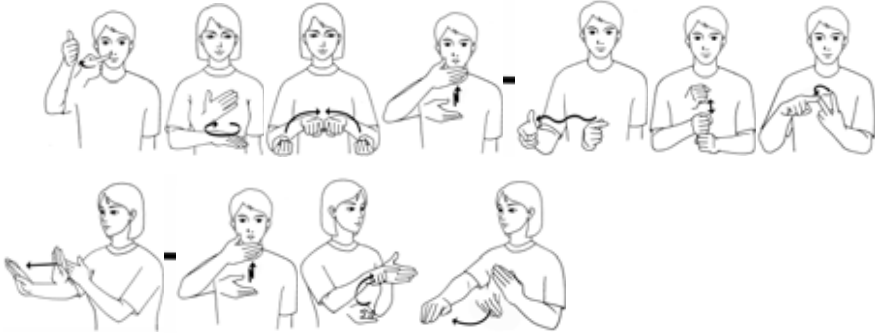


수화: 선생님+ 열심히+ 하다+ 말씀+ 끝

국어: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1.5. 하나의 주어가 서술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 각 서술어에 ‘-(으)시’를 붙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에 붙인다.



수화: 아버지+ 우리+ 함께+ 음식+ 만들다+ 든지+ 외식+ 위하다+ 나가다

국어: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신다.

1.6.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 경우 각각의 서술어에 ‘-(으)시-’를 붙여 표현한다.



수화: 아버지+ 자상하다+ 반대+ 어머니+ 무뚝뚝하다

국어: 아버지는 자상하신 반면, 어머니는 무뚝뚝하시다.



수화: 아버지+ 운동+ 좋아하다+ 어머니+ 여행+ 좋아하다

국어: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시다.

1.7. 높여야 할 사람의 소유물이나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 주어로 나타날 때는 '있다'를 '있으시다'로(간접 높임), 높여야 할 사람이 주어로 등장할 때는 '있다'를 '계시다'로 표현한다.(직접 높임)



수화: 선생님+ 책(=집)+ 책+ 많이+ 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책에 책이 많이 있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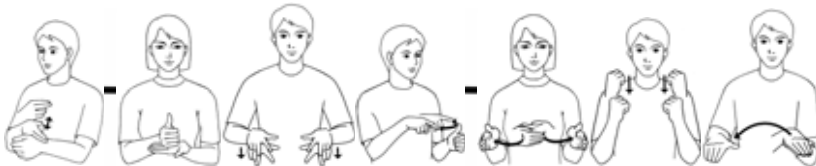
수화: 선생님+ 자동차+ 있다+ 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자동차가 있으십니다.



수화: 할아버지+ 손자+ 있다+ 습니까

국어: 할아버지, 손자가 있으십니까?



수화: 선생님+ 지금+ 교실+ 계시다+ ㅂ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지금 교실에 계십니다.

1.8.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주어일 경우 ‘아프시다’로, 높여야 할 사람이 직접 주어로 등장할 경우는 ‘편찮으시다’로 표현한다.



수화: 아버지+ 팔+ 아프다+ -비니까

국어: 아버지, 팔이 아프세요?



수화: 할아버지+ 편찮다(=아프다)

국어: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1.9. 주체가 높여야 할 대상이라도 듣는 사람이 주체보다 더 높은 사람일 경우 ‘-(으)시-’ 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버지(부모)보다 뒷사람에게도 아버지(부모)를 높여 표현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수화: 할머니+ 아버지+ 들어오다+ 아직+ -비니다

국어: 할머니,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수화: 할머니+ 아버지+ 들어오다+ 아직+ -ㅂ니다

국어: 할머니,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1.10. 가정 밖인 사회나 직장에서는 말하는 사람 편에서 볼 때 주체가 높여야 할 사람이면 ‘-(으)시-’를 써서 높인다.



수화: 사장+ 김+ 과장+ 외출하다+ -습니다

국어: 사장님, 김 과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1.11.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위가 낮아 존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듣는 사람과 주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체를 높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수화: 김+ 대리+ 김+ 과장+ 들어오다/묻는 표정

국어: 김 대리, 김 과장 들어왔어요?



수화: 김+ 대리+ 김+ 과장+ 들어오다+ -습니까

국어: 김 대리, 김 과장님 들어오셨어요?

[도움말]

(1)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에게 ‘께서’를 써서 높인다. 일상 대화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임에도 거의 ‘께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이름→성함

이→치아

아내→부인(남의 아내를 높여 말할 때만 쓸 수 있는 ‘아내’의 높임말)

선생→선생님

생일→생신

과장→과장님

딸→따님

(3) 자신을 낮추는 말:

나→저

우리→저희

말→말씀

(4) 말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하며,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 선생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5) 주체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용언:

있다→계시다

먹다→잡수시다, 드시다

마시다→드시다

아프다→편찮으시다

자다→주무시다

죽다→돌아가시다

말하다→말씀하시다

[연습]

(1) ()속에 있는 단어를 주체를 높이는 말로 바꾸어 보자.



수화: 사장+ 오시다+ -입니다

국어: 사장님께서 (오다→)



수화: 이름+ 알다+ 싶다+ -습니다

국어: 성함을 알고 (싶다→)



수화: 할머니+ 자다+ -ㅂ니까

국어: 할머니는 (자다→ ?)



수화: 손녀+ 있다+ -습니까

국어: 손녀가 (있다→ ?)



수화: 다리+ 아프다+ -ㅂ니까

국어: 다리가 (아프다→ ?)

2. 상대 높임

[학습 목표]

문장 끝 서술어의 어간 뒤에 여러 종결 어미를 붙여,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상대 높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표현.
문장 끝 서술어의 어간 뒤에 여러 종결어미를 붙여 나타낸다.
- (2) 격식체(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할 상황에서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형식): 하십시오체(아주높임), 하오체(예사높임), 하계체(예사낮춤), 해라체(아주낮춤).
- (3) 비격식체(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사이에서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형식): 해요체(높임), 해체(반말).

[표현하기]

2.1. 평서형의 상대 높임



수화: 책+ 읽다+ -습니다

하십시오체: 책을 읽습니다.



수화: 책+ 읽다

하오체: 책을 읽으오. 책을 읽으시오.

하계체: 책을 읽네.

해라체: 책을 읽는다.

해요체: 책을 읽어요.

해체: 책을 읽어.

2.2. 의문형의 상대 높임



수화: 무엇+ 하다+ -버니까

하십시오체: 무엇을 합니까?



수화: 무엇+ 하다/묻는 표정

하오체: 무엇을 하오? 무엇을 하시오?

하계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나?

해라체: 무엇을 하느냐?

해요체: 무엇을 해요?

해체: 무엇을 해? 무엇을 하지?

2.3. 명령형의 상대 높임



수화: 이쪽+ 오시다+ 부탁하다

하십시오체: 이쪽으로 오십시오.



수화: 이쪽+ 오라

하오체: 이쪽으로 오오.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으로 오구려.

하계체: 이쪽으로 오계.

해라체: 이쪽으로 와라.

해요체: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해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지.

2.4. 청유형의 상대 높임



수화: 같이+ 가다+ 부탁하다

하십시오체: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지지요.



수화: 같이+ 가다+ -자

하오체: 같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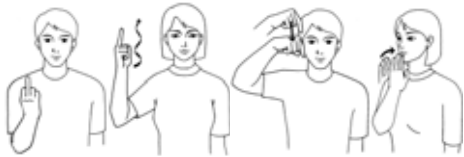
하계체: 같이 가세.

해라체: 같이 가자.

해요체: 같이 가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요.

해체: 같이 가. 같이 가지.

2.5. 감탄형의 상대 높임



수화: 산+ 높다+ -구나+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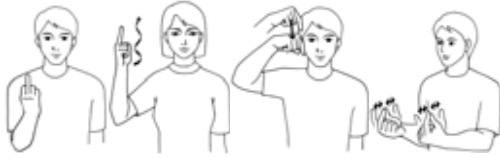
하오체: 산이 높구려.



수화: 산+ 높다+ -구나

하계체: 산이 높구면.

해라체: 산이 높구나. 산이 높아라.



수화: 산+ 높다+ -구나+ 같다

해요체: 산이 매우 높**군요**. 산이 매우 높**네요**.



수화: 산+ 높다+ -구나

해체: 산이 높**군**. 산이 높**네**. 산이 높**아**.

[도움말]

- (1) 하요체와 하계체는 ‘합시다’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 격식체 청유형 ‘-(으)십시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권유할 때 사용하고,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으)시지요’나 ‘-(으)시겠습니까?’ 등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쓴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이사님, 회의하러 가시지요.
부장님, 회의하러 가시겠습니까?
- (3) 해요체: 해체(반말)의 ‘-아/-어’, ‘-지’, ‘-는지’, ‘(으)니까’, ‘-(는)군’, ‘-네’, ‘-나’, ‘-는가’ 에 높임을 나타내는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된다.
- (4) 당신: 부부 사이에 서로를 가리킬 때, 감정이 상해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5) 해라체: 신문이나 잡지, 소설 같은 인쇄물에서 쓰인다.

높임이나 낮춤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대표적인 어말 어미는 다음과 같다.

1) 평서형 어말 어미

-ㄴ/는다 (영어를 공부한다.)

-다 (영어 공부는 재미있다.)

-이다 (나는 직원이다.)

-았/었/였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으)ㄴ 것이다, -겠다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2) 의문형 어말 어미

-나, 는가 (공부는 왜 하는가?)

-(으)ㄴ가 (어느 방이 가장 넓은가?)

-(이) ㄴ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았/었/였나, -았/었/였는가 (지구는 언제 태어났는가?)

-(으)ㄴ 것인가, -겠나, 겠는가 (봉사활동에 누가 참가하겠는가?)

3) 명령형 어말 어미

-(으)라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라.)

4) 청유형 어말 어미

-자 (내일 공원에 가자.)

[연습]

(1) 다음 문장을 평서형의 하십시오체, 해라체, 해체 등으로 바꾸어 () 속에 순서대로 넣어보자.



수화: 노래+ 부르다

국어: 노래를 부르다. () () ()



수화: 꽃+ 가꾸다

국어: 꽃을 가꾸다. () () ()

(2) 다음 문장을 의문형의 하십시오체, 해라체, 해체 등으로 바꾸어 () 속에 순서대로 넣어 보자.



수화: 노래+ 부르다

국어: 노래를 부르다. () () ()



수화: 꽃+ 가꾸다

국어: 꽃을 가꾸다. () () ()

(3) 다음 문장을 명령형의 하십시오체, 해라체, 해체 등으로 바꾸어 () 속에 순서대로 넣어 보자.



수화: 노래+ 부르다

국어: 노래를 부르다. () () ()



수화: 꽃+ 가꾸다

국어: 꽃을 가꾸다. () () ()

(4) 다음 문장을 청유형의 하십시오체, 해라체, 해체 등으로 바꾸어 () 속에 순서대로 넣어 보자.



수화: 노래+ 부르다

국어: 노래를 부르다. () () ()



수화: 꽃+가꾸다

국어: 꽃을 가꾸다. () () ()

(5) 다음 문장을 감탄형의 하오체, 해라체, 해체 등으로 바꾸어 () 속에 순서대로 넣어 보자.



수화: 노래+ 부르다

국어: 노래를 부르다. () () ()



수화: 꽃+가꾸다

국어: 꽃을 가꾸다. () () ()

3. 객체 높임

[학습 목표]

목적어나 부사어 등으로 등장하는 객체를 높이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용어]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 등으로 등장하는 객체를 높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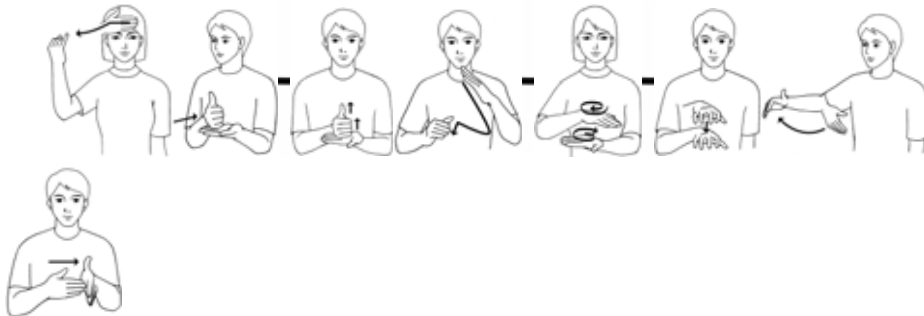
[표현하기]

3.1.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동사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등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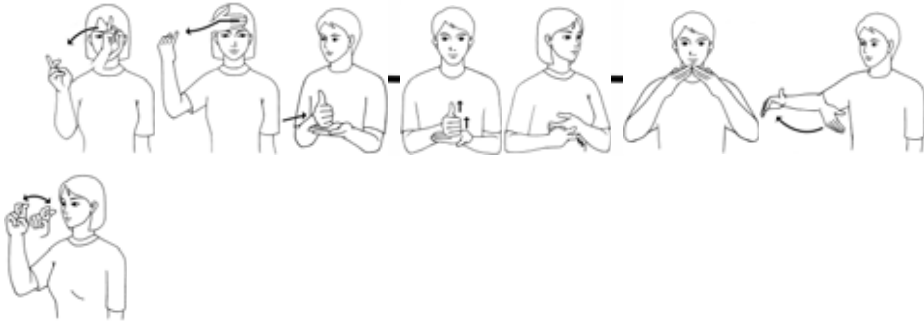
수화: 아버지+ 께+ 선물+ 드리다+ 끝

국어: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수화: 할머니+ 모시다+ 공원+ 가다+ 끝

국어: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



수화: 오후+ 할머니+ 모시다+ 병원+ 가다+ 아파

국어: 오후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거예요.



수화: 내일+ 만나다+ 말씀+ 드리다+ -습니다

국어: 내일 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화: 사장+ 께+ 하나+ 말씀+ 여쭙다+ -습니다

국어: 사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3.2.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로 표현한다.



수화: 할아버지+ 진지(=밥)+ 드세요(먹다+ 드리다)

국어: 할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수화: 죄송하다+ 연세(=나이)+ 얼마+ 여쭙다+ 괜찮다/묻는 표정

국어: 죄송하지만 연세를 여쭙 봐도 될까요?



수화: 주말+ 할머니+ 댁(=집)+ 가다+ 아냐

국어: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 것이다.

[도움말]

(1) 객체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동사:

주었다→ 드렸다

데리다→ 모시다

주다→드리다

만나다→뵙다

묻다→여쭙다

(2)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밥→진지

나이→연세

집→댁

[연습]

(1) () 속에 있는 동사를 높임말로 표현해 보자.



수화: 선생님+ 께+ 선물+ 드리다+ 끝

국어: 스승님께 선물을 (주다→)



수화: 할머니+ 모시다+ 극장+ 가다+ -자

국어: 할머니를 (데리고→) 극장에 가자.



수화: 만나다+ 말씀+ 드리다+ -습니다

국어: (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화: 선생님+ 께+ 하나+ 말씀+ 여쭙다+ -습니다

국어: 선생님께 한 말씀 (묻다→)

(2) () 속에 있는 명사를 높임말로 표현해 보자.



수화: 할머니+ 진지+ 드세요

국어: 할머니, (밥→) 드세요.



수화: 선생님+ 나이+ 많다+ -니니까

국어: 선생님은 (나이→)가 높으신가요?



수화: 부모+ 집+ 계시다/묻는 표정

국어: 부모님은 (집→)에 계신가?

제6장 부정문 만들기

1. '안' 부정문 만들기

[학습 목표]

'안'과 '-지 않다'를 사용해서 '안'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부정법: 언어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문법.
- (2) 부정문: 부정 용언이 사용된 문장.
- (3) '안' 부정법: '안'과 '-지 않다'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만들기]

1.1. 서술어 '명사+이다'의 어간에 '아니다'를 붙여 만든다.



수화: 저+ 건물+ 병원+ 아니다

국어: 저 건물은 병원이 아니다.

1.2. 동사나 형용사 앞에 '안'을 넣거나 그 뒤에 '-지 않다'를 붙여 만든다.



수화: 나+ 토마토+ 먹다+ 아니다

국어: 나는 토마토를 안 먹는다.



수화: 나+ 토마토+ 먹다+ 아니다

국어: 나는 토마토를 먹지 않는다.

1.3. 파생어 ‘이사하다, 새파랗다, 아름답다’와 합성어 ‘마무리 짓다’에는 ‘-지 않다’를 붙여 만든다.



수화: 그+ 울산+ 이사하다+ 아니다

국어: 그는 울산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수화: 서해+ 바다+ 파랗다+ 아니다

국어: 서해 바다는 새파랗지 않다.



수화: 그녀+ 아름답다+ 아니다

국어: 그녀는 아름답지 않다.



수화: 우리+ 상담+ 끝내다+ 아직

국어: 우리는 상담을 끝내지 않았다.

1.4. ‘이사하다’와 ‘거짓말하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넣어, ‘이사를 하다’와 ‘거짓 말을 하다’로 쓴 경우에는 ‘안’ 부정법을 쓸 수도 있다.



수화: 나+ 경주+ 이사하다+ 아니다

국어: 나는 경주로 이사를 안 한다



수화: 그+ 학생+ 거짓말+ 아니하다

국어: 그 학생은 거짓말을 안 한다.

1.5.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였-, -겠-’을 ‘-지 않다’에 넣어 만든다.



수화: 어제+ 날씨+ 답다+ 아니다

국어: 어제는 날씨가 덥지 않았다.



수화: 내일+ 비+ 내리다+ 아니다+ 물음표(?)

국어: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겠지?

1.6. ‘-았-/-었-/-였-’, ‘-았었-/-었었-/-였었-’ 등이 본래의 서술어 어간에 붙고 그 뒤에 ‘-지 않다’가 붙어 확인 의문문이 된다.



수화: 지난주+ 날씨+ 춥다+ 아니다/묻는 표정

국어: 지난주는 날씨가 추웠지 않니? ↗



수화: 너희+ 그+ 때+ 이미+ 다+ 먹다+ 끝+ 아니다/묻는 표정

국어: 너희는 그때 이미 다 먹었었지 않니? →

1.7. 확인 의문문에서 '-지 않다'는 '-잖다'로 흔히 줄어 쓰인다.



수화: 지난주+ 날씨+ 춥다+ 아니다/확인 표정

국어: 지난주는 날씨가 추웠잖니? →



수화: 너희+ 그+ 때+ 이미+ 다+ 먹다+ 끝+ 아니다/확인 표정

국어: 너희는 그때 이미 다 먹었었잖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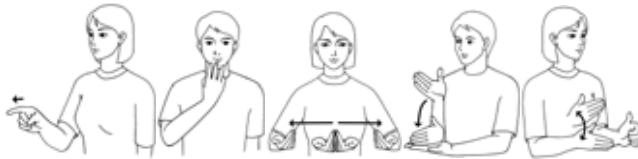
1.8.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시- + -지 않다’로 만든다.



수화: 선생님+ 몸+ 불편하다+ 아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다.

1.9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평서문에서는 ‘-지 말다’ 보다 ‘-지 않다’가 더 자연스럽다.



수화: 너+ 서울+ 떠나다+ 말다+ 부탁하다

국어: 네가 서울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수화: 날씨+ 덩다+ 아니다+ -면+ 좋다

국어: 날씨가 덩지 않았으면 좋겠다.

1.10. 서술어 ‘있다’의 경우, 그 반대말인 ‘없다’를 사용해서 만든다.

‘있다’의 높임말인 ‘계시다’의 경우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해서 만든다.



수화: 나+ 돈+ 없다

국어: 나는 돈이 없다.



수화: 할머니+ 집+ 계시다+ 아니다

국어: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



수화: 할머니+ 집+ 계시다+ 아니다

국어: 할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는다.

[도움말]

- (1) ‘안’ 부정법과 ‘못’ 부정법은 주로 서술문과 의문문에서 사용.
- (2) ‘말다’ 부정법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
- (3) 짧은 부정법은 ‘안’이나 ‘못’을 서술어 앞에 넣어 부정문을 만드는 것.
- (4) 긴 부정법은 ‘-지, 않다, 못하다, 말다’가 결합한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를 서술어 뒤에 넣어 부정문을 만드는 것.

- (5) 짧은 부정문을 선행 부정이라 한다.
- (6) 긴 부정문을 후행 부정이라고 한다.
- (7) 짧은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서술어:
 ‘명사-하다’꼴로 이루어진 말: 공부하다, 노래하다, 약하다, 연구하다, 운동하다, 출발하다, 추천하다 등.
 접두 파생어: 빛나가다, 알밋다, 역세다, 재빠르다, 짓밟다, 휘감다 등.
 접미 파생어: 기웃거리다, 깜박이다, 슬기롭다, 자랑스럽다, 정답다 등.
 합성어: 가다듬다, 값싸다, 다다르다, 앞서다, 오다, 이롭나다 등.
- (8) ‘안’과 함께 쓰일 수 없는 서술어:
 파생어: 새파랗다, 아름답다, 이사하다.
 합성어: 마무리 짓다.
- (9) 짧은 부정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합성어와 파생어:
 합성어: 내려오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잡아먹다.
 ‘하다’ 파생어: 독하다, 상하다, 연하다, 전하다 등.
 사동사와 피동사: 높이다, 들리다, 맞추다, 보이다, 웃기다 등.
- (10) ‘이에요’, ‘이어요’, ‘예요’, ‘여요’의 쓰임.
- 1) 받침이 있는 명사
 예: 이건 책상이예요.
 책상이어요.
 - 2) 받침이 없는 명사
 예: 이건 제 모자이에요(예요)/모자이어요(여요).
 제가 영숙이이에요(예요)/영숙이이어요(여요).
 - 3) 아니다
 예: 이분은 제 친구가 아니예요(아녜요)/아니어요/아녀요).

[연습]

(1) () 속에 있는 '명사 -이다'의 어간에 '아니다'를 붙여 '안'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이것+ 책+ 아니다

국어: 이것은 (책이다→)

(2) () 속에 있는 형용사 앞에 '안'을 넣거나 그 뒤에 '-지 않다'를 붙여 '안'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가을+ 하늘+ 높다+ 아니다

국어: 가을 하늘이 () 높다.



수화: 산+ 높다+ 아니다

국어: 산이 (높다→)

(3) () 속에 있는 용언의 어간에 "-지 않다"를 붙여 '안'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경치+ 좋다+ 아니다

국어: 경치가 (좋다→)



수화: 우리+ 공사+ 마무리하다+ 아직

국어: 우리는 공사를 (마무리하다→)

1.4. 시제를 나타내는 '-았-'이나 '-겠-'을 '-지 않다'에 넣어 '안'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어제+ 날씨+ 춥다+ 아니다

국어: 어제는 날씨가 (춥지 않다→)



수화: 내일+ 춥다+ 아니다/의문 표정

국어: 내일은 춥지 (않다→ ?)

2. '못' 부정문 만들기

[학습 목표]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못'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못' 부정법: '못'과 '-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만들기]

2.1. 서술어 앞에 부정 부사 '못'을 넣어 만든다.



수화: 책+마지막+까지+다+읽다+못하다+끝

국어: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었다.



수화: 이제+더+걷다+못하다

국어: 이젠 더 못 걸쎄어요.



수화: 비+ 내리다+ 때문+ 가다+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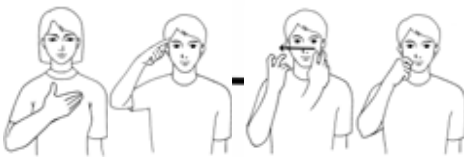
국어: 비가 내려서 못 가요.

2.2. 서술어의 어간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지 못하다'를 붙여 만든다.



수화: 그+ 책+ 마지막+ 까지+ 다+ 읽다+ 못하다+ 끝

국어: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지 못했다.



수화: 나+ 똑똑하다+ 못하다

국어: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수화: 먹다+ 것+ 넉넉하다+ 못하다

국어: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



수화: 과일+ 신선하다+ 못하다

국어: 과일이 신선하지 못하다.

2.3. ‘-았-/-었-/-였-’, ‘-겠-’ 등을 ‘-지 못하다’ 안에 넣어 만든다.



수화: 영이+ 사과+ 먹다+ 못하다+ 끝

국어: 영이는 사과를 먹지 못했다.



수화: 내일+ 철수+ 집+ 가다+ 못하다+ 아마

국어: 내일은 철수가 집에 가지 못하겠다.

2.4.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시- + -지 못하다’로 만든다.



수화: 선생님+ 학교+ 오시다+ 못하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오시지 못한다.

[도움말]

- (1) ‘못’ 부정문: 능력의 부족이나 외부적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 (2) 서술어가 ‘명사-이다’이거나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못’이 쓰일 수 없다.
- (3) 서술어가 형용사일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침을 표현할 때에는 ‘못’ 부정이 가능하다.
- (4) ‘못’ 부정이 가능한 형용사: 깨끗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신선하다, 우수하다, 풍부하다
- (5) ‘못’ 부정문의 유형:
 - 짧은 부정문: 서술어 앞에 ‘못’을 넣어 만든 부정문.
 - 긴 부정문: 서술어 뒤에 ‘-지 못하다’를 붙여 만든 부정문.
- (6) ‘알다’의 경우는 ‘알지 못하다’ 형식만 성립한다.
 - 예: 나는 ‘배달’의 뜻을 알지 못한다.
 - 나는 ‘배달’의 뜻을 모른다.
- (7) 감탄문에서는 ‘안’ 부정문의 짧은 부정과 긴 부정, ‘못’ 부정문의 긴 부정이 가능하다.
 - 예: 기분이 안 좋구나.
 - 기분이 좋지 않구나.
 - 기분이 좋지 못하구나.

[연습]

(1) 서술어 앞에 '못'을 넣어 '못'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오늘+ 가다+ 못하다

국어: 오늘은 () 가겠다.



수화: 시끄럽다+ 때문+ 자다+ 못하다

국어: 시끄러워 () 자겠다.



수화: 그+ 일+ 힘들다+ 때문+ 못하다

국어: 그 일은 힘들어서 () 하겠다.

(2) 서술어의 어간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지 못하다'를 붙여 '못'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소설+ 마지막+ 까지+ 읽다+ 못하다+ 끝

국어: 소설을 끝까지 (읽다→)



수화: 그+ 영리하다+ 못하다

국어: 그는 (영리하다→)



수화: 마음+ 넉넉하다+ 못하다

국어: 마음이 (넉넉하다→)



수화: 생선+ 신선하다+ 못하다

국어: 생선이 (신선하다→)

3. '말다' 부정문 만들기

[학습 목표]

명령문과 청유문의 '말다'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말다' 부정법: 동사 어간에 '-지 말다'를 붙여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만들기]

3.1. 동사의 어간에 '-지 말다'를 붙여 만든다.



수화: 텔레비전+ 보다+ 말다

국어: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말+아라)



수화: 오늘+ 배구+ 말다/권하는 표정

국어: 오늘은 배구를 **하지 말자.**

3.2.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으)시’가 서술어에 붙어 있으면 ‘-지 말다’는 보통 ‘-지 마세요’ 형태로 나타난다.



수화: 형+ 집+ 가다+ 말다+ 부탁하다

국어: 형님, 집으로 가지 마세요.

[도움말]

- (1) ‘말다’ 부정법: 명령문과 청유문을 부정할 때 사용한다.
- (2) 부사어 ‘전혀, 결코, 아무도, 추후도, 조금도, 털끝만큼도’ 등: 부정 표현에만 사용되어 부정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극대화한다.
- (3) ‘여간’과 ‘이만저만’: 부정문에만 사용되어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4)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 내용이 긍정일 때 ‘응, 안/못 먹었어’, ‘응, 먹지 않았어/먹지 못했어’ 등으로, 부정일 때 ‘아니, 먹었어.’로 대답한다.

[연습]

(1) () 속에 있는 동사의 어간에 ‘-지 말다’를 붙여 ‘말다’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다르다+ 곳+ 이사하다+ 말다/권하는 표정

국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다→)



수화: 우리+ 놀다+ 말다/권하는 표정

국어: 우리 (놀다→)

(2) () 속에 있는 동사의 어간에, ‘-(으)시’가 서술어에 붙어 있을 때 쓰는 ‘-지 말다’의 다른 형태를 붙여 ‘말다’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형+ 외국+ 가다+ 말다+ 부탁하다

국어: 형님, 외국으로 (가시다→)

4. 이중 부정문 만들기

[학습 목표]

‘안’ 부정으로 이중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이중 부정문: 한 문장 안에 부정 표현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만들기]

4.1. 이중 부정문은 ‘안’ 부정문으로 만든다.



수화: 이번+ 우리+ 가다+ 아니다+ -면+ 안되다.

국어: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



수화: 약속+ 지키다+ 말다+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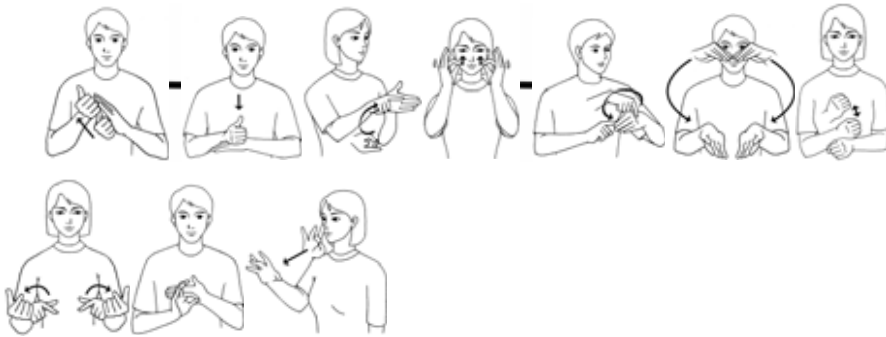
국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도움말]

- (1) 이중 부정문이 나타내는 의미: 강한 긍정.
- (2) ‘못’ 부정: ‘안’ 부정과 달리 이중 부정이 불가능하다.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를 변화시켜 이중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수화: 성공+ 위하다+ 정성+ 다+ 하다+ 아니다+ -면+ 안되다

국어: 성공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지 (않다→ 안되다→)



수화: 학생+ 때문+ 공부+ 말다+ 할 수 없다

국어: 학생이므로 공부를 하지 (않다→) 수 없다.

제7장 사동문과 피동문 만들기

1. 사동문 만들기

[학습 목표]

파생적 사동법과 통사적 사동법, 기타의 방법으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사동문: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이나 동물, 사물에 움직임이 생기게 하거나 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서술어가 사동사인 문장.
- (2) 파생적 사동법(접미 사동법):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것.
- (3) 통사적 사동법(‘-게 하다’ 사동법): ‘-게 하다’(어미 ‘-게’+ 보조동사 ‘하다’)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것.

[만들기]

1.1. 파생적 사동법으로

- (1) 자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를 붙여 만든 파생어를 이용하여 만든다.

(눅다→눅이다. 눅다→눅히다. 날다→날리다. 남다→남기다. 깨다→깨우다. 달다→달구다. 서다→세우다. 익다→익히다. 속다→속이다. 얼다→얼리다)



수화: 언니+ 얼음+ 녹이다

국어: 언니가 얼음을 녹인다.



수화: 어머니+ 아기+ 눕히다

국어: 어머니가 아기를 눕힌다.



수화: 어린이+ 들+ 연을 날리다

국어: 어린이들이 연을 날린다.



수화: 음식+ 남기다+ 말다

국어: 음식을 남기지 마라.



수화: 나+ 깨우다+ 말다

국어: 나를 깨우지 마라.



수화: 공원+ 쇠+ 달구다

국어: 공원이 쇠를 달군다.

(2)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를 붙여 만든 파생어를 이용하여 만든다.

(먹다→먹이다. 엮다→엮히다. 알다→알리다. 감다→감기다. 지다→지우다. 말다→말기다)



수화: 개+ 강아지+ 젓+ 먹이다

국어: 개가 강아지에게 젓을 먹인다.



수화: 아이+엄마+등+엮히다

국어: 아이가 엄마 등에 엮힌다.



수화: 기차+안+도착+시간+알리다

국어: 기차에서 도착 시간을 알린다.



수화: 어머니+아들+머리+감기다

국어: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감는다.



수화: 아이+안기다

국어: 아이를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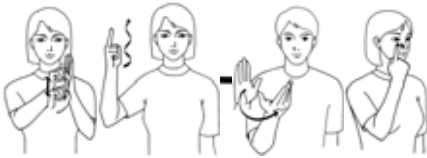


수화: 그('에게'를 포함)+경비+책임+지우다(=말기다)+끝

국어: 그에게 경비 책임을 지웠다.

(3) 형용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추’를 붙여 만든 파생어를 이용하여 만든다.

(높다→높이다). 넓다→넓히다. 늦다→늦추다)



수화: 온도+ 높이다+ 해보다

국어: 온도를 높여봐.



수화: 구청+ 곳+ 길+ 넓히다+ 만들다

국어: 구청에서 길을 넓힌다.



수화: 속력+ 늦추다+ 해보다+ -자

국어: 속력을 늦추어 보자.

1.2. 통사적 사동법으로: ‘-게 하다’(어미 ‘-게’+ 보조 동사 ‘하다’)를 이용하여 만든다.

(1) 자동사가 서술어인 경우, 그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주어로 바꾼 다음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를 넣어 만든다.



주동문: 수화: 아기+자다
 국어: 아기가 잔다.



사동문: 수화: 어머니+아기+재우다
 국어: 어머니가 아기를 자게 한다.
 어머니가 아기가 자게 한다.

(2) 형용사가 서술어인 경우, 그 어간에 '-게 하다'나 '-아/-어-지게하다'를 붙이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주어로 바꾼 다음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를 넣어 만든다.



주동문: 수화: 길+넓다
 국어: 길이 넓다.



사동문: 수화: 인부들+ 길+ 넓히다
 국어: 인부들이 길을 넓게 했다.
 인부들이 길이 넓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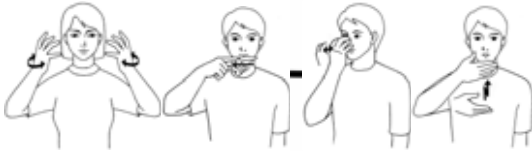


주동문: 수화: 동생+ 머리+ 예쁘다
 국어: 동생의 머리가 예쁘다.



사동문: 수화: 아주머니+ 동생+ 머리+ 예쁘다+ 만들다
 국어: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를 예쁘게 했다.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가 예쁘게 했다.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를 예뻐지게 했다.
 아주머니는 동생의 머리가 예뻐지게 했다.

(3) 타동사가 서술어인 경우,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에서 그대로 목적어가 되고, 주동문의 주어가 '-에게'가 붙는 부사어로 바뀐다. 그밖에는 자동사, 형용사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주동문: 수화: 아이+ 딸기+ 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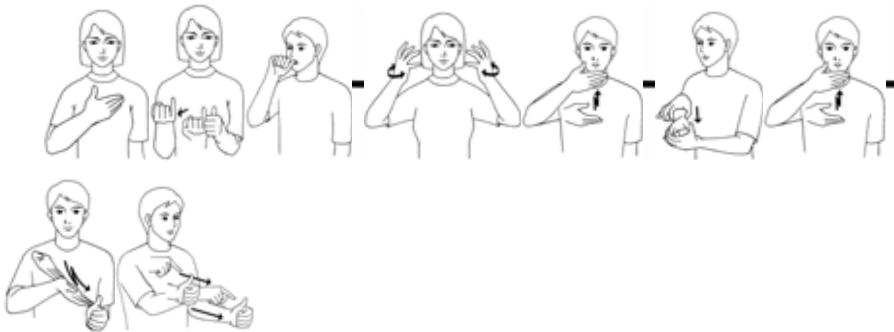
국어: 아이가 딸기를 먹는다.



사동문: 수화: 엄마+ 아이+ 딸기+ 먹이다

국어: 엄마는 아이에게 딸기를 먹게 한다.

(4) 사동사 뒤에 ‘-게 하다’를 붙여 이중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수화: 나+ 아내+ 아기+ 밥+ 먹이다+ 시키다

국어: 내가 아내에게 아기한테 밥을 먹이게 하였다.

1.3. 기타: ‘-하다’의 사동형은 ‘-하게 하다’인데 이를 ‘시키다’로 바꾸면 같은 의미의 사동문이 된다.



사동문: 수화: 선생님+ 학생+ 들+ 글짓기+ 연습+ 시키다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연습하게 한다.



사동문: 수화: 선생님+ 학생+ 들+ 글짓기+ 연습+ 시키다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연습시킨다.



주동문: 수화: 부모+ 딸+ 감동+ 받다

국어: 부모님이 딸에게 감동했다.



사동문: 수화: 딸+ 부모+ 감동+ 드리다

국어: 딸이 부모님을 감동시켰다.

[도움말]

(1) 주동과 사동:

- 1) 주동: 주어가 직접 하는 것.
- 2)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2) 주동사와 사동사:

- 1) 국어에는 사동사가 있는 주동사보다 사동사가 없는 주동사가 훨씬 많다.
- 2) 용언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사전에 올린다.
- 3) ‘서다’와 같은 일부 자동사는 두 개의 사동 접미사가 연속된 ‘-이우-’가 붙어 사동사를 만들기도 한다(서다→세우다).
- 4) 일부 동사는 사동 접미사 두 개를 겹쳐 쓰기도 한다. 이런 단어들은 대개 ‘1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으로 끝난다.

예: 서다→세우다(서+ | 우)

자다→재우다(자+ | 우)

타다→태우다(타+ | 우)

차다→채우다(차+ | 우)

- 5) 어간이 모음 ‘-’로 끝난 경우에는 사동 접미사가 붙을 때 모음 ‘-’가 탈락한다.

예: 크다→키우다

- 6) 드물지만 ‘-애’, ‘-시-’, ‘-으키-’, ‘-이키-’ 같은 특이한 사동 접미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경우가 있다.

예: -애-: 없다→없애다

-시-: 젖다→적시다

-으키-: 일다→일으키다

-이키-: 돌다→돌이키다

(3) 사동 접미사: 구, 기, 리, 우, 이, 추, 히

(4)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

- 1) 수여 동사: 드리다, 바치다, 받다, 주다 등.
 - 2) 수혜 동사: 돕다, 받다, 얻다, 잃다 등.
 - 3) 대칭 동사: ‘와/과’를 필요로 하는 동사: 만나다, 닮다, 싸우다 등.
 - 4) 경험 동사: 느끼다, 바라다, 배우다 등.
 - 5) 어간이 모음 ‘l’로 끝나는 동사: 던지다, 때리다, 이기다, 지키다 등.
 - 6) ‘-하다’가 붙는 동사: 노래하다, 도착하다, 출발하다 등.
- (5) ‘-게 하다’ 사동문에서 어미 ‘-았-/-었-/-였-’, ‘-겠-’, ‘-더-’ 등은 ‘하다’에만 붙을 수 있다.
- 예: 형이 동생에게 우유를 먹게 했다.
 내가 학생을 집에 가게 하겠다.
 선배는 후배가 서점에 가게 하더라.
- (6) 사동법의 사동문은 사동문의 주어만 높일 수도 있고 시킴을 받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으며, 둘을 동시에 높일 수도 있다.
- 예: 선생님께서는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시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시장에 가게 하셨습니다.
 누나가 어머니를 시장에 가시게 하였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시장에 가시게 하셨습니다.
- (7) ‘밥하다, 떡하다, 머리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와 ‘-하다’가 결합한 경우에는 ‘시키다’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지 못한다.

[연습]

- (1) () 속에 있는 자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를 붙여 파생어를 만들어 사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피+속이다+못하다

국어: 피는 못 (속다→)



수화: 어린이+글씨+익히다

국어: 어린이가 글씨를 (익다→)



수화: 스케이트+곳+얼음+얼리다(=얼다+만들다)

국어: 스케이트장에서 얼음을 (얼다→)



수화: 음식+남기다+말다

국어: 음식을 (남다→)



수화: 이름+ 숨다+ 왜
 국어: 왜 이름을 (숨다→)



수화: 나+ 자주+ 집+ 비다
 국어: 나는 자주 집을 (비다→).



수화: 불+ 때다+ 방+ 달구다+ 하여라
 국어: 불을 때어 방을 (달다→).

(2) () 속에 있는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를 붙여 파생어를 만들어 사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어른+ 어린이+ 웃다+ 보이다(=보여주다)
 국어: 어른이 어린이에게 웃어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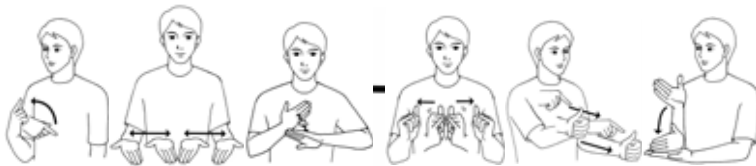
수화: 엄마+ 아이+ 책+ 읽다+ 시키다

국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다→)



수화: 뱀+ 물리다+ 아니다+ 조심하다/조심하지는 표정

국어: 뱀에 (물다→) 않도록 조심하자.



수화: 자기+ 일+ 남+ 시키다+ 말다

국어: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맡다→)



수화: 그+ 쌀+ 가마니+ 지다+ 시키다

국어: 그에게 쌀가마를 (지다→)

(3) () 속에 있는 형용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 히, 추’를 붙여 파생어를 만들어

사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음성+크다+것+좋다+아니다

국어: 언성을 (높다→) 것은 좋지 않다.



수화: 촛불+밝히다+하여라

국어: 촛불을 (밝다→)



수화: 걷다+늦다+하여라

국어: 걸음을 (늦다→)

(4) () 속에 있는 서술어의 어간에 ‘-게 하다’ 붙여 사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언니+동생+놀다+시키다

국어: 언니가 동생이 (놀다→)



수화: 사람+ 들+ 길+ 넓다+ 만들다

국어: 사람들이 길이 (넓다→)



수화: 고모+ 아이+ 우유+ 먹이다

국어: 고모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다→)

2. 피동문 만들기

[학습 목표]

파생적 피동법과 통사적 피동법으로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용어]

- (1) 피동문: 다른 사람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서술어가 피동사인 문장.
- (2) 파생적 피동법(접미 피동법): 본래의 주어를 부사어로, 본래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를 붙여 피동사로 만들어 피동문을 만드는 것.
- (3) 통사적 피동법(-어지다 피동법): '-어지다, 되다, 당하다'를 이용하여 피동문을 만드는 것.
- (4) 능동사: 주어가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담다, 꺾다 등.
- (5) 피동사: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담기다, 꺾히다 등.

[만들기]

2.1. 파생적 피동법으로

- (1) 타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든 파생어를 이용하여 만든다.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덜다→덜이다. 잡다→잡히다. 풀다→풀리다. 안다→안기다)



수화: 예식장+ 꽃+ 덮다+ 되다

국어: 예식장이 꽃으로 **덮**인다



수화: 범인+ 경찰+ 잡히다+ 끝

국어: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수화: 수수께끼+ 어린이+ 들+ 의하다+ 풀다+ 되다+ 끝

국어: 수수께끼가 어린이들에 의해 **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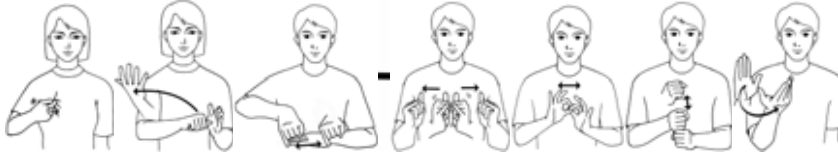


수화: 손녀+ 할머니+ 안다+ 되다

국어: 손녀가 할머니에게 **안**긴다.

2.2. 통사적 피동법으로

(1) 피동사가 따로 없는 타동사에 ‘-어 지다’를 붙여 만든다.



수화: 이+옷+ 유명하다+ 디자이너+ 의하다+ 만들다+ 되다

국어: 이 옷은 유명한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진다.**



수화: 꽃+ 떨어지다

국어: 꽃이 떨어진다.

(2) ‘-되다’나 ‘-당하다’로 바꾸어 만든다.

(피동사가 없고 ‘-아/-어지다’로 피동 표현을 만들지 못하는, ‘-하다’가 붙은 타동사들을)





수화: 정부+ 의하다+ 발전소+ 건설+ 되다+ 끝

국어: 정부에 의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수화: 친구+ 나+ 모욕당하다+ 끝

국어: 내가 친구에게 모욕당했다.

2.3. 피동문의 부사어

(1) 능동문의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 부사어 ‘에게’나 ‘한테’를 붙여 만든다.

부분적으로는 ‘에 의해’를 쓸 수도 있다.



수화: 강도+ 경찰+ 잡히다+ 끝

국어: 강도가 경찰에게 잡혔다.



수화: 강도+ 경찰+ 잡히다+ 끝

국어: 강도가 경찰**한테** 잡혔다.



수화: 강도+ 경찰+ 잡히다+ 끝

국어: 강도가 경찰**에 의해** 잡혔다.



수화: 아이+ 어머니+ 안기다

국어: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긴다.

(2) 목적어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의 경우 능동문의 주어에 부사격 조사 ‘-에게’를 붙여 만든다.



수화: 나+ 경찰+ 잡히다+ 끝

국어: 나는 경찰**에게** 잡혔다.

(3) 능동문의 주어가 사물일 때는 부사격 조사 ‘에’ 나 ‘(으)로’를 붙여 만든다.



수화: 산+눈+덮다+되다

국어: 산이 눈에 덮였다.



수화: 산+눈+덮다+되다

국어: 산이 눈으로 덮였다.

(4) 능동문에 '에게'가 붙은 부사어가 있을 때 피동문을 쓰지 않고 능동문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에 직접적인 행위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에 의해'를 쓴다.



수화: 보리+어머니+의하다+그릇+담다+되다

국어: 보리는 어머니에 의해 그릇에 담겼다.



수화: 나무+막대기+형+의하다+밭+꿇다+되다

국어: 나무 막대가 형에 의해 발에 꽂혔다.

(5) 능동문의 서술어가 ‘깎다, 꺾다, 끊다, 걸다, 닫다, 풀다, 자르다, 찢다, 박다, 뚫다’
등일 경우에는 ‘에 의해’만을 사용한다.



수화: 전화+손자+의하다+끊다+되다+끝

국어: 전화가 손자에 의해 끊겼다.

[도움말]

(1) 능동과 피동:

- 1) 능동: 주어가 자기의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
- 2) 피동: 주어가 남의 힘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것.

(2) 능동사와 피동사:

- 1) 국어에는 피동사가 있는 능동사보다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가 훨씬 많다.
- 2) 용언의 어간에 파생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사전에 올린다.

3) 피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

- 이-: 놓다-놓이다, 덮다-덮이다, 묶다-묶이다, 보다-보이다, 섞다-섞이다, 쌓다-쌓이다, 쓰다-쓰이다, 파다-파이다
- 히-: 닫다-닫히다, 먹다-먹히다, 묻다-묻히다, 박다-박히다, 밟다-밟히다, 엮다-엮히다, 잡다-잡히다
- 리-: 누르다-눌리다, 듣다-들리다, 물다-물리다, 밀다-밀리다, 풀다-풀리다

-기-: 감다-감기다, 꿩다-꿩기다, 안다-안기다, 찢다-찢기다

4)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

수여 동사: 드리다, 바치다, 받다, 주다

수혜 동사: 돕다, 받다, 얻다, 잃다

대칭 동사: 만나다, 닮다, 싸우다와 같이 '와/과'를 필요로 하는 동사

경험 동사: 느끼다, 바라다, 배우다

어간이 모음 'l'로 끝나는 동사: 던지다, 때리다, 이기다, 지키다

'-하다'가 붙는 동사: 날리다, 낮추다, 노래하다, 도착하다, 먹이다, 세우다,
숨기다, 입히다, 출발하다

(3)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4) 피동문의 부사격 조사: 예, 에게, 에 의해(서), (으)로, 한테.

(5) '-어지다'는 형용사와 어울리면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상태의 변화만 나타낸다.

예: 밖이 환해진다.

운동장이 넓어졌다.

교실이 깨끗해졌다.

[연습]

(1) () 속에 있는 동사를 피동사로 바꾸어 피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비+땅+파다+되다

국어: 비에 땅이 (파다 →)



수화: 못+ 잘+ 박다+ 되다

국어: 못이 잘 (박다→)



수화: 수학+ 문제+ 잘+ 풀다+ 되다

국어: 수학 문제가 잘 (풀다→)



수화: 아기+ 엄마+ 가슴+ 안다+ 되다

국어: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 (안다→)

(2) () 속에 있는 동사를 피동사로 바꾸어 피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콩+ 팔+ 쉬다+ 되다+ 끝

국어: 콩이 팔에 (쉬었다→)



수화: 닭+ 독수리+ 에게+ 먹다+ 되다+ 끝

국어: 닭이 독수리에게 (먹었다→)



수화: 고양이+ 개+ 에게+ 물다+ 되다+ 끝

국어: 고양이가 개에게 (물었다→)



수화: 바지+ 못+ 의하다+ 찢다+ 되다+ 끝

국어: 바지가 못에 의해 (찢었다→)

(3) () 속에 있는 동사에 ‘-어 지다, 되다, 당하다’를 붙여 피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이+ 옷+ 유명하다+ 디자이너+ 의하다+ 만들다+ 되다

국어: 이 옷은 유명한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었다→)



수화: 정부+ 의하다+ 발전소+ 건설+ 되다

국어: 정부에 의해 발전소가 (건설한다→)



수화: 나+ 친구+ 모욕당하다+ 끝

국어: 내가 친구에게 (모욕했다→)

(4) () 속에 있는 명사에 ‘에게, 에 의해, 로’ 중에서 알맞은 것을 붙여 피동문이 되게 해보자.



수화: 강도+ 주민+ 의하다+ 잡히다+ 끝

국어: 강도가 (주민→) 잡혔다.



수화: 들+ 잔디+ 의하다+ 덮다+ 되다+ 끝

국어: 들판이 (잔디→) 덮었다.



수화: 사수+ 의하다+ 화살+ 나무+ 꽃다+ 되다+ 끝

국어: (사수→) 화살이 나무에 꽃혔다.



수화: 거리+ 인파+ 짝 차다+ 되다+ 끝

수화: 거리가 (인파→) 덮이었다.

제8장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 표현하기

1. 추측의 표현

[학습목표]

말하는 사람이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1.1. '-겠'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곧+ 비+ 내리다+ 아마

국어: 곧 비가 내리겠어요.



수화: 걷다+ 가다+ 빠르다+ 아마

국어: 걸어서 가는 것이 빠를지도 모르겠다.

1.2. '-(으)ㄴ 것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내일+ 눈+ 내리다+ 아마
 국어: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1.3. ‘-는/-(-으)ㄴ/-(-으)ㄹ 모양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밖+ 비+ 내리다+ 모양
 국어: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다.

1.4. ‘-는/-(-으)ㄴ/-(-으)ㄹ 것 같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곧+ 비+ 내리다+ 같다
 국어: 곧 비가 내릴 것 같다.

1.5. ‘-나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토요일+ 때문+ 차가 밀리다+ 같다

국어: 토요일이어서 차가 밀리**나**보다.

(보다: 추측을 나타냄)

1.6. ‘-는/(으)ㄴ-/(으)ㄹ 듯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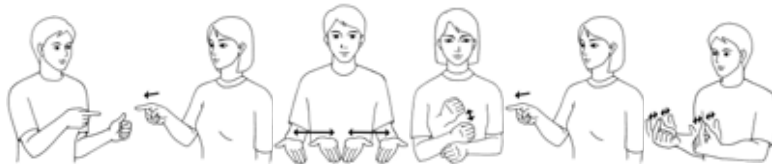


수화: 비+ 거세다+ 같다

국어: 비가 쏟아 질 **듯**하다.

(듯하다: ‘것 같다’는 뜻의 객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말)

1.7. ‘-는/(으)ㄴ-/(으)ㄹ 듯싶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그+ 그것+ 일+ 하다+ 것+ 같다

국어: 그는 그 일을 **할** 듯**싶**다.

(듯싶다: ‘것 같다’는 뜻의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냄)

1.8. ‘-기가 쉽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조심하다+ 아니다+ -면+ 다치다+ 쉽다

국어: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기가 쉽다.

1.9. ‘-(으)ㄹ텐데’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천천히+ 걷다+ -면+ 늦다+ 아마

국어: 천천히 걸으면 늦을 텐데.

1.10. ‘-는/(으)ㄴ-/-(으)ㄹ지도 모른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오후+ 비+ 내리다+ 모르다

국어: 오후에는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1.11. ‘-는/(으)ㄴ-/-(으)ㄹ줄 알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야구+ 경기+ 지다+ 줄+ 알다+ 끝

국어: 야구 경기에 **질** **줄** **알**았다.

(줄: 속셈 따위를 나타냄)

1.12. ‘-나 싶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이제+ 조금+ 살다+ 같다

국어: 이제는 좀 **사**나 **싶**다.

(싶다: 추측, 또는 근사함을 나타냄)

1.13. ‘-기는 틀렸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시험+ 점수+ 잘+ 나오다+ 틀렸다

국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는 **틀**렸다.

2. 판단의 표현

[학습 목표]

말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주관적인 판단은>

2.1. ‘-는/(으)ㄴ 셈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옷+ 공짜+ 받다+ 마찬가지로

국어: 이 옷은 거저 얻은 셈이다.

(셈: 어떤 형편이나 결과)

2.2. ‘-(으)ㄴ 만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그+ 책+ 소중한+ 여기도+ 맞다+ 같다

국어: 그 책은 소중한 여길 만하다.

(만하다: 어떤 대상의 가치가 '그러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2.3. '-(으)르 리 없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그+ 학생+ 지다+ -르 리 없다

국어: 그 학생이 질 리 없다.

(리: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냄)

2.4. '-(으)르줄 알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나+ 그+ 실패하다+ 줄+ 알다+ 끝

국어: 나는 그가 실패할 줄 알았어요.

2.5. '-(으)르 수 있다' 등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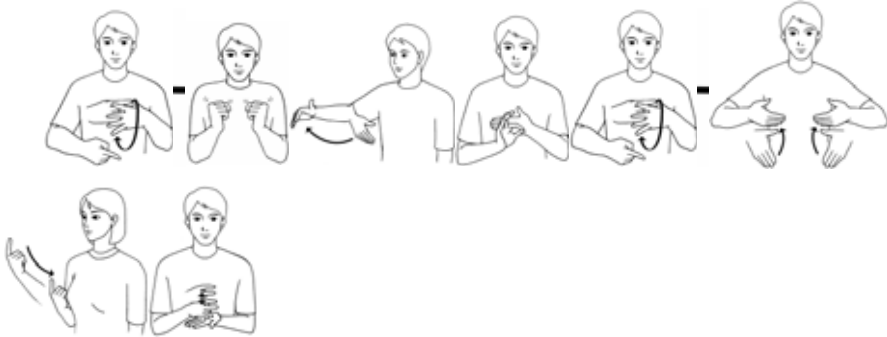


수화: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

국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객관적인 판단은>

2.6. ‘-는/(으)ㄴ 법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겨울+ 가다+ -면+ 봄+ 오다+ 법

국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법이다.

2.7. ‘-게 마련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사람+ 언젠가+ 죽다+ 마련

국어: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마련: 그리웁. 그리되는 것이 당연함)

3. 능력의 표현

[학습 목표]

행위자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3.1. ‘-(으)ㄴ 수 있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나+ 수화+ 할 수 있다

국어: 나는 수화를 할 수 있다.

3.2. ‘-(으)ㄴ 수 없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그+ 학생+ 말+ 듣다+ 할 수 없다

국어: 그 학생은 말을 들을 수 없다.

3.3. ‘-(으)ㄴ 줄 알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나+ 피아노+ 할 수 있다

국어: 나는 피아노를 칠 줄 안다.

3.4. ‘-(으)ㄴ 줄 모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할아버지+ 운전+ 모르다

국어: 할아버지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

4. 바람 · 소망 · 우려의 표현

[학습 목표]

말하는 사람이 바람 · 소망 · 우려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4.1. '-고 싶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나+ 도+ 학교+ 가다+ 싶다

국어: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

4.2. '-고 싶어 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그+ 나+ 보다+ 싶다

국어: 그는 나를 보고 싶어 한다.

4.3. '-기 바란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너+ 성공하다+ 바라다

국어: 네가 성공하기 바란다.

4.4. ‘-아야/-어야 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덕+ 높다+ 사람+ 꼭+ 되다

국어: 덕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4.5. ‘-아야/-어야 좋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음식+ 무엇+ 다+ 먹다+ 좋다

국어: 음식은 무엇이든 다 먹어야 좋다.

4.6. ‘-(으)면 좋겠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여행+가다+면+좋다

국어: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4.7. ‘-(으)면 안 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거짓말+하다+면+안되다

국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4.8. ‘-어야 하는데’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일+잘+되다/바라는 표정

국어: 일이 잘 되어야 하는데.

4.9. ‘-면 안 되는데’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비밀+ 새다+ -면+ 안 되다/걱정하는 표정

국어: 비밀이 새면 안 되는데.

5. 인식의 표현

[학습 목표]

말하는 사람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5.1.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네, -는구나/-구나’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꽃+ 참+ 곱다+ -구나

국어: 꽃이 참 곱네.



수화: 너+ 아주 잘하다+ -구나

국어: 너 아주 잘하는구나.



수화: 참+ 잘+ 되다+ -구나

국어: 참 잘 되었구나.

5.2.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확인할 때는 '-지'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학생+ 들+ 벌써+ 가다/묻는 표정

국어: 학생들은 벌써 갔지?

6. 제안의 표현

[학습 목표]

말하는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것이 행위자의 행동을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6.1. '-는 게 좋겠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너+ 오다+ 것+ 좋다

국어: 네가 오는 게 좋겠다.

(계: '것이'가 줄어든 말)

6.2. '-(으)르까?'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오늘+ 점심+ 빵+ 먹다+ 것+ 어떠하다/묻는 표정

국어: 오늘 점심에는 빵을 먹는 것이 어떨까?

7. 당위의 표현

[학습 목표]

말하는 사람이 행동을 지시할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7.1. '-아야/-어야 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성공+ 위하다+ 최선+ 다+ 하다+ 되다

국어: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7.2. '-아야/-어야 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오늘+ 밤+ 이+ 일+ 끝내다+ 꼭+ 되다

국어: 오늘밤까지 이 일을 끝내야 된다.

8. 허락 · 허용의 표현

[학습 목표]

행위자의 행동을 허락 또는 허용할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8.1. ‘-아도/-어도 좋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집+가다+좋다

국어: 집에 가도 좋아요.

8.2. ‘-(으)ㄴ 수 있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체육+대회+여러분+도+참가+할 수 있다

국어: 체육대회에는 여러분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8.3. ‘-(으)렴’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마음대로+ 해보다

국어: 마음대로 해 보렴.

(-렴: '-려무나'의 준말.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을 나타냄)

8.4. '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내일+ 오시다+ 아니다+ 되다

국어: 내일은 안 오셔도 됩니다.

9. 금지의 표현

[학습 목표]

행위자의 행동을 금지할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9.1. ‘-(으)면 안 된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다시+늦다+ -면+ 안 되다

국어: 다시는 늦으면 안 된다.

9.2. ‘-(으)ㄹ 수 없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이곳+ 15세+ 이하+ 출입+ 할 수 없다

국어: 이곳은 15세 이하는 출입할 수 없다.

10. 의도의 표현

[학습 목표]

행위자의 행동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10.1. ‘-(으)려고 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미수+ 고향+ 가다+ 생각하다+ 중(中)

국어: 미수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10.2. ‘-(으)르까 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그림+ 그리다+ 생각하다+ 중(中)

국어: 그림을 그릴까 보다.

(보다: 막연한 자기 의향을 나타냄)

10.3. ‘-(으)르까 하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장사+ 해보다+ 생각하다+ 중(中)

국어: 장사를 해 볼까 한다.

10.4. ‘-(으)ㄹ까 싶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취직+ 해보다+ 생각하다+ 중(中)

국어: 취직을 할까 싶다.

(싶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11. 의지의 표현

[학습 목표]

행위자의 행동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11.1. ‘-겠-’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나+ 여기+ 머무르다+ -하겠다/의지를 표현하는 표정을 지으며

국어: 나는 여기 있겠다.

(겠: 화자의 의지를 나타냄)

11.2. ‘-(으)ㄹ 것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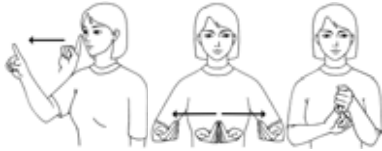


수화: 그+ 일+ 나+ 하겠다

국어: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

(-ㄹ: 의지 등의 속뜻을 지니면서 미래시제를 나타냄)

11.3. ‘-(으)르게’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내일+ 떠나다+ 약속하다

국어: 내일 떠날게.

(-르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냄)

11.4. ‘-(으)래’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나+ 가지다+ 싶다

국어: 내가 가질래.

(-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자기의 의사를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냄.)

12. 시도의 표현

[학습 목표]

행위자의 행동 시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익힌다.

[표현하기]

12.1. '-아/-어- 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옷+ 입다+ 해보다+ 사다+ 것+ 좋다

국어: 옷은 입어보고 사는 것이 좋아요.

12.2. '-고 보다'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수화: 우선+ 먹다+ 해보다/같이 하자는 표정

국어: 우선 먹고 보자.

[도움말]

(1) 사람들은 말할 때 사실만이 아니라 심리적 태도도 전달한다.

(2) 심리적 태도는 한 문장에서 둘 이상 표현할 수 있다.

예: 그 학생은 시골에 **가 봤기 쉽다**.(의도+추측)

좋은 책은 다 **읽어 두어야 한다**.(의도+당위)

(3)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

1) 어미나 조사

2) 어순

3) 강세나 억양

[연습]

(1) () 속에 있는 단어를 추측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뛰다+가다+것+빠르다+아마

국어: 뛰어 가는 것이 빠를지도 (모르다→)



수화: 곧+눈+내리다+모르다

국어: 곧 눈이 (내리다→)



수화: 퇴근+ 시간+ 때문+ 밀리다+ 같다

국어: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밀리다→)



수화: 동생+ 집+ 없다+ 쉽다

국어: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수화: 시험+ 점수+ 잘+ 나오다+ 틀렸다

국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는 (틀리다→)

(2) () 속에 있는 단어를 판단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그+ 시계+ 소중히+ 여기다+ 맞다+ 같다

국어: 그 시계는 소중히 (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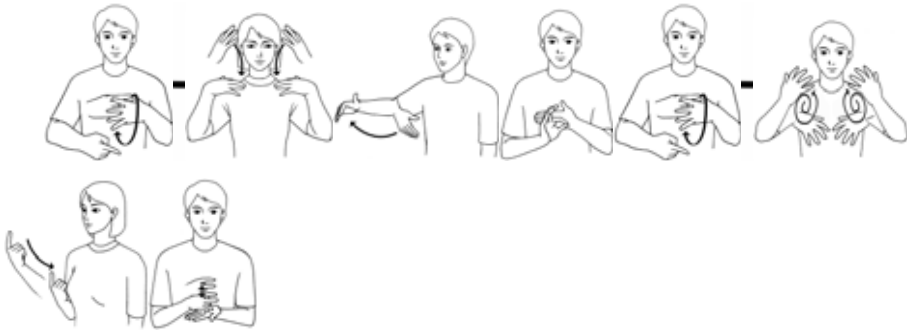
수화: 그+ 죽다+ -리 리 없다

국어: 그가 (죽다→)



수화: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국어: 누구나 잘 (하다→)



수화: 여름+ 가다+ -면+ 가을+ 오다+ 법

국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다→)

(3) () 속에 있는 동사를 행위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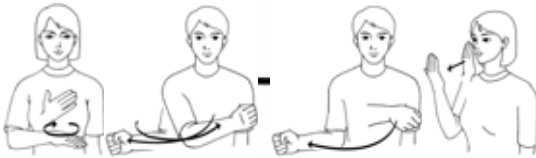
수화: 학생+ 들+ 영어+ 할 수 있다

국어: 학생들은 영어를 (하다→)



수화: 생활+ 어렵다+ 때문+ 대학+ 가다+ 할 수 없다

국어: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에 (가다→)



수화: 우리+ 정구+ 할 수 있다

국어: 우리는 정구를 (하다→)



수화: 나+ 놀다+ 줄+ 모르다

국어: 나는 (놀다→)

(4) () 속에 있는 단어를 바람, 소망, 또는 우려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나+ 도+ 빵+ 먹다+ 싶다

국어: 나도 빵이 (먹다→)



수화: 너+ 공부+ 잘하다+ 바라다

국어: 네가 공부를 잘하기 (바라다→)



수화: 잠+ 자다+ -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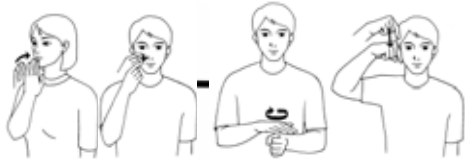
국어: 잠이나 (자다→)

(5) () 속에 있는 단어를 인식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저녁+ 벌써+ 먹다/묻는 표정

국어: 저녁은 벌써 (먹었다→)



수화: 참+ 불쌍하다+ -구나

국어: 참 (불쌍하다→)



수화: 너+ 만+ 믿다

국어: 자네만 (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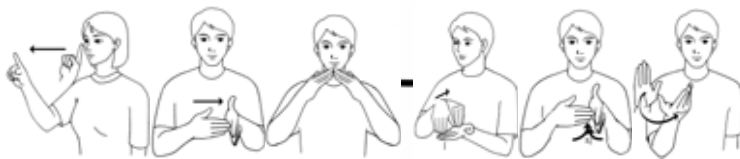
(6) () 속에 있는 단어를 제안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너+ 하다+ 좋다

국어: 네가 (하다→)

(7) () 속에 있는 단어를 당위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내일+ 까지+ 숙제+ 끝내다+ 되다

국어: 내일까지 숙제를 (끝내다→)

(8) () 속에 있는 단어를 허락이나 허용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영화+ 보다+ 가다+ 좋다

국어: 영화 보러 (가다→)



수화: 내일+ 쉬다+ 할 수 있다

국어: 내일은 (쉬다→)



수화: 너+ 마음대로+ 해봐

국어: 네 마음대로 (하다→)

(9) () 속에 있는 단어를 금지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다시+결석하다+ -면+안되다

국어: 다시는 (결석하다→)

(10) () 속에 이는 단어를 의도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나+집+가다+생각하다+중(中)

국어: 나는 집으로 (가다→)



수화: 공부+하다+생각하다+중(中)

국어: 공부를 (해보다→)

(11) () 속에 있는 단어를 의지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청소+ 나+ 하겠다

국어: 청소는 내가 (하다→)

(12) () 속에 있는 단어를 시도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수화: 우선+ 명령+ 따르다+ 해보다

국어: 우선 명령에 (따르다→)

참고 문헌

- 고영근·남기심(2006). **7차 고교문법 자습서**. 서울: 탑출판사.
-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상, 중, 하). 서울: 두산동아.
- 권재일(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의 실제: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지도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수화연구**, 1, 1~67.
- 김승국·김응범(2010). 한국수화 발전 및 수화 사용 인구 확충 방안. **한국수화연구**, 2, 1~70.
- 김응범(2008). 농 학생의 국어 문장 오류 및 그 원인 분석 연구. **한국수화연구**, 1, 68~127.
- 김응범(2009).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2), 231~256.
- 김응범(2010). 청각장애 학생의 문장력과 독해력에 관한 선행 연구의 고찰. **한국수화연구**, 2, 98~139.
- 김정숙 등(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중서림 편집국(2003).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이기문 감수(2007). **동아 새국어사전**(제5판). 서울: 두산동아.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5). **한국수화사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 문형사전**.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사전 별책 1 일상생활수화(1)**.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사전 별책 1 일상생활수화(2)**.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